

2-27-2006

##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가정 교회 사역과 교회 성장전략

Christopher Myungjoon Kim 김명준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 Recommended Citation

김명준,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가정 교회 사역과 교회 성장전략."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6.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 **HOUSE CHURCH MINISTRY AND CHURCH GROWTH STRATEGY OF THE VANCOUVER GLOBAL-MISSION CHURCH**

written by

**CHRISTOPHER MYUNGJOON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

Jeong Kii Min

---

Young Shin Kim

---

Seyoon Kim

February 27, 2006

**HOUSE CHURCH MINISTRY AND CHURCH GROWTH  
STRATEGY OF THE VANCOUVER GLOBAL-MISSIO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CHRISTOPHER MYUNGJOON KIM**

FEBRUARY 2006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가정 교회  
사역과 교회 성장전략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민 종 기 교수

김 명 준

2006년 2월

## Abstract

House Church Ministry and Church Growth Strategy of  
the Vancouver Global-Mission Church

Christopher Myungjoon Kim

Doctor of Ministry

2006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Church growth is one of the main concerns for the most pastors. In my understanding, what we think of church determines how church should grow. It does not begin the renewal and growth of church until we firmly recover the original meaning of church. For the last ten years, I have ministered Vancouver Global-Mission Church as a senior pastor. During my ministry, I became convinced that house church ministry could be an alternative way for solving many problems of modern churches and recovering the stagnation of church. This Ministry Focus Paper is the produce of my understanding and concrete experience of house church ministry.

This Paper is mainly composed of four parts. First, in the chapter two, I delineated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 church with biblical, historical, and pastoral perspective. My main concern in this chapter is to grasp the meaning of house church grounded on theological foundation.

Second, in the chapter three, I suggested several cases of successful models in relation to the effective house church ministry: International Charismatic Mission, Korean Global-Mission Church, and Houston Seoul Baptist Church. Each of these churches is a good model which shows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house church ministry.

Third, in the chapter four, I analyzed Vancouver Global-Mission Church with a perspective of church growth: the history of church, the philosophy of ministry, the strategies of church growth, the organization and system of house church, and the current status of house church. I stressed on the strong points of Vancouver

Global-Mission Church; at the same time, I found the weak points that should be supplemented.

Fourth, in the chapter five, I suggested a new paradigm of church growth through house church ministry of Vancouver Global-Mission Church. I am convinced of that house church ministry is an optimal project of church ministry for Vancouver Global-Mission Church in which church members need the spiritual communion by gathering and communicating together.

This study is a case of one local church in Vancouver, Canada. So, the suggestions in this Paper could not be applied to all kinds of churches in the world; nevertheless, in this post modern society, small group ministry such as house church ministry is one of the effective ministry ways in order to accomplish the vision of church in the Bible.

Theological Mentors: Jeong Kii Min, Ph. D.

Young Shin Kim, Ph. D.

Seyoon Kim, Ph. D.

## 감사의 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목회의 꿈과 영혼구원의 비전을 주시고, 지금 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던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시간 마다 감격과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복음과 신학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김세운 박사님과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격려와 용기를 주신 민종기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찾던 중에 가정교회의 현장을 보여 주시고, 직접 멘토가 되시어 가르쳐 주시고, 밴쿠버 지구촌 교회까지 오셔서 가정교회 정착을 도와주신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최영기 목사님과 가정교회 세미나를 통해 가정교회의 이론과 가정교회로의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협력자가 되어 준 사랑하는 아내 김애문의 격려와 사랑하는 세 딸 Deborah, Priscilla 그리고 Joy의 기도와 기다려 줌이 없었다면 이 논문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역과 연구의 현장이 되어 주신 밴쿠버 지구촌 교회와 공부하는 동안 여러 면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LA의 김명 전도사 내외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약 적 교회를 이루기 위해 오늘도 애쓰는 사랑하는 동역자된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 논문을 바칩니다.

2006년 2월 김명준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	1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4
제 3 절 용어 정의 .....	5
1. 가정교회 .....	5
2. 목장 .....	6
3. 목자 .....	6
제 2 장 가정 교회에 대한 이해 .....	7
제 1 절 성경적 이해 .....	7
1. 구약에 나타난 가정교회 .....	8
2. 신약에 나타난 가정교회 .....	9
가. 복음서에 나타난 가정교회 .....	9
나. 사도행전에서 의 가정교회 .....	9
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가정교회 .....	11
3. 가정교회의 기능 .....	12
제 2 절 교회사적 이해 .....	20
1. 종교개혁 이전의 가정교회 .....	21
2. 종교개혁 이후의 가정교회 .....	22
3. 중국의 가정교회 .....	26
4. 현대교회와 가정교회 .....	28
제 3 절 목회 신학적 이해 .....	29
1. 교회 성장의 정의 .....	29
2. 건강한 교회의 성장 .....	30
3. 가정교회 .....	34



제 3 장 가정교회의 성공적인 모델 연구 .....	39
제 1 절 국제 은사 선교 교회 .....	39
1. 교회 성장 관점에서의 교회 역사 .....	39
2.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	41
3. 가정교회 조직과 운영 .....	43
4. 평가 .....	44
제 2 절 한국 지구촌교회 .....	46
1. 교회 성장 관점에서의 교회 역사 .....	46
2.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	48
3. 가정교회 조직과 운영 .....	50
4. 평가 .....	53
제 3 절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	53
1. 교회 성장 관점에서의 교회 역사 .....	54
2.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	55
3. 가정교회 조직과 운영 .....	57
4. 평가 .....	61
제 4 장 교회 성장 관점에서 본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분석 .....	63
제 1 절 밴쿠버 지구촌교회의 분석 .....	63
1. 지역적 현황 .....	63
2. 지리적 환경 .....	64
3. 문화적 환경 .....	64
4. 인구학적 환경 .....	64
5. 한인들의 상황 .....	64
6. 목회지의 환경과 현황 .....	65
7. 한인들을 위한 지역 교회 상황 .....	65
제 2 절 역사적 현황 .....	66
1. 태동기: 교회 개척 준비 단계(1994년 12월-1995년 2월) .....	67

2	1기: 성장기(1995년 3월-1997년 12월)	68
3	2기: 혼란기(1998년 1월-2001년 12월)	70
4	3기: 안정기(2002년 1월-2005년 12월)	72
	5. 교회 현황(통계적 분석)	73
제 3 절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일반적인 전략	73
1.	목회 철학	73
	가. 사명과 비전	73
	나. 핵심적인 가치	75
	다. 8대 전략	76
2.	일반적인 전략	76
	가. 조직과 사역	76
	나. 역동적 예배 사역	76
	다. 영성 훈련과 사역	77
	라. 선교 사역	77
제 4 절	지금까지의 가정교회 조직과 운영	78
1.	지금까지의 난제들	78
2.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	79
3.	가정교회의 개념 정의	81
	가. 명칭	81
	나. 구성원	81
4.	조직과 운영	81
5.	과정과 모임의 발전 단계	82
6.	문제점 및 평가	83
제 5 장	밴쿠버 지구촌교회의 가정교회사역을 통한 교회성장전략의 새 패러다임	85
제 1 절	가정교회의 정의와 필요성	85
1.	정의	85
2.	가정교회의 특성	86

3. 가정교회의 필요성 .....	88
제 2 절 가정교회 사역의 전략 강화를 준비 .....	89
1. 사명 선언서 .....	89
2. 전략의 구체화 .....	91
가. 예배 횟수 축소 .....	91
나. 교회관의 새로운 시각 배양 전략 .....	93
다. 증보기도팀 구성 .....	96
제 3 절 가정교회의 조직과 편성 .....	97
1. 조직과 역할 .....	97
가. 목자 .....	97
나. 초원지기 .....	98
다. 교사 .....	99
라. 증보기도자 .....	100
마. 찬양 인도자 .....	100
바. 목원 .....	100
2. 목자 선정 과정 .....	100
가. 목자의 자질 .....	103
나. 선정 조건 .....	104
다. 선정 과정 .....	104
라. 절차 .....	105
3. 목자 교육 커리큘럼과 훈련 계획 .....	106
4. 목장과 목원의 편성과 방법 .....	107
5. 분가 .....	107
가. 분가의 방법 .....	107
나. 분가의 시기 .....	107
6. 가정교회의 운영 .....	107
가. 모임의 날짜와 시간 .....	107
나. 진행 원칙과 시간 배정 .....	108

다.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방법 .....	110
7. 치러야 할 대가 .....	110
가. 장애물 .....	111
나. 극복하는 방법 .....	111
제 6 장 결론 .....	113
부록 .....	117
참고 문헌 .....	130
Vita .....	141

## 표 목 차

<표 1> ICM 교회의 목회전략 .....	43
<표 2> ICM 교회의 리더십 훈련 과정 .....	45
<표 3> 1994-2005년까지의 교회출석인원과 재정결산 내역 .....	73
<표 4> 교회 출석과 목장 참여수의 대비 .....	83
<표 5> 선정 조건 .....	104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다(마 28:19-20). 불신 영혼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이민 사회의 한국 교회는 불신 영혼의 회심에 의한 교회 성장보다는 기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이동에 의한 외향적 성장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며, 이러한 수평이동의 악순환은 교회 성장을 둔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교회가 불신영혼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보다는 기존 신자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현실이 바로 교회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보다는 기존 교인들의 정착과 훈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기존 신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차치하고 오늘날 교회 성장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첫째, 교회내의 평신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성경은 넓은 의미로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으로 말한다. 기능적인 관계에서 목회자는 이러한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에 전념하는 일을 한다(행 6:4). 목회자와 평신도의 교회 내 역할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이 땅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오늘 날 한국 증소형 교회와 이민 교회 내의 평신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보다는 익명성에 안주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편승해 안락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목회자는 교회내 일군이 부족하여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보다는 봉사의 일에 더 많은 힘을 쏟음으로 목회자 자신의 탈진으로 교회가 결과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교회 성장의 감소는 교회내에서의 나눔과 친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부재한데 기인한다. 신약의 초대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는 코이노니아 공동체(행 2:43-47)로 교회의 정체성을 지녔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기초한 성령 공동체의 한 특징으로 드러난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러한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곧 양적인 부흥을 가져오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가는 초석이 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예배 후, 나눔과 친교가 없이 뿔뿔이 흩어진다. 이민 사회 한국교회는 대부분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어 식사와 다과를 나누지만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히 10:24)하는 쌍방의 교제 보다는 이민 생활의 고달픔 속에 일방적인 위로를 위하여, 이러한 친교가 교회 안에서 오히려 상처와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셋째, 교회의 세상을 향한 섬김의 부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성경이 말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이다(마 5:13-14).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로 부름과 사명을 받았다. 교회가 이 사명을 놓쳐버릴 때, 교회의 감소와 침체는 당연한 것이 된다. 지금 한국 교회와 심지어 이민 교회는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미주 특히 캐나다의 이민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감소하고 정체된 지금의 교회의 위상을 끌어 올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바로 알고 교회로서의 본연의 부르심과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에 교회가 생존하는 방법은 성경의 말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듯이 바른 교회론에 기초한 교회는 자연적 교회 성장을 가져온다. 이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한국교회와 이민 사회의 한인 교회는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성경적인 교회로서의 변화를 시도해야 될 때이다. 그리고 영혼 구원 중심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민 교회의 목회자로서 본 연구자는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개혁 초기부터 교회의 사명인 영혼 건짐을 통해 교회 성장을 꿈꿔 왔다. 그러나 영혼을 구하는 것은 목사의 개인의 전도의 열심과 헌신으로는

회심까지는 가지고 오게 하지만, 지속적인 출석과 양육을 통해 신앙 성장을 가지고 오기에는 역부족임을 느꼈다. 이는 목사로서 한 영혼에게만 집중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사역이 교회 안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캐나다 밴쿠버에 소재한 교회로 1995년 4월에 탄생된 1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본 연구자는 그 동안 밴쿠버 지구촌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이해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에 힘썼다. 구령 사역과 양육, 일꾼 삼는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교회 성장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본 연구자는 그 동안 교회 성장을 목표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 가지 사역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목양의 방법으로 잘 알려진 구역활동이다. 이 구역활동은 한국의 현실과는 달리 이민 교회에 적용하기 힘든 목양방법이었다. 왜냐하면 이민 교회는 직업이나 교통 편의상 부부가 늘 동행해야 하는 관계로 매 주 구역 예배로 모인다는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설령 모인다 해도 구역예배가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인간적인 친교 중심으로 흘렀다. 이민 사회가 갖는 특성 때문에 구역예배가 영적 성장과 코이노니아적인 섬김과 교제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는 없었다. 다른 한가지로 제자훈련을 통한 평신도 사역자 육성을 시도 해 보았다.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 제자 훈련을 통해 일정기간, 일정수준까지는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책상에 마주 앉아 이루어지는 지식 주입식의 성경공부로서는 아는 것과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성숙한 평신도를 길러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회 성장의 전략으로 가정교회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동기는 작은 목자 훈련과 가정교회로 이루어지는 목회에서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교회'인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고 본 연구자가 목회하는 이민 교회에 적용할 이상적인 목회 방법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97년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은혜 교회(담임목사 김삼성 선교사)를 방문하여 가정 교회 사역을 통해 엄청난 교회 성장(당시 현지인 장년 2400명 출석)을 보게 되었고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최영기 목사 시무)를 방문하여 이민 교회에 가정교회 사역을 시도하면서 영혼 구원<sup>1)</sup>에 성공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적인 교회를 고찰해 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교회 형태인 가정 교회 사역을 통한 교회 성장 전략을 세우고, 이를 통해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게 함이다.

진 겐츠(Gene A. Getz)는 오늘날 교회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좋은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교회의 목적이나 행사 그리고 프로젝트가 개발될 때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인데, '첫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둘째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는가, 그리고 셋째는 문화적 가치를 수반하고 있는가'<sup>2)</sup>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겐츠의 방법론을 따라 먼저 성경이 교회를 무엇이라 하는가를 살피고, 다음으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가정 교회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다음 삼차적인 단계는 지역 교회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전환하여 교회 성장에 성공한 교회들을 모델로 선정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분석은 교회 성장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려 한다.

##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적 연구와 현장 연구를 택하였다. 문헌 연구로는 가정 교회의 성경적 배경을 살피며, 종교개혁 전후에 나타난 가정교회들과 중국의 가정교회, 그리고 현재의 가정교회를 교회사적으로 조명하려고 한다. 또한 현대 교회 성장학 관점에서 슈바르츠의 건강한 가정교회를 연구하고, 현장 연구로 미국 휴스턴 서울침례교회와 한국의 지구촌교회를 연구하려한다. 그러나 ICM 교회는 현장 방문하지 못하고 문헌에만 의존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의 확보된 주보와 각종 문헌을 중심으로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사역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며 교회 성장 전략을 세우려고 한다. 그 전략을 훈련과정으로 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1) 최영기 목사 인터뷰(1993년부터 2003년까지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600여명의 결신자가 있었다고 함)

2) 이성희, *교회 행정학*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5), 31-37.

### 제 3 절 용어 정의

본 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가정교회, 목장, 목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한다.

#### 1. 가정교회

첫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와는 다르다. 오늘날 북 미주에서는 예배당의 형태를 갖춘 건물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을 예배의 장소로 사용하여 모이는 독립된 지역교회가 있다. 이를 Home Church 혹은 House Church라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가정교회는 Home Church와는 다르다.

둘째, 이러한 가정교회는 구성원과 목적에 있어서 구역예배와는 다르다. 구역예배는 교회 안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정교회는 목원의 선택에 의해서 구성된다. 구역은 교회의 부속기구이나 가정교회는 독립개체이다. 또한 구역의 주 목적은 친교지만 가정교회의 주목적은 하나의 지역교회로서의 사역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회는 구역예배와는 달리 하나의 독립된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자발적인 사역을 통해 지역교회를 섬기는 데까지 이른다. 이런 면에서 구역예배와 가정교회는 다르다.

셋째, 가정교회는 교회내 소그룹 모임과는 다르다. 보통 교회 내에서 소그룹이 결성되어 성경을 공부하거나, 제자훈련을 하거나 선교회 모임 등을 한다. 예를 들면 제자훈련 모임은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를 만들지만, 가정교회는 삶을 나눔으로써 제자를 만든다. 제자 훈련 모임은 믿는 이가 참석하지만, 가정교회는 안 믿는 이의 참석이다. 제자 훈련 모임은 주입식 훈련이지만, 가정교회 모임은 상호 나눔과 성장이다.

넷째, 가정교회는 셀 교회가 아니다. 오늘날 셀 교회라고 할 때 용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셀이 있는 교회'(church with cell groups)는 소그룹이나 셀이 주일 예배를 돕지만, '셀 교회'(cell group church)는 교회의 모든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가정교회 교회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sup>3)</sup> 본 연구에서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 셀 교회를 가정교회란 이름으로 통일하겠다.<sup>4)</sup>

3) 박영철, *셀 목회와 교회성장* (강의안; 대전: 침례신학 목회신학대학원), 2.

4) Ibid., 2.

다섯째, 가정교회란 두 날개 교회이다. 지역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시에 모든 가정교회 성도들이 축제적인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신학교의 의미를 가지고 가정교회에 파송할 가정교회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특성이 있다. 한편, 주 중에 모이는 가정교회는 주일이나 교회 전체에서 이를 수 없는 영혼 구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훈련, 지도자 양성, 나아가 서로 간에 코이노니아와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 한다<sup>5)</sup>. 모임은 매주 모이고(행 20:7), 남녀가 같이 모이고(롬 16:3-5),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모인다(고전 14:23-25).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교회는 영어로 House Church라고 하겠다.

## 2. 목장

본 연구에서는 가정교회 목회 전략을 세울 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현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목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이 용어는 이미 라일 샬러(Lyle E. Schaller)와 피터 와그너(Peter Wagner)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와그너<sup>6)</sup>는 교인이 2 백 명 선에 도달하면 성장을 위하여 목회자가 목자에서 목장 경영자의 형태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지 헌터(George G. Hunter)는 작은 교회의 성장을 논하면서 “목회자가 목자에서 목장 경영자로 변할 때 계속 성장할 수 있다”<sup>7)</sup>고 주장하였다.

## 3. 목자

목자란 가정교회를 돌보는 목장지기이다. 여기서 목자는 단순한 구역장이나, 소그룹 리더가 아니라, 교단에서 안수 받지 않았으나, 평신도 목사로서 가정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를 의미한다. 목자는 성례전(성찬식, 세례식)집례와 축도를 제외한 모든 역할을 한다.

5) Ralph W. Neighbour Jr., "Welcome to the Cell Church!," *Cell Church Magazine* (August 1994), 5.

6) C. Peter Wagner, *교회 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69.

7) Donald A. McGavran and George Hunter, *교회 성장학*, 박은규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3), 108

## 제 2 장

### 가정 교회에 대한 이해

본 장에서는 가정 교회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연구하려고 한다. 먼저 성경은 가정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연구하려고 한다. 특히 신약성경에서 가정교회가 생겨난 배경과 그 이유가 무엇이며 가정교회의 사역의 목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고찰해 보려고 한다.

#### 제 1 절 성경적 이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sup>8)</sup>로 정의할 수 있는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교회 공동체는 크게 주일에 모이는 큰 공동체와 주중에 모이는 작은 공동체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를 두 날개 교회<sup>9)</sup>라고 하며, 그 중 주중에 모임을 가지는 작은 공동체는 소그룹, 셀, 셀 교회, 혹은 가정 교회라고 명명되고 있다. 비록 성경에 가정 교회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으나, 신구약을 살펴보면 오늘날 가정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각춘 여러 형태의 크고 작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음을 알 수 있다.

8) 이종성, *교회론 1*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2), 19에서 재인용

9) 풀러 선교대학원의 찰스 벤 엔겐은 21세기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런 관점을 강조한다. 참조, Charles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임운택 역 (서울: 두란노, 1996).

## 1. 구약에 나타난 가정교회

헨리 디이슨(Henry C. Thiessen)<sup>10)</sup>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 및 노아의 가족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창 6:18; 7:1, 5-6; 8:15, 16, 20; 9:1, 8) 가정이 조직화된 종교 생활의 가장 초기 형태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또한 종교 생활 단위로서의 가정 내에서 가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사장과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견해를 고려해보면, 아담의 가정은 오늘날과 같은 지역 교회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약에 나타난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 중심의 공동체가 점차 발전하여 회당과 성전 공동체로, 그리고 오늘의 교회 공동체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로버트와 줄리아 뱅크스(Robert and Julia Banks)는 그들의 책, *교회, 또 하나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적 특성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하나님은 최초부터 자신을 공동체적인 존재로 삼위 하나님으로 표현하시고(창 1:26) 사람도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창 2:18, 24)하셨다. 공동체의 뿌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두게 하셨다. 이러한 모습들이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시고(신 8:1-18) 때로는 그룹과 언약을 맺으시기도 하셨다(신 5:1-3).<sup>11)</sup>

그들은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사람 사이의 상호 교제와 관계,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과 가르침이나 예식을 통해 형성되어 왔고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 가정에서 확장되어 회당으로 옮겨지고, 성전이 재건되자 정기적으로 성전에 나가기도 하고 회당에 가는 사람도 있게 된 것으로 말한다.<sup>12)</sup> 그러므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공동체인 가정교회의 시작과 목적은 구약에서부터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10) Henry C. Thiessen, *조직신학 강론*,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635.

11) Robert and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서울: IVP, 1999), 26.

12) Ibid., 27.

## 2. 신약 성서에 나타난 가정교회

### 가. 복음서에 나타난 가정교회

신약성서에 와서 가정교회 사역이 좀더 구체화된다. 예수는 수많은 무리들을 목양 하셨다. 성경은 예수가 자신을 추종하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한다.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셨다.<sup>13)</sup>

신약은 예수의 제자들 모임과 같은 소그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증언한다. 두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기시는 일(막 1:16-17), 세 제자를 부르시고 수시로 동행하시며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일(마 17:1-5), 일곱 제자를 찾아 가신 일(요 21:1-3),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함께 수행하시며 하늘나라의 일을 보여주시고, 맡겨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일(마 10:1-5), 안식일에 제자들과 밀밭을 거니시면서 훈련하신 일(막 2:23-28)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수는 소그룹인 제자 공동체를 혈육인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중요하게 여기시고(막 3:31-34)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다.

나아가 많은 경우 예수께서는 가정을 찾아 사역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정사역의 실재들을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셨다. 삭개오와의 만남(눅 19:5), 비유를 집에서 말씀하신 일(마 13:36), 각색 병자를 고치신 일(마 10:8, 12; 눅 10:5), 각 가정을 방문하여 말씀을 가르치신 일(눅 10:38-42), 가정에 초대받으신 일(요 12:1-8) 등은 모두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예수의 제자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훈련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통해서 본다면 소그룹 형태의 가정 중심의 사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 나. 사도행전에서의 가정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형태는 바로 가정교회 형태였다. 처음에 가정에

13) Gareth W.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옥토출판사, 1997), 138-194.

서 작은 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선교하였다. 4세기,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가정집이 교회로 불리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던 장소가 가정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행 1:14, 2:42, 12:12). 그리고 후기에는 야고보의 가정(행 21:8)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행 2:1, 46; 3:11; 5:12, 20).<sup>14)</sup>

루이스 벨코프(Louis Berkhof)는 교회를 말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설명할 때, "어떤 경우에는 가정 에클레시아, 곧 어떤 개인집에 모인 교회를 가정교회로 지칭하기도 한다. 사도 시대는 부유한 혹은 중요한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집에 속한 큰 방을 예배실로 제공하였다(롬 16:23; 고전 16:15; 골 4:15; 몬 2 등)"<sup>15)</sup>고 하며, 누가는 그가 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1:14) 어떻게 확산되어 나갔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다. 즉, 사도행전의 역사가 가정교회로 시작해서 가정교회로 진행이 되고(행 10장) 가정교회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행 28:30).<sup>16)</sup>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더 넓은 장소인 성전<sup>17)</sup>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폭넓은 교제를 했는가 하면 더욱 작은 장소인 가정이나 방에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

14) Herman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505.

15) Louis Berkhof,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Grand Rapids: Eerdmans, 1993), 812.

16) 김의원, "목회자 세미나," *목회와 신학*, 2000년 2월호.

17) 유세비우스(Eusebius)만이 로마의 7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이미 존재하던 건물들 때때로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전체' 교회의 모임을 가졌다. 4세기 이전에는 대규모 모임 장소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대교회 개념을 지지하는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회당과 교회들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초기 저술들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큰 장소가 1세기 교인들이 모이는 방식이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존 보건(John N. Voughan)은 *대교회 (The Large Church)*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유세비우스(Eusebius)만이 로마의 7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이미 존재하던 건물들을 파괴하는 사례들을 11가지나 언급한다. 여러 가지 훌륭한 기록들에 따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장소를 모임 장소로 바꾸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가정, 다락방, 성전, 회당, 언덕, 학교, 이교도 사원 그리고 특별히 공회당 등이 포함된다. 콘스탄틴 대제의 통치 이전에도 오랫동안 교회들은 묘지, 회합 장소, 예배 설비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누가 옳은가? 초대교회는 커다란 장소에서 모였는가 아니면 작은 장소에서 모였는가? 대답은 모두 옳다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두 날개로 기능을 발휘한다. 교회는 '회중적인 환경'으로도 모였고, '공동체 셀 환경'으로 흩어졌다.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가 1세기 동안 대규모 회중과 작은 셀로 동시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신약성경에서 더욱 분명하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전통적인 교회가 신약 성경적 방식을 무시하고 신약 성경적 공동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다. 압도적인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며 기도하며 함께 공동체적인 식사를 나누었다(행 2:46; 5:42). 이렇게 성전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모임을 두고 빌 벡햄(William A. Beckham)은 ‘초대교회가 본질적으로 두 날개로 기능을 발휘하였다’고 표현한다.

다이슨도 “처음에 하나의 지방교회였으니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이다. 아마도 모임은 여러 가정에서 가진 듯하다. 교회는 오직 하나이었다”(행 2:46)<sup>18)</sup>라고 말하므로 초대 교회의 초기 단계가 가정 교회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초대교회에 다양한 가정교회들이 존재했으며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교회가 복음전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큰 그룹으로도 모이고 작은 그룹으로 가정교회가 모였다. 즉 ‘회중적인 환경’(성전)으로 모였고 ‘공동체적 셀 환경’인 가정교회로 흩어져 모인 것이다. 동일한 시간에 한 가정에서 혹은 또 다른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매일 모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번 씩 모이기도 했다(행 2:46; 20:7; 계 1:10).<sup>19)</sup>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할 때, 기독교 공동체는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가정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sup>20)</sup>

#### 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가정교회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서신들 가운데 여러 가정교회가 지역마다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구절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sup>21)</sup>

“아골라와 브리스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고전 16:19),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롬 16:5), “자매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몬 2),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늬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골 4:15). 고린도 전서에서는 ‘온 교회’가 함께 모였던 경우에 대해 언급한다.(고전 1:2). 종종 가정교회들이 전체의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sup>22)</sup>

18) Thiessen, *조직신학 강론*, 653.

19) Ibid., 32, 153.

20) Ron Trudinger, *가정 소그룹 모임*, 장동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1), 27.

21) Vincent Branick, *The House Church in the Writing of Paul*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1989), 13.

22)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69.



위에 나오는 가정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가정교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지역에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는 증거가 보인다. 특히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세워 사역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가정교회 사역에 힘썼다.<sup>23)</sup>

또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교회가 가정과 같음을 묘사하고 있다. 첫째, 교회 구성원의 결속력과 가족 구성원간의 결속력의 유사함을 말한다(롬 16:2, 13; 갈 1:2; 4:19; 골 4:9).<sup>24)</sup> 둘째, 교회의 공동체를 직접 하나님의 가족으로 묘사하기도 했다(엡 2:19). 셋째, 교회의 중심적인 활동이 가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살전 5:16; 롬 12:9-10; 고전 11:33).<sup>25)</sup>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신약 성경의 가정교회 형태를 취했다. 그들은 예배와 나눔 그리고 가르침을 위하여 다양한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다. 한편 더 폭넓은 교제와 예배를 위하여 성전에 모였다. 이렇게 초대 교회가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가정교회를 기초로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정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구약과 신약성서에 나타난 '가정교회'를 살펴보고 바울 서신에 나타난 가정교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은 가정교회의 사역과 그 목표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고찰해 보려고 한다.

### 3. 가정교회의 기능

가정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42-47절은 초대 교회의 가정교회의 핵심적인 기능 5가지를 말한다. 그것은 예배, 양육과 제자화, 구제와 봉사, 성도의 교제, 선교이다.

#### 가. 예배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매일 모여서 형식에 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23)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13-17.

24) Ibid., 30-31.

25) William A. Beckham, *제 2의 종교개혁: 21세기를 위한 교회갱신*, 임원주 외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0), 167.

자발적인 예배를 드렸다. 바울이 교회의 모임의 방법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의 인도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고전 14:26-33). 이런 식의 예배는 가정 교회에서 모였을 때 매우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sup>26)</sup>

로버트 뱅크스의 저서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sup>27)</sup>을 보면 당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자발적이었고 누구나 참여할 자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유는 기독교 신앙을 벗어난 자들에 의해 교회가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예수와 사도들이 전해준 기독교 메시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확지(確知)시킬 필요성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하여 1세기 말엽에는 성찬식에 관한 고정된 형태의 예식이 세워졌고 다른 종류의 예배도 그전보다 훨씬 비공개적인 방향으로 성격이 변해갔다.<sup>28)</sup>

리처드 포스터(Richard J. Foster)는 성경의 예배의 특징을 그의 저서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은, 사람들이 '거룩한 기대' 속에 모였다는 데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믿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간다고 알았다. 이 사실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이 모인 건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진동한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 일은 전에도 발생했었다(행 2:2 4:31). 어떤 사람은 떨어져 죽음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행 5:1-11, 9:36-43, 20:7-10). 초대 교회 신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휘장이 들로 찢어졌다는 것과 모세와 아론처럼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중재자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두렵고 영광되고 자비하신 임재 앞에 들어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모였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는 능력으로 그들에게 접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모였다.<sup>29)</sup>

초기 기독교 가정 교회의 예배의 특징은 첫째로 두려워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26) John Drane, *초대교회의 생활*, 이종수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92), 77.

27) Robert Banks,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1).

28) Drane, *초대교회의 생활*, 77

29) Richard J.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232-233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것이었다(행 2:43). 둘째로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행 2:47). 초대 가정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찬양을 드렸다. 셋째로 성찬을 나누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었다. 넷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행 2:46).<sup>30)</sup>

또한 그들은 예배시 예배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진실로 하나의 단체로 예배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모였다. 큰 위험이 따르는 상황 속에서도 초대 교회 공동체는 개인주의를 초월해서 함께 모이기를 폐하지 말기를 촉구하였다(히 10:25). 서신들을 보면 신도들의 공동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머리와 팔과 다리가 없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듯이,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sup>31)</sup> 그러므로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해 가면 갈수록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셋째, 예배는 생활과 동떨어지지 않는 연속성을 가졌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하였던 것은 이를 증명한다.

#### 나. 양육과 제자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새로운 신도들을 양육하였는가를 보여 준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즉시 세례를 받았고, 즉각적인 양육이 시작되었다.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초대 교회 당시의 세례는 신앙고백 후에 가능한 빨리 베풀어졌을 것이다. 빌립보의 간수와 구스 내시의 경우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례를 주었는지 잘 보여 준다.<sup>32)</sup>

초대교회 공동체의 양육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즉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 관계를 형성하였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사랑을 증진 시키므로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다.

30) Ron Nicholas et al., *소그룹운동과 교회 성장*, 신재규 역 (서울: IVP, 1993), 28

31) Forster, *영적 훈련과 성장*, 235.

32) Michael Green, *초대교회의 전도*, 김경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111-112.

둘째로 그들은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며, 주님의 실재를 체험하였다. 즉, 주님이 주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 받았다. 셋째로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에 힘썼다. 그들은 물건을 나누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나눔으로 공동체의 신앙 성숙을 가져왔다. 이러한 초대 교회의 교제는 중요한 양육의 수단이었다.

데이빗 왓슨(David Watson)은 제자도에서 초대 교회의 제자화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감동적으로 역설하고 있다.

주후 1세기에 소수의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이제까지 알았던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혁명을 이루기 시작했다. 심지어 위대했던 로마 제국까지 3세기 내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굴복했다.<sup>33)</sup>

그가 지적한 대로 위대한 지상명령(마 28:18-20)과 위대한 계명(마 22:36-40)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이 세상에 능력으로 보인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지상 명령은 신약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표였고 초대 가정교회는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는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받으며 믿음으로 자라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결과, 초대 가정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하게 되었다(행 6:7).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핍박이 가해지자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거기서 개인 전도를 통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가 은혜 안에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부여 주셔서 이방인 가운데 회개의 문을 열게 하셨으며 이 때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지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믿게 된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양육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갔다.

이렇게 제자 삼는 일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며 말씀 중심으로 일하는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를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sup>34)</sup> 가정교회의 평신

33) David Watson,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8), 13.

34) Waylon B. Moore, *제자 배가의 원리*,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 역 (서울: 한국 네비게이토 선교회 출판부, 1982), 32.

도 지도자들은 가정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 가정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가정교회의 주인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다. 대부분 이방인이었던 가정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이었으며, 충분한 교육과 실질적인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한편, 여성들이 가정교회 설립에 주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가정교회 내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특징적이다(참조, 행 16:14-15, 40; 롬 16:1-2, 3-4; 고전 1:11; 16:19; 골 4:15; 요일 3:11-18).<sup>35)</sup>

#### 다. 구제와 봉사

초대 가정 교회는 구제와 봉사에 힘썼다. 가정 교회의 믿는 사람들은 재산과 물건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행 2:44-45). 또한 마음이 하나 되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각 사람들이 서로 나눔으로 그들 중에는 꺾절한 사람이 없었다(행 4:32-37).

이들의 구제와 봉사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신약성서에서 찾아보면, 그들은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장로들에게 전달했다(행 11:27-30).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모금을 걷어 보냈다(고전 16:1-4; 24:17; 롬 15:25-26). 이렇게 초대 가정교회는 구제와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하였다(고후 8:2), 들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었다(고후 9:5). 셋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였다(고후 9:12). 이와 같이 그들은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갔다.

#### 라. 성도의 교제

론 니콜라스(Ron Nicholas)는 가정교회 공동체 내의 성도의 교제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35) 이상명, "가정교회: 현대교회의 갱신을 위한 한 모델," *미주 크리스천 헤럴드*, 1998년 8월 2일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의식은 단순히 주관적인 소속감 같은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가족에게 대하여 갖는 마땅한 의무나 사랑의 헌신과 같은 감정에 더 가까운 것이다. 주변의 타락한 환경 속에서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그리스도의 모임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서로를 헌신할 때 공동체는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성도로 하여금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어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다(엡 4:12-16). 또한 서로의 부족함을 나누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서로의 짐을 져주고, 피차 격려하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서로 증보의 기도를 해줄 때에 가능한 것이다.<sup>36)</sup>

이처럼 가정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특징은 실질적인 접대에 있었다. 만일 초기 가정교회 구성원들이 사도나 그의 동료들에 대하여 아낌없는 후원과 접대를 베풀지 않았다면 과연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복음을 힘 있게 증거하고 선교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당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접대는 하나의 사회적 덕목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약성서 가정교회는 접대를 복음 사역의 원칙으로 변형시킬 만 큼 이 덕목을 적극 활용하였다. 접대는 초기 기독교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고, 기독교 성장의 궁극적인 매체이다.<sup>37)</sup>

이렇게 초대교회 가정교회는 접대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더불어, 신분, 지역, 성 등의 차별이 없는 성령 공동체 보여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기초하여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가정교회는 세계 복음화와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 마. 전도와 선교

가정교회는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다. 진 겐츠는 “이와 같은 복음 전도가 초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비결”<sup>38)</sup>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나자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윤리적 삶의 변화

36) Nicholas et al., *소그룹운동과 교회 성장*, 29.

37) 이상명, “가정교회: 현대교회의 갱신을 위한 한 모델.”

38) Gene A. Getz, *현대교회 성장학*, 임성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41.

를 요청받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정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행 2:43-47).

여기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 교인들의 효과적인 선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1장에서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받아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말씀 전파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삼천 명이나 전도되었다. 4장에서는 초대교회는 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해 갔다. 6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과다한 일을 나누기 위하여 일곱 집사를 세운다. 그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영적인 결실을 볼 수 있었다. 13장에는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선교사로 세워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앞길을 축복하는 등 단단한 결속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지원하였다. 16, 17장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혼자가 아닌 최소한 실라, 디모데, 누가와 같은 사람을 포함한 선교 팀으로 구성되었다. 24장에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더불어, 바울의 선교 팀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권하여 물질적으로 곤경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도록 했다.<sup>39)</sup>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의 선교가 얼마나 효과적이며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 바. 모임

바울의 초기 서신은 한 지역 내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을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를 사용한다. 이런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 역동적임을 알린다. 또한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장소적 의미의 건물로는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이건 간에 가정에서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다(행 18:7, 8; 20:8). 예를 들면 '다락방' 같은 곳이다(눅 22:12; 행 1:13; 20:8). 주후 3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위한 특정한 건물이 건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더군다나 그때(3세기)에도 그 건물들은 로마나 헬라의 전형적인 응접실을 본 따서 만들어졌다.<sup>40)</sup>

39) Nicholas et al., *소그룹운동과 교회 성장*, 144-145

40) Robert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5), 70.

### 사. 모임의 인원 정도

가정 교회는 가정의 다락방이나 응접실에서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에 제한이 있었다. 유복한 가정의 잘 꾸며진 응접실은 30명 정도는 편하게 수용할 수 있었다. 반면, 드로아의 모임은 유두고 라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앉아야 할 정도로 많은 수가 모인 큰 집회였다(행 20:9). 하지만 4-50명이 넘게 모이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고 많은 경우에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게 되었다. 가정교회에 모인 수가 당시 유대인의 회당을 하나 세우는데 필요한 최소의 수인 최소 10명에서 최대 100명<sup>41)</sup>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가정교회 학자들은 평균 30명 정도 모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혹은 이보다 더 작은 규모가 모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2)</sup>

초대교회에서 규모가 작은 가정교회는 사도바울의 선교사역에서도 그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세계 복음화의 전략적인 도시를 선정하고 그 도시에 들어갈 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가정이나 회당을 기점으로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고 선교를 확대시켜 갔다. 이러한 사실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가정 교회가 갖는 선교 신학적인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규모가 적은 가정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의 친교와 나눔의 공동체, 그리고 말씀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선교센터로 사용했다. 사도 바울은 개인 가정집을 도시 전체의 선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사도 바울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기독교로 개종함으로써 선교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 아. 가정교회의 선교 특징

첫째, 가정교회는 초기 선교 전략 중심지였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여행할 때마다 선교 활동을 위한 집회 장소가 필요하였다. 바울은 한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에 먼저 한 가정을 전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었다. 왜냐하면 가정은 결속력 있는 개종자들의 그룹이 될 뿐 아니라, 다른 가정과 주변 이웃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진원지가 되기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로마를 정복했던 초창기 기독교 운동은 실제로 소규모의 가정교회 운동이었다. 소규모 그룹과 가정교회들은 교회의 갱신과

41) Banks,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70.

42) Ibid., 71-72.



구제 활동, 그리고 도덕성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 운동에 동참한 이들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둘째, 초기 가정교회의 가족 전체의 개종은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했다. 초기에 가족 전체의 개종은 흔한 일이었지만 '복합된 경험'이었다(행 10:1-2; 16:13-15, 31-34; 18:18). 개종은 어느 한 순간 주어지지만 지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이는 개종한 각 개인에게는 거룩한 임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신약성서에 기록된 가족 전체의 개종은 현대 교회가 지니고 있는 개종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완하고 교정해 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로 가정교회는 다양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복음을 창조적으로 표현했다. 성경이 한 나라의 언어로 잘 번역되었을 때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각 지역에 분산된 가정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문화를 잘 해석해 내고, 교회가 속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복음 안에서 역동적으로 극복하고 수용함으로써 역사 속에서 생명력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기독교 공동체, 바울을 중심으로 한 헬라적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여러 갈래의 다양한 색깔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각 지역의 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 가정교회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는 각 지역의 문화 속에서 뿌리를 내린 복음의 공동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성숙과 확장을 꿈꾸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여진다.<sup>43)</sup>

## 제 2 절 교회사적 이해

지금까지 가정교회의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았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가정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교회가 존속해 오지는 않았지만 그와 비슷한 속성과 특징과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소그룹의 단체들이 있었다. 후기 사도시대의 가정교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교회역사에 나타난 가정교회 형태를 이해하고 오늘을 조명해 보려고 한다.<sup>44)</sup>

43) 이상명, "가정교회: 현대교회의 갱신을 위한 한 모델."

44)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50-72.

## 1. 종교 개혁 이전의 가정교회

### 가. 후기 사도 시대의 가정 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시대 이후 4세기 전까지 가정에서 가정 중심으로 모였는데, 후기 사도시대는 몬타니스트(Montanist)<sup>45)</sup> 그룹들이 가정교회를 주도했다. 4세기 전까지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이 기본 형태였다.

구약성경과 복음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모임이 사라지게 된 배경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부터이다. 빌 벅햄은 이러한 현상을 '콘스탄틴의 대 성당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며 그 특징을 건물 중심, 주일 중심, 성직자 중심, 의식 중심, 물질주의중심이라고 했고 이러한 현상은 교회를 유기체가 아닌 조직체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sup>46)</sup> 가정교회가 이런 배경으로 인하여 역사의 뒷면으로 사라졌지만,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다.

### 나. 수도원 운동의 가정교회

몬타니스트들의 가정교회가 약화될 즈음에 공동체 생활을 강조했던 수도원운동이 주후 4세기경부터 가정교회 모임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수도원운동은 형제애로 맺어졌던 몬타니스트들의 모임이 단체 중심의 형식화에 빠지고, 건물 중심의 교회가 제도화 되어가자 이에 저항하여 일어났다. 그들은 영성과 공동체생활을 지향하는 초대 가정교회 형태를 지향했다. 12세기경에 이르러 수도원운동은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를 중심으로 예배와 교제를 중요시하는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와 같은 성격의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게 되었다. 몇 세기를 거치면서 수도원운동의 공동체 생활은 '교회 속의 작은 교회'를 새롭게 탄생시켰고, 이들은 교회에 새로운 활력과 회복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수도원운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형제회'(Brethren of the Common Life)는 루터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종교개혁의 근원적인 힘이 되었다.<sup>47)</sup>

45) 몬타니스트는 주후 2세기경에 주로 활동했다.

46) Beckham, *제 2의 종교개혁*, 56-58

47)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30-31.

#### 다. 왈도파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 이전 시대에 극도로 타락했고, 이에 반대하던 그룹들이 초대 가정교회와 같은 공동체적 생활을 강조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다. 왈도파는 프랑스로부터 박해를 받으며 탄생한 가정교회이다.

#### 라. 롤라드파

롤라드파는 영국에서 일어난 가정교회로서 위클리프(Wycliffe)의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초대 가정교회 형태로 도시와 농촌 마을 집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모였다.<sup>48)</sup>

### 2. 종교개혁 이후의 가정교회

루터는 가정 교회란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정 교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루터는 예배는 “세 종류가 있다”<sup>49)</sup>고 말했다. 첫째 예배는 라틴어로 드리는 미사이고, 둘째 예배는 독일어 예전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위해서 공중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예배는 복음적인 방식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배의 필요성을 말했다.

여기에서는 진지하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하며 손과 입으로 복음을 시인하는 사람들만이 등록하고, 어떤 집에서 만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간결하고 단정한 예배가 필요하다.<sup>50)</sup>

루터가 종교개혁을 실행한 시대를 전후해서 많은 사람과 집단이 가정 교회 운동을 펼쳤다.

48)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50-72.

49) Beckham, *제 2의 종교개혁*, 165.

50) Ibid.

가. 필립 야곱 스페너(Philipp Jakob Spener)와 독일 경건주의 가정교회

30년 전쟁<sup>51)</sup>이 끝나갈 무렵인 1648년 경 당시는 슬 취함, 뇌물수수, 잔인성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곤경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 등이 보편적인 사회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교회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종교개혁의 목적을 상실하고 엄격한 교리에만 매달렸다. 곧 자기비판이 시작 되며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경건주의(Pietism)는 17세기말과 18세기 초엽에 독일교회에서 일어난 종교적 대 각성을 의미한다.

시발점은 필립 야곱 스페너이다. 1675년 *경건한 소원 (Pia Desideria)*을 출판하며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비제도적인 경건한 가정 교회 운동을 일으키자는 운동이었다.<sup>52)</sup> 스페너는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에 모임을 가졌다. 모임에서는 전 주일의 설교를 토의하거나 경건서적을 읽고 서로 나눴다. 1674-1675년에는 성경 읽기와 기도를 접목하여 강조하였다.<sup>53)</sup>

도일 영(Doyle L. Young)은 필립 스페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6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스페너는 성도들이 규칙적인 가정 교회로 만나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훈련시켜야 교구의 정체성이 확립됨을 알았다. 스페너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떠한 목회전략이 아니라 교회 론에 필수적인 부분이었다.<sup>54)</sup>

도일의 증거와 같이 스페너는 가정 교회를 통하여 개인간의 경건하고 친근한 우정을 형성하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점점 뜨겁게 만들었다. 스페너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즉, 가정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

51) 1618-1648년까지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말미암아 중앙유럽에서 발생한 전쟁을 말한다. 전쟁의 원인은 신성로마제국의 쇠퇴와 종교적인 불안 때문이었다. 이 전쟁은 1단계(1618-1623), 2단계(1623-1629), 3단계(1630-1648)로 나누어져 있었다. 전쟁의 결과로 프랑스는 힘이 더 강해졌고, 독일과 스페인 제국은 파벌이 조성되었다. 구교인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들은 정치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다.

52) Justo L. Gonzalez, *기독교 사상* III,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88), 393-394.

53) Philipp Jakob Spener, *경건한 소원*, 엄성욱 역 (서울: 은성, 1994), 21.

54) Doyle L. Young, *New Life for your Church*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9), 107.

### 나 모라비안 교도들의 가정교회

모라비안은 중세 후기 기독교 급진주의 운동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요한 후스(John Hus, 1370-1415)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모라비안 운동은 초대교회의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요한 후스는 단순한 의식이나 전통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산 믿음과 코이노니아를 강조했고, 그 결과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열망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 가정 교회가 형성되었다. 이 가정 교회를 '형제의 연합'(Brotherly Harmony)이라 불렀다.<sup>55)</sup>

모라비안의 가정교회 운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진젠도르프 백작에 의해 작지만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공동체로 결속되었다. 그들은 1727년에 오순절 역사와 같은 체험을 하였고 1737년까지 56명의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했다.<sup>56)</sup> 모라비안의 가정교회 운동은 성도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 눈을 뜨게 하였다. 그들은 깊은 영성을 기초로 살아있는 가정 교회를 이루었고, 깊은 친교를 통하여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다.

### 다. 요한 웨슬레(John Wesley)의 가정 교회

감리교회의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예수 이후 최대의 전도자로 불려진다. 그는 18세기 영국의 부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모라비안의 가정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 뿐 아니라 그는 모라비안의 회심과 전도의 열정에 대해 영향을 받았다.<sup>57)</sup>

웨슬레는 빌레몬서 2장의 "네 집에 있는 교회"에 기초를 두고 교회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함께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sup>58)</sup>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교회가 역사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여전히 교회를 '공회'라고 보았다. 그리고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필요한 방법으로 "교회 안의 작은 교회"<sup>59)</sup>를 추구하였

55) Trudinger, *가정소그룹모임*, 40.

56) Ibid., 41.

57) 웨슬레 사실회 편, *잔 웨슬레 총서 4권* (서울: 신교출판사, 1979), 5.

58) John Wesley, *The Work of Revival*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8), 371.

59) 로이드 존스(D. M. Lloyd-Jones)는 '교회 안의 교회'란 '한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란 뜻이라고 하였다. 이 작은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작은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관심은 교회의 본질의 회복에 있다.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 그 결과 일반 교회 내에서 참 신자들로 구성된 핵을 이루기 위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만들고자 했다.

다. 그래서 웨슬레는 작은 교회를 연합 신도회와 속회, 조, 선발 신도회, 참회자반으로 구성하였다.

### (1) 연합 신도회(United Society)

웨슬레는 의도적으로 연합 신도회를 조직하지 않았다. 연합신도회는 웨슬레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 중 그를 정기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것이다. 이러한 연합 신도회의 활동은 회원 개개인의 내적 성결로 나타났고 개인의 변화를 통해 신도회의 갱신이 일어났다. 나아가서 교회 전체를 성결의 누룩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 (2) 속회(Class Meeting)

속회<sup>60)</sup>는 매주 한 번 한 시간 정도로 저녁에 모이게 되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성장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특별한 필요나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받거나 도움을 받았다. 웨슬레는 속회의 모임을 성서적이며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속회 모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다.<sup>61)</sup> 속회는 매주 모였으며 거기서 서로의 영적 생활을 돌봤고 신앙이 파선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속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 사랑의 선행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성도들은 속회공동체를 통해 공동의 성화를 이루어 갔다.

### (3) 조(Band)

조는 신도회의 친교 안에 더욱 작은 규모로 구성되었다. 조는 회원 자신의 신앙을 심화시키고 체험하고 진실한 신앙을 추구하여 그에 합당한 신앙의 결실을 맺는 신앙 고백적 모임이다. 속회가 신도회의 핵심조직으로서 윤리적, 영적 생활을 지키도록 훈련하고 가르치고 교제를 증시한 것이라면 조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는 모임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과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모이는 속회의 핵심 모임이라

60) 영어의 속회 'class'라는 단어는 '분할'을 의미하는 라틴어 'clasis'에서 유래한 말이다.

61) Howard A. Snyder, *혁신적 교회 갱신과 웨슬레: 교회갱신의 한 패턴*, 조종남 역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1986), 78.

할 수 있다. 이 조는 평균 5-10명으로 편성되었다. 조에 속할 사람은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되었고 남자는 수요일 저녁에, 여자는 일요일 저녁에 모였다. 그들은 모여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웨슬레가 만든 조는 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심한 자들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확실한 도움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sup>62)</sup>

#### (4) 참회자반(Penitents)

참회자반은 신앙의 파산자들의 모임이다. 처음에는 구원을 갈망하여 신도회에 참여하였으나 그 중에는 신앙에 낙심한 낙오자가 생겼다. 신도회 안에서 고의로 죄를 지은 자, 자기도 모르게 경박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자가 생겨났다. 웨슬레는 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참회자반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웨슬레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통하여 전체 교회를 갱신하여 성장할 길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작은 교회로서 신도회, 속회, 조, 참회자반 등은 가정교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교회성장의 핵이었다. 특히 속회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와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 3. 중국의 가정교회

1994년에 발행된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e)의 *세계기도정보*에 의하면 중국 교회의 성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1977년 이래 중국 교회의 성장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었다. 통계 전문가들은 1990년에 3,000-750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통계청은 1992년에 6,300만 개신교인과 1,200만의 가톨릭 교인이 있는 것으로 은밀히 추정했다. 이 수치들을 1949년의 1,812,000의 개신교인과 330만의 가톨릭 교인과 비교해 보라. 이 성장은 거의 비공식적인 가정교회와 순회 설교자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많은 지방 부흥 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sup>63)</sup>

62) 박승로, *가정교회*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75.

63) Patrick Johnstone, *세계기도정보: 세계복음화를 위한 매일 기도지침서*, 죠이선교회 역 (서울: 죠이선교회, 1997), 482

이 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교회 성장은 가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정교회의 성장이었다는 사실이다.

#### 가. 가정교회의 형성과 발전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에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했다. 개신교 선교의 시기는 준비기(1807-1842), 개척기(1843-1860), 확장기(1861-1900), 발전기(1901-1949)로 구분한다.<sup>64)</sup> 1860년경에는 선교사들이 150명, 개종자가 350명, 전도가 되었고 22개의 선교 기지가 설치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자양(自養), 자치(自治), 자전(自傳)의 원칙에 의한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며 급성장을 거듭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들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양도되었으며 19세기 일어난 반기독교 운동은 1920년에 들어서 절정을 이루면서 선교사들의 추방으로 이어졌다. 중국 교회는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교회는 정부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된 1949년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백만을 육박하였고, 2만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미 중국의 많은 교회들은 가정집에서 소그룹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소규모의 가정교회들은 계속적으로 독립해서 발전하였다.<sup>65)</sup> 특히 중국에서는 1949년 공산주의 혁명 이후 가정교회 모임이 활발하였고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정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1960년 모택동 이후 자유개방의 물결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등록된 삼자교회 교인 수는 기껏해야 수백만 명인데 가정교회 모이는 수는 오 천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sup>66)</sup>

1977년 이후에는 수백 개의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2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중국 정부도 기독교인이 1949년 이후에 5배로 증가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약 80퍼센트 이상이 가정교회 교인이다.<sup>67)</sup>

64) OMF 한미선교부 편, *중국을 조명한다* (Pasadena: KAM-OMF, 1997), 34.

65) Ibid., 79.

66)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61-63.

67) OMF 한미선교부, *중국을 조명한다*, 79.



#### 나. 가정교회의 역동적 기능

중국의 가정교회는 초대교회 가정교회가 지닌 세 가지 역동적 기능을 갖는다. 첫째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중국 가정교회는 일반 가정을 예배처소로 사용한다. 집주인은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가정을 교회로 제공한다. 성도들은 거기서 며칠씩 숙식하며 동고동락한다. 초대 교회의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행 2:45-47).

둘째는 사역 공동체이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사역에 참여하는 평신도는 30퍼센트 내외라고 한다.<sup>68)</sup> 중국 처소교회는 평신도가 설교자, 심방자, 찬양 인도자 등으로 모두 비조직적이지만 사역에 모두 동참한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교인이 20명 내외의 소그룹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선교 공동체이다. 초대 교회의 관심은 가는 곳 마다 복음을 증거 하는 것이었다. 중국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에 의하면 가정교회 성도들의 선교의 정열이 대단하다고 한다. 성도들의 과반수가 예수를 영접한지 2년이 채 안 되는 초신자들이다. 중국의 가정교회의 관심은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중국 교인들은 무서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지금도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수 지역이다.

#### 4. 현대 교회와 가정교회

1960년 이후, 서양 중심으로 가정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구뿐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민주화과정 이전의 러시아에서 가정교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금의 가정교회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이라 말할 수 있으며 소그룹의 원형인 가정교회에 대한 갈망은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다.

금세기 남아메리카 콜롬비아에서는 한 교회에서 셀 모임이 수천 발생하였고 또한 동시에 크게 번식하였다.<sup>69)</sup> 최근 유럽의 젊은 신세대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교회 예배에서 탈피하여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신앙을 복돋우는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금세기 내내 성도 수 급감에 시달려 온 유럽교회에 새로운 부흥운동의 촉매가 될 것으로 본다.<sup>70)</sup>

68) 고상환, "중국교회 따라하기," *기쁜 소식* 통권 제 10호 (1998), 4.

69) Joel Comiskey, *지투엘브 이야기*, 정진우, 홍원팔 역 (개정판; 서울: NCD, 2001).

전 세계 제자화 선교회(DAWN)에 따르면 십대 후반에서 삼십대 초반의 유럽 신세대들이 교회를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 해석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나누는 작은 모임 그 자체로 해석하여 소그룹으로 모여 삶을 나누며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덴마크, 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등에서만 2천여 개에 달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로 확산되고 있으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 작은 교회운동은 미래교회의 한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sup>71)</sup>

### 제 3 절 목회 신학적 이해

#### 1. 교회 성장의 정의

‘교회 성장’이란 무엇일 까?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교회 성장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는데 그는 “많은 양을 찾아내어 우리 안에서 잘 목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고, 또한 그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생활을 하게 함으로 교회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모든 행위”<sup>72)</sup>고 정의 한다.

피터 와그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아무런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도록 해 주며 책임 있는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데 관련된 모든 사항”<sup>73)</sup>으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해 주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수행(마 28:19-20)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교회 성장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론 젠슨(Ron Jenson)과 짐 스티븐슨(Jim Stevens)은 교회 성장의 목표는 “한 지역교회가 질적으로, 수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sup>74)</sup>라고 정의한다. 헌터는 “새 제자를

70) 이병모, “유럽 신세대 새 교회운동,” 국민일보, 2000년 1월 8일자, 29.

71) Ibid., 29.

72) Donald McGavran and George G. Hunter III, *교회성장학*, 박은규 역 (서울: 대학기독교출판사, 1983), 15.

73) Wagner, *교회 성장 원리*, 10.

74) Ron Jenson and Jim Stevens, *생동하는 교회 성장*, 금병달 역 (서울: 순출판사, 1994), 8.

만드는 목적은 자체 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sup>75)</sup> 자체라고 한다.

맥가브란에 따르면 교회 성장의 방법은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 말한다. 이는 교회가 건강해야 성장하기 때문이다.<sup>76)</sup> 계속해서 그는 교회 성장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복종 행위이다<sup>77)</sup>”라고 정의한다.

## 2. 건강한 교회의 성장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건강한 교회들이 성장한다. 독일의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6대륙, 18개 언어권, 32개국, 1,000개의 교회들에서 420만개의 응답을 분석(1999년까지 5,000교회 2,100만 자료까지 확대하여<sup>78)</sup>)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다.<sup>79)</sup> 그것들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 중심적 사역, 열정적 영성, 기능적 구조 교회,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이다. NCD 조사 연구가 발견해 낸 한가지 결론은 건강한 교회의 여덟 가지 질적 특성에 있어서 그 질적 지수가 65점이나 그 이상인 교회는 모든 교회에 예외 없이 성장한다는 것이다(정확히 통계적으로 말하면 그 확률은 99.4퍼센트).<sup>80)</sup> 건강한 교회의 질적인 성장은 곧 양적인 성장으로 연결된다는 말이다.

오늘날 가정교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현대교회나 교인들이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성을 보이지 못한 이유로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려는 나머지 비만해졌다는 것과 두 날개의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가. 두 날개 균형을 이루는 목회

두 날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날개는 대그룹, 혹은 축제로서의 주일모임을 의미하고 또 하나의 날개는 소그룹, 즉 가정교회 모임을 의미한다.

75) McGavran and Hunter, *교회성장학*, 23

76) Ibid., 15

77) Ibid.

78) 크리스티안 슈바르츠의 *자연적 교회성장*, 22-37, 밥 로간의 *교회의 NCD 잠재력을 풀어놓아라*, 15-17에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79)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정진우 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7.

80) Ibid., 39.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이 보여준 초대교회는 바로 이 두 날개를 사용한, 교회 역사상 가장 생동하는 교회였다(행 2:46). 초대교인들은 성전과 집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 성전모임과 가정모임-대그룹모임과 소그룹모임-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두 날개였던 것이다.

빌 벡햄은 대그룹모임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는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소그룹모임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경험하는 유익을 준다고 했다.<sup>81)</sup> 즉, 대그룹예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나 반면, 소그룹 모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낮아지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이다.

오늘날 교회는 분명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발달했으나 교회 밖에서의 예배는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초월적인 말씀이 교회 밖 성도들의 삶에 내재화 되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도록 돕는 목회가 빈약한 실정이다. 오늘날 교회는 약화되어 있는 소그룹 날개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며 두 날개를 모두 사용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이다.

#### 나. 평신도 사역자와 동역하는 목회

와그너는 “성장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표적 가운데 그 첫째 표적이 목사가 재능을 활용하여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 데 있다면, 그 둘째의 표적은 기동력을 갖춘 여신도에게 있다”<sup>82)</sup>라고 주장했다. 즉,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평신도의 역할과 그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은 빌 벡햄에게서도 발견된다. 빌 벡햄은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돌려준 사건이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은 목회자의 손에만 있던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되돌려 주는 사건”이라고 한다.<sup>83)</sup>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각기 가진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을 사용해 교회와 세상을 섬겨야 한다(벧전 4:10). 이를 위해 목회자는 평신도의 은사와 리더십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1-12절은 성도들을 세우고 준비시키는 임무로서 목회자

81)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119-123.

82) Wagner, *교회성장 원리*, 99.

83)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119-123.

의 본분과 사명을 말한다.<sup>84)</sup>

평신도 사역에 대해 릭 워렌(Rick Warren)은 새들백 교회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을 위해서 창조되었고(엡 2:10) 사역을 위해서 은사를 받았으며(벧전 4:10) 사역을 위한 권세를 받았고(마 28:18-20) 사역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으며(마 20:26-28)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고(엡 4:11-12) 사역을 위해 필요하며(고전 12:27) 사역을 할 책임이 있고 자기가 한 사역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골 3:23-24)이다.<sup>85)</sup>

건강한 교회는 목사는 선수이고 평신도들은 구경꾼이나 응원꾼들이 아닌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교회이다. 이제 목회자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맥가브란은 무보수 평신도 봉사자들을 다시 두 그룹으로 나누면서 그들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보수 자원 봉사자들은 두 가지 범주로 분리된다. 제 1그룹 지도자와 제 2그룹 지도자이다. 제1그룹 지도자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을 위해 봉사한다. 그들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안내와 봉사를 맡는다. 또한 성가대에서 찬양하며 예배 프로그램을 맡는다.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며 교회를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자들이다. 제 2그룹 지도자들은 교회 밖을 향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방문한다. 그들은 짓눌리고 억압받는 계층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계속 묻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웃을 찾아간다. 그들은 가정교회(House Church)를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이끌어 간다. 그들은 세속주의자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얘기해 준다.<sup>86)</sup>

그는 제 2그룹의 평신도 지도자 부재를 다음과 같이 격렬하게 말한다.

84) RSV 1971년도 판에서 12절을 “사역의 일을 위하여 성도를 구비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 의미를 분명히 했다.

85) Rick Warren, *새들백 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7), 408.

86) McGavran and Hunter, *교회성장학*, 69.

당신은 이 두 가지 그룹 지도자를 볼 수 있는가? 모든 건강한 교회는 제 2그룹 지도자와 제1그룹 지도자를 확보해야 한다. 그 지도자를 세어 보아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제 1그룹의 지도자는 50여명씩 있으나 제2그룹 지도자는 겨우 몇 명밖에 없다. 이것은 별 받을 만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잃은 사람들 중 아주 작은 수의 사람만이 교회를 찾아온다.<sup>87)</sup>

그의 주장은 합당한 것이다. 즉 교회 안에서의 봉사자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의 제2그룹 봉사자의 육성과 개발이 시급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신도들의 은사를 개발시키고 그 은사들을 총동원하여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와그너는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 20)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데 어떻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sup>88)</sup>이라고 말하였다.

즉, 교회 안에서 제 2그룹 평신도 은사자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가정교회는 제2그룹의 평신도 봉사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이 된다고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교회 증인 공동체의 성장을 잘 예고하고 있다.(행 1:8).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있는 유기체이다. 살아 있는 것은 당연히 성장해야만 한다. 만약에 성장하지 못한다면 죽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사실을 직시하고 점점 도식화되어가고 형식화 되어가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를 살아 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육성해야 할 것이다. 가정교회는 이러한 성장의 요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 다. 종말론적 위기에 소망을 주는 목회

빌 벡헴은 21세기에 만연돼 있는 병을 한 마디로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으로 디스토피아라고 진단한다.<sup>89)</sup> 인구폭발로 메가 시티(인구 백만 이상), 슈퍼 시티(인구 천

87) McGavran and Hunter, *교회성장학*, 69.

88) C. Peter Wagner,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9.

만), 슈퍼 자이언트 시티(인구 천만 이상)들이 늘어나는 동시에 안전에 대한 위협이 팽배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상황에서 기독교는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므로 기독교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sup>89)</sup> 교회는 건물 속에 갇힌 교회, 일주일에 하루에 매인 교회, 전통적인 전도 방법으로는 현대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현대 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목회적 접근을 해야 한다. 건물 속의 교회만을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초대교회와 교인들처럼 집에서 집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전도해야 한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이루는 양 날개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sup>91)</sup> 종말의 때에 세상을 향해 진정한 소망을 주는 목회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 3. 가정교회

#### 가. 왜 가정교회인가

오늘날 신약 교회와 가장 닮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가정교회 모델이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막 12:37)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지만 거의 소그룹을(마 26:6) 대상으로 목회하셨다. 예수님은 소그룹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살면서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sup>92)</sup> 이를 통하여 볼 때, 예수님은 소그룹 양육을 목회방법의 핵심으로 삼고 훈련시키셨다.

초대교회도 소그룹 목회 방법을 사용하였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주 모이기도 했지만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자주 모여 그곳에서 성도의 교제와 새 생명의 기쁨을 유지하며 강화시킬 수 있었다. 고린도 교회 역시 2-30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된 공동체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갑작스런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후, 대그룹

89) Beckham, *제2의 종교 개혁*, 73.

90) Ibid., 79.

91) 풀러 선교대학원의 찰스 벤 엥겐은 21세기 선교하는 교회로서 이런 관점을 강조한다. 참조, Van Enge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92) 편집실, "소그룹을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 (1)," *세계의 신학* 34호 (1997), 101.

의 형태만으론 효과적인 사역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그룹 모임(“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과 소그룹 모임(“집에서 떡을 떼며”)을 병행하여 상호보완적인 목회 방법을 택한 것이다.

윌로우크릭 교회의 훈련 책임자인 빌 도나휴는 “소그룹은 초대교회 구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었다.”<sup>93)</sup>고 언급한다. 초대교회는 개개의 지체들이 서로 섬기고 영적 은사를 사용했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자화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작은 구조였음을 알 수 있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소그룹의 장점들을 유연성, 유동성, 포괄성, 인격적, 분할에 의한 성장, 전도의 효과적인 수단, 최소한의 전문적인 지도력 필요, 그리고 제도적 교회에도 적응 가능하다는 것을 들고 있다.<sup>94)</sup>

랄프 네이버(Ralph W. Neighbour Jr.)는 오늘날 도시문화 속에서 가정교회들의 성장이 빠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sup>95)</sup> 첫째, 가정교회는 전통주의 교회보다 효율적이다. 전통교회의 경우 교회 신자들의 10-15퍼센트만이 교회 사역에 참여한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20퍼센트의 교인이 80퍼센트의 교인을 양육하므로 전 성도의 사역화를 지향한다. 둘째, 가정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의 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 공동체의 본질은 소속감이다. 기독교 기초공동체로서의 가정교회는 서로를 돌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사명을 공동체 모두의 임무로 여긴다. 셋째, 가정교회는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넷째, 가정교회는 좀 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효과적이다. 전통교회가 예배의 90퍼센트를 교회 안에서 드리는 반면, 가정교회는 주 단위로 방문하는 가정에서 더욱 활발해진다. 다섯째, 가정교회는 새 포도주일 뿐만 아니라 새 부대이다. 교구의 경계도 없고 교회의 활동 영역의 제한도 없다. 여섯째, 가정교회는 교회 건물의 규모에 제한 받지 않는다. 일곱째, 가정교회에서의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지금 가장 위대한 대추수기를 맞이하고 있다.<sup>96)</sup> 세계도처에서 수많은 영

93) Bill Donahue, 윌로우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역 (도서출판 디모데, 1996), 31.

94)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160-162.

95) Ralph W. Neighbour Jr., 셀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NCD, 2001), 43-45.



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 주님은 엄청난 인구 폭발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준비하셨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정교회이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교회의 부흥이 그것을 증거 한다.<sup>97)</sup> 랄프 네이버는 초대 교회의 원형에 가깝고 현재 전 세계에 걸쳐 빠르게 가정교회가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가정교회들은 작은 마을과 동네에서도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적인 환경에서도 빠르게 성장한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적당한 토양만 있으면, 엄청난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sup>98)</sup>고 했다.

왜 가정교회가 필요한가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 가정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이고, 둘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적인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이고, 셋째, 가정교회가 구체적 복음전도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며, 넷째, 오늘날의 사회가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을 새로운 패러다임임이 분명하다.

#### 나. 가정교회의 정의

여기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다. 가정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지 정의함으로 논지를 분명히 하려고 한다.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가정교회가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랄프 네이버와 윌리엄 벅햄, 싱가포르의 FCBC의 로렌스 롱은 가정교회를 셀교회로, 로버트 벅크스는 가정(Home)교회, 최영기는 가정(House)교회라고 부른다. 이들의 용어사용은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일맥상통 하지만 각기 나름대로의 강점과 특성을 지닌다.

빌 벅햄은 가정교회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99)</sup>

첫째, 가정교회의 기본단위는 셀이다. 둘째, 가정교회는 5-15명으로 구성된다. 셋째, 가정교회는 하나님과 타인, 불신자와의 관계에 역점을 둔다. 넷째, 가정교회는 공동체성을 강화한다. 다섯째, 가정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역자이다. 여섯째, 가정

96) Joel Comiskey, *가정 교회 폭발 (Home Cell Group-Explosion)*,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10.

97) Ibid., 18-20.

98)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42-43.

99)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34-35.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데 역점을 둔다. 일곱째, 가정교회는 주간, 격주로 셀 모임을 가지되 주간에 모이는 셀 모임에 더 역점을 둔다. 여덟째, 가정교회의 셀에서 사랑, 공동체, 관계, 전도 등이 강력히 일어난다. 아홉째, 교회의 생명은 셀에 있지 건물에 있지 않다. 열째, 가정교회는 역동적이고 유기체이며 영적인 존재이다.

최영기는 가정교회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sup>100)</sup>

첫째, 가정교회는 개척교회와 같다. 둘째,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교회이다. 셋째, 가정교회는 지역중심보다는 관계중심이다. 넷째, 가정교회는 성경공부보다는 나눔을 중요시한다. 다섯째, 가정교회는 전도에 역점을 두는 사역이다. 여섯째, 가정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다하게 하는 교회이다.

무엇이 가정교회인가? 일상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것은 단지 복음적인 소그룹을 사역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교회를 뜻한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는 교회이다. 20세기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가정교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정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랄프 네이버는 '가정교회'를 "비전통적 교회로서 교회 안에 있는 가정 교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정에서 모여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 간의 사랑의 교제, 양육, 그리고 서로간의 돌봄과 사역을 시행하는 교회"로 정의한다.<sup>101)</sup> 우리는 이와 같은 정의에서 가정교회를 전통적인 교회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랄프 네이버는 "오늘날 거의 모든 전통주의 교회들이 프로그램 중심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들의 신학이 복음주의적이든, 예전 적이든 또는 성령 중심적이든 예외가 없다"<sup>102)</sup>고 지적한다. 그는 계속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중심의 전통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임을 인정하지만 교회의 참모습을 파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랄프 네이버는 프로그램 교회의 비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프로그램 중심교회의 비효율성을 살펴보면 첫째, 교회의 건물들이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을 제외하면 텅 빈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문 목사들은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교인들을 섬긴다는 것이다. 셋째,

100)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71.

101) 박영철, *셀 목회와 교회성장*, 1.

102)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71.

프로그램 중심교회에서 봉사하는 교인들은 전교인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넷째, 소망을 잃은 채 봉사활동에 태만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점은 온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공동체와는 사실상 접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sup>103)</sup>

빌 벅햄은 *제2의 종교개혁*에서 가정교회에 대한 정의와 묘사만으로 가정교회를 이해할 수 없고, 가정교회의 정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가정교회를 체험해 본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는 “가정교회는 단지 연구하고 분석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어떤 점에서 가정교회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경험하고 체득함으로 얻어진다”<sup>104)</sup>고 말한다.

---

103) Neighbour, *셀교회 지침서*, 85.

104) Beckham, *제2의 종교개혁*, 42.

## 제 3 장

### 가정교회의 성공적인 모델 연구

본 장에서는 가정교회 목회의 성공 사례를 가진 세 교회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정 교회 모델을 찾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남미의 콜롬비아 국제 은사 선교교회(ICM)이다. 둘째 교회는 한국 지구촌 교회이며, 셋째 교회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이다. 가정교회의 모델로 이들 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은사 선교교회는 G-12라는 가정교회 형태로 7년 만에 24,000개의 가정 교회를 번식한 성공적인 사역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둘째,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한인교회로써 최초로 가정 교회를 시작하여 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본 연구자가 섬기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지역적 상황과 여러 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민 교회이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지구촌 교회는 연구자가 사역하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와 선교 협력 교회로서 동일한 목회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이미 기존 교회에서 가정교회로의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회들을 모델 삼아 이민 교회의 이상적 가정교회 모델을 찾아 비교 연구하기 위함이다.

#### 제 1 절 국제 은사 선교교회

##### 1. 교회 성장 관점에서의 교회 역사

가정교회 사역에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최영기는 *지투엘브 이야기*의 서문에서 남미 콜롬비아 보고타에 위치한 ICM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 한다.

주님의 은혜로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가 가정교회를 일찍부터 시작한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하십니다. 돌아가셔서 저희 교회를 모델 삼아 성공적으로 가정교회를 정착 시키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교회가 이상적인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묘사 되어 있는 ICM 교회가 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105)

국제 은사 선교교회는 콜롬비아 보고타시에 존재한 교회로 세자르 카스텔라노스(Cesar Castellanos)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이다. 그는 1983년 이전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목회사역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다. 그는 1983년 8명으로 가정 교회 사역에 도전하여 1994년엔 1,200개의 가정 교회, 1998년 6월에 24,000개의 가정 교회를 목양하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로 성장하였다.106)

카스텔라노스 목사는 12명의 자녀 중 여덟 번째로 태어났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였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청소년 시절엔 마약을 복용하고107)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대학생이던 1972년에 기독교신앙을 공격하던 한 철학교수의 강의에 반발해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가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 그 후, 그는 마약과 술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며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게 된다. 그는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콜롬비아 거리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고 9년 동안 여러 교파의 몇몇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사역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에게 익숙해져 있던 전통적인 교회 성장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108)

1983년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느냐?”고 물으셨다.109) 그는 그 물음에 120명 규모의 교회라고 답변했다. 그는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 처음 6개월 이내에 200명의 성도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200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을 터였다.

105) Comiskey, 지투엘브 이야기, 6.

106) Ibid., 7, 23.

107) Ibid., 23.

108) Ibid., 24.

109) Ibid.,

그는 1986년 한국을 방문했고,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시스템을 배워 철저하게 모방했다.<sup>110)</sup> 그 후, 1991년까지 약 70개의 가정 교회들을 탄생시켰다. 1991년이 지나면서 가정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1994년까지 1,200개의 가정 교회로, 1996년까지 10,500개 가정 교회로, 1999년까지 20,000개의 가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 2.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카스텔라노스 목사는 가정 교회를 ICM의 유일한 조직으로 삼고 목회를 하고 있다. 가정 교회는 12명이 한 단위를 이룬다. 외형적으로는 12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으로만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가정 교회를 지탱하고 발전시켜 주는 핵심 가치들이 있다.

### 가. 가정 교회 내면에 숨겨진 핵심 가치들

카스텔라노스는 열 가지 핵심가치를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내면에 기초로 놓았다.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자.

첫째는 열정적인 영성이다. 열정적인 영성에는 기도와 금식, 그리고 성결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의 전체 분위기를 기도, 금식, 성결로 이끌어가고 있다.

둘째는 권위와 복종이다. 가정 교회 리더십은 권위주의에 있지 않다. 정치적인 구조처럼 그 권위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자신이 양육한 제자들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제자들은 그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한다. 카스텔라노스 목사와 그의 제자들,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 사이에도 이러한 신뢰 관계가 동일하게 작용하여 권위와 복종이 교회의 한 문화처럼 형성되어 있다.

셋째는 시간적 헌신이다. ICM의 성도는 매주 거행되는 집회뿐만 아니라 적어도 주중 세 번은 셀과 관계된 모임에 참석한다.<sup>111)</sup> 한국교회의 가장 열심 있는 성도와 비슷한 상황이다. ICM 가정 교회 리더들은 철저하게 시간에 헌신하도록 훈련되어 진다.

넷째는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와 ICM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한다. ICM은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할 집회를 자주 제공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간증함으로써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사모하게 만든다.

다섯째는 창조성이다. ICM은 보다 효과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방법을 잘 선택해

110) Comiskey, 지투엘브 이야기, 26.

111) Ibid., 42.

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한다. 그 외에도 비전, 목표 설정, 부부의 중요성, 교회 성장에 대한 확고한 목표 등을 핵심 가치도 두고 있다.

#### 나. 목회 비전

G-12 모델이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다. 7년간 가정 교회 사역을 한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목사는 오직 가정 교회 구조만이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으며, 방관적인 교인들을 적극적인 교인들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의 사역에 모방한 가정교회 비전에 더욱 확신하게 된다.<sup>112)</sup>

그는 1991년에 G-12 모델을 실시하면서 비로소 교회의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가정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었고 가정교회를 배가시키는 데 힘을 모았다. 그는 새로운 가정 교회들을 개척하기 위하여 200명의 목사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개최한 교회 개척 세미나에 참석하여 성령님으로부터 그와 그의 아내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받았다. “나는 너에게 조용기 목사와 같이 가정 교회에 기초해서 거대한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비전을 주었다. 그리고 너는 교회에 셀 비전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sup>113)</sup>

세미나에 참석한 후, 교회로 돌아온 그는 교회개척을 위해 훈련시키던 200명의 목사들에게 대형교회에 기초한 가정 교회의 비전을 말함으로써 작은 교회를 여러 곳 개척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함을 사과하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에 1,400개의 가정 교회에서 4,000개의 가정 교회로 성장했고 1996년에는 10,000개의 가정 교회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는 가정 교회만이 영혼을 구원하고 방관자적인 교회성도들을 교회에 동참시켜 함께 사역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ICM 교회의 유일한 비전이다. 다른 비전은 가정 교회 사역을 통해서 성취될 뿐이다.

112) Comiskey, *가정 교회 폭발*, 159.

113) Comiskey, *지투엘브 이야기*, 53-54.

### 3. 가정교회 조직과 운영

#### 가. 조직

ICM 교회의 조직은 다음 <표 1>과 같다. ICM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셀리더 관리는 담임목사에서 말단 셀 리더까지 모두 12명만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는 리더십 구조의 특별한 활용이다. 일반적으로 가정 교회를 교회에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임목사는 몇 개의 가정 교회를, 부교역자도 몇 개의 가정 교회를 관리하게 되는데 ICM 교회는 모두 동일하게 단 하나만의 가정 교회를 인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도가 교회 전체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가정 교회 자체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 기존 전통교회가 갖는 전도 후, 사후 새신자 관리를 보다 효과적이며 조직적으로 하게 된다. ICM의 전도는 가정 교회 자체로 이뤄지며, 가정 교회 안의 멤버가 새 신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착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정 교회 분가가 일어나더라도 서로 관계를 맺은 멤버들과 재편성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표 1> ICM 교회의 목회전략<sup>114)</sup>

근본원칙	근본 원칙들에 대한 ICM의 정의와 역할
셀 리더 관리	담임목사에서 말단 셀 리더까지 공통적으로 12명만을 관리한다.
분야	가정 교회는 목회적 부서에 따라 나뉜다. 각 리더는 자기의 12명의 제자를 두고 있다.
이드로 시스템	담임목사로부터 말단 셀 리더까지 12명의 가정 교회 멤버를 두고 있다. 매주 자기의 멤버들과 모임을 가진다.
전도	담임목사는 12명의 부목사를 모은다. 부목사는 12명의 제자를 모은다. 제자들은 12명의 셀 리더를 모은다. 개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리더십 훈련	셀 리더가 될 예비리더(모든 성도)들은 각 목회부서에서 강좌들을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증양의 계획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증양은 목회부서에 권한을 위임하여 각 부서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게 한다. 증양은 이를 종합화한다.

114) Comiskey, *가정 교회 폭발*, 162.



#### 나. 운영

ICM 교회의 셀 리더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은 10단계까지 있다. 훈련과정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ICM 교회의 가정 교회 리더십 훈련은 전체 9단계와 지도자를 위한 훈련학교 1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리더십 훈련 9단계는 크게 3단계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5단계는 리더십 기초훈련과정, 6-8단계는 리더십훈련 중급과정, 9단계는 리더십훈련 고급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ICM 교회의 리더십 훈련의 큰 특징 한 가지는 4단계와 7단계 평신도훈련이다. 첫 번째 평신도 훈련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배운 바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적으로 수용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함으로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신앙으로 자라게 한다. 두 번째 평신도 훈련은 가정 교회 인도자를 위한 특별 훈련의 과정이다.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교회 밖 선교단체인 네비게이토의 교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교회가 선교단체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 평가

ICM 교회는 가정 교회 사역을 시도하는 교회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몇 가지 공헌을 남기고 있다.

첫째는 가정 교회 리더십 훈련을 위한 훈련학교 외, 다른 조직과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다. 오직 가정 교회만이 유일한 조직이며 모든 성도들은 가정 교회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형성해 가고 복음을 전도하여 가정 교회를 배가시킨다.

둘째는 담임목사와 이제 막 가정 교회를 인도하는 가정 교회리더 모두 12명의 가정 교회멤버들을 인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역의 과중으로 인한 성도 개개인의 피로를 방지하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가정 교회 멤버들을 철저히 돌보며 섬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2> ICM 교회의 리더십 훈련 과정<sup>115)</sup>

단계	훈련 내용 요약
1단계: 최초의 조치	가정 교회 자체에서 전도가 이뤄지지 않고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을 가정 교회에 배치하는 단계를 말한다.
2단계: 가정 교회 안에서의 생활	가정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돕고 섬기며 교회의 훈련 과정들에 대하여 소개받는 단계를 말한다.
3단계: 예비교육	훈련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으로 네비게이토의 훈련교재 '그리스도인 생활 연구'란 시리즈 1-3권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4단계: 평신도 훈련	이 과정은 3박 4일 동안의 집중훈련으로 네 가지 사실을 다룬다. 구원의 보장, 해방과 내적 치유, 성령 충만의 경험, 교회의 비전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5단계: 후속조치	평신도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시작하는데, 예비교육에서 다루었던 네비게이토의 나머지 교재들인 4-6권 과정을 공부한다. *1-5단계는 셀 리더십 훈련 기초과정에 해당한다.
6단계: 지도자학교	후속조치 과정을 마친 성도들에게 실시되는 1년 과정의 셀 리더십 훈련 중급과정에 해당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례, 경건생활, 성경의 권위, 그리고 성령론을 공부한다.
7단계: 두 번째 평신도 훈련	4단계의 평신도 훈련이 거듭남, 성령체험, 교회비전의 이해라면 이 과정의 평신도훈련은 예비리더가 가정 교회 리더로 배치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가정교회 원리들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8단계: 가정 교회 인도	반드시 1-7단계의 과정을 다 풀어야 가정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방적 가정 교회를 인도하기도 한다. 개방적 가정 교회는 실험 가정 교회를 의미한다. *6-8단계는 셀 리더십 훈련 중급과정에 해당한다.
9단계: 심화교육	이 과정은 초급, 중급보다 높은 리더십 훈련과정이다. 이 과정은 가정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들에게만 주어지는 과정이다. 셀 리더의 보다 높은 자질과 셀의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다. *9단계는 셀 리더십 훈련 고급과정에 해당한다.
10단계: 교사학교	이 과정은 세 그룹 지도자훈련 과정에서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115) Comiskey, *저투엘브 이야기*, 81-90.

셋째는 4단계 평신도훈련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지적으로 수용된 진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수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말씀과 삶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도록 돕는다. 7단계 후기 평신도훈련은 가정 교회의 리더로 섬기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단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셀 리더가 가져야 할 실제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한 훈련과 지도자적 검증으로 성공적인 가정 교회를 만들려는 신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는 가정 교회 리더십을 발전시킬 지도자훈련학교를 마련하여 늘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미래를 대비하며 지속적으로 수급할 리더를 양육하는 점은 현대교회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공헌이다.

## 제 2 절 한국 지구촌교회

### 1. 교회 성장 관점에서의 교회 역사

미국 워싱턴에서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던 이동원 목사는 1993년 한국에 돌아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자신으로부터 양육 받았던 몇 분들과 함께 지구촌 복음화의 꿈을 안고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이미 2002년에 교회 성장학자 명성훈 목사는 지구촌교회를 일컬어 한국 교회에서 초고속으로 성장한 교회라고 한다.<sup>116)</sup> 지구촌 교회의 성장의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117)</sup>

#### 가. 1기: 개척 모임기

1993년 미국에서 목회 중이던 이동원 목사는 한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다. 마침 미국을 찾아온 몇 명의 성도로부터 한국에서의 교회 개척을 요청 받았고 이에 워싱턴 지구촌교회는 세계복음화의 비전 아래 이동원 목사의 한국행에 기꺼이 동의한다. 이때 그의 소망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의 소망과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이동원 목사는 한국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개척을 준비하였고, 그해 11월 경기도 수지의 선경 스마트 복지관 강당에서 65명이 조용한 창립 준비 예배를 드림으로

116) 명성훈 인터뷰(밴쿠버, 7월 2000년).

117)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www.juguchon.org](http://www.juguchon.org) 2005년

째 지구촌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때, 지구촌 교회는 철저한 성서교육, 복음전도훈련, 선교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우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역동적인 교회로서 힘찬 전진을 거듭하게 된다.

#### 나. 2기: 태동기

1994년 1월 첫 주일, 300여 교우들과 원근 각지에서 찾아온 많은 축하객들의 기도와 격려 가운데 선경 스마트 복지관 강당에서 정식 창립예배가 드려 진다. 그 후 날마다 부흥을 더해가던 지구촌교회는 정식 예배 1년 만인 1994년말에는 장년 출석 교인들이 1,000여명에 이른다.

#### 다. 3기: 분당 정자동 시대

분당 정자동 성심빌딩의 지하 본당과 4층의 교육관으로 교회를 확장 이전하면서 지구촌교회의 분당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 기간의 장년 교인 출석은 1,000명에서 4,000여명으로 늘어나는 폭발적 성장을 한다. 또한 이 시기는 지구촌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의 틀이 확립된 시기로 이동원 목사가 직접 만든 교재인 새 생명, 새 가족, 새 공동체 반 등이 운영되어 전 교우가 일꾼으로 훈련 된다. 아울러 이웃사랑축제를 위시한 연례적인 교회 프로그램과 의욕적인 세계 선교 전략의 그림이 그려진 기간이다.

#### 라. 4기: 수지 신봉리 시대

분당으로 거처를 옮긴 지 2년이 못되어 주일 다섯 차례의 예배로 감당이 안 될 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되자 지구촌교회는 다시 수지 신봉리 언덕의 신학교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또 한번 이전을 하게 된다. 1999년에 부설기관으로 목회리더십연구소를 발족하여 한국 목회자의 리더십과 영성, 설교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2002년 1월에는 교회의 의무이자 권한인 예배, 선교, 봉사, 친교의 소임을 소그룹 목장에 위임하여 교회와 목장이 동역하는 목장 교회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시도한다.

### 마. 5기: 수지와 분당 두 날개 성전시대

수지의 예배당이 다시금 포화 상태에 이르자 지구촌교회는 2003년 4월, 분당 미금의 쇼펍몰 건물에 또 하나의 성전을 마련하고 비전센터로 명명하게 된다. 수지 신봉리 성전과 분당 비전센터가 광케이블을 통한 쌍방향 송수신으로 동시 예배를 드리는 두 날개 성전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부흥이 더욱 가속화된다. 이때, 목장교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면서 교우들은 이제 목장을 중심으로 전도와 봉사를 시도하고 국내 및 해외 단기선교를 다녀오기 시작된다. 교회가 아니라 목장이 주도하는 부흥이 시작된 시기이다. 2004년에는 지구촌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1회 셀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교회에 목장 교회의 유익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비전을 완수하기 위한 지구촌교회로 나아간다.

### 2.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이동원 목사의 골로새서 1장 23절-29절을 목회 철학으로 삼으며 자신에게 있어서 가정을 제외하고는 교회 보다 중요한 공동체가 없다고 고백한다.

나에게 복음 보다 중요한 것(이데올로기나 사상)은 없습니다. 나에게 가정을 제외하고 교회보다 중요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23절)인 동시에 교회의 일꾼(25절)입니다. 교회 사역의 두 가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나타내는 일(전도, 27절)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성숙한) 자로 세우는 일(양육, 28절)입니다.<sup>118)</sup>

이동원 목사는 교회사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현장은 그리스도의 공적을 전파(선포)하는 예배의 장과 치유와 성숙을 목적으로 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기(28절)위한 목장의 장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 사역자로서 역사하시는 이(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29절) 필요하다면 기꺼이 고난(24절)까지 받겠다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다.

118)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교회의 공동체적 자아상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말한다.

첫째는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공동체의 취약성은 훈련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 성도들이 무엇보다 말씀의 훈련의 기초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의 가정과 사회가 한마디로 온갖 상처로 얼룩져 신음하고 있음을 목격하면서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한 치유의 사역으로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가 보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짐을 보고 싶었습니다. 셋째는 비전의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의 미래는 그 공동체가 헤쳐 가야 할 미래를 위한 인적 자원을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꿈나무들인 청소년과 대학생, 청년들을 어떻게 자원화 하느냐가 결정해 갈 것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의 미래를 위해 젊은이를 소중히 여기고 키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넷째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이유는 선교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다함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실현해 가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119)

이와 같이 이동원 목사의 목회 철학이 성서적이고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원 목사가 지향하는 이상적 목회는 무엇일까? 그는 이상적인 목회상을 전인 목회, 균형 목회, 교육 목회라고 한다.

우리 교회의 이상적인 목회 상을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영과 육이 통합된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둘째, 균형목회입니다. 우리는 전인목회가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성도들이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야 하며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조화된 삶을 추구하며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의 책임을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과 땅 끝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강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셋째, 교육목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균형과 헌신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회교육과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 목회의 중심에서 우리교회에 출석하는

119) 이동원 *비전의 신을 선교 걷는다: 이동원 목사와 지구촌교회 목회 이야기* (서울: 두란노, 2004).

지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장을 베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120)

이상과 같이 복음적인 목회철학을 가진 이동원 목사는 지구촌교회의 비전과 가치 이렇게 설명한다. 첫째, 비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명령과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둘째, 사명: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소속된 목장교회를 통하여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평신도 선교사로 훈련되어 나아가고자 한다. 셋째, 전략: 주후 2010년까지 30000명의 교회 가족, 3000명의 평신도 선교사, 300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한다.<sup>121)</sup> 이를 위해, 21세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 내 가정주부들을 적극적으로 훈련시켜 마을목자가 되도록 격려한다. 둘째, 헌신적인 형제들로 하여금 형제목장이나 부부목장의 리더가 되게 한다. 셋째, 직장인들은 직장 내의 신우회 활동에 적극 참여케 하거나 직장 내에서 성경공부 그룹을 인도하도록 돕는다. 넷째, 사업가들은 기독교적 비전에 근거한 회사 경영과 회사 복음화에 헌신하도록 격려한다. 다섯째, 위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을목자 훈련을 강화하고 21세기를 대비하여 본 교회 내에 개설된 '평신도 선교대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sup>122)</sup>

### 3. 가정교회의 조직과 운영

1999년 감사예배와 축제가 끝나고 모든 교인이 교회를 빠져 나간 자리에서 깊은 회의에 빠진다.<sup>123)</sup>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채우고 있었지만 사역자들은 선수와 같고 교인들은 관객으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구경꾼처럼 보임을 발견한다. 성도들이 예배와 설교를 즐기려 교회 올 뿐 그들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음에 큰 회의를 갖게 된다.

저는 5주년 축제 이후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구경꾼은 늘어나는 반면, 일꾼이 줄어들고, 교인이 늘어나면서 신약교회의 본질인 교제의 어려움을

120)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121) Ibid.

122) Ibid.

123) 이동원,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 (서울: 두란노, 2004), 8

갖게 되었고, 교회 성장을 볼 때 신약교회의 사명인 전도를 회피하고, 전도 영접 보다는 수평 이동이 적지 않음에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sup>124)</sup>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래서 목자 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동원 목사는 목장사역이야말로 성서적 요구이며 사회 문화적 요구라고 믿게 되었다.

목장사역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신약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길이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장 교회의 정착과 확장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의 가장 효과적 성취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목장 사역에의 헌신이야말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양식이요 사역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장사역에 헌신할 때 모든 성도는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sup>125)</sup>

#### 가. 특성

목장 사역의 내향적 특성은 '확장된 가족 공동체'이다. 외향적 특성은 '만인제사장 공동체'이다. 그리고 내향적 특성과 외향적 특성 사이에 코이노니아적인 삶의 나눔이 있고 전도지향적인 삶이 있다.

목장교회 특성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중심 목장교회: 마을중심,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둘째, 연령중심 목장교회: 1-10년 이내의 동일 연령대의 성도들이 모여 공통적 관심사 나누는 형태이다. 셋째, 특수 사역 중심 목장 교회: 특수선교, 동일 직업, 동일 관심영역, 교회내외의 전문사역, 특수한 여건이나 돌봄의 필요 등을 나누고 실행하기 위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넷째, 복합적인 목장교회: 동일지역 내 연령별 목장교회나 동일 연령대의 사역중심의 목장교회 등이다.

#### 나. 조직과 직책

인원이 많은 만큼 목장 교회는 목장교회, 마을, 그리고 지구로 조직이 된다.

첫째, 목장 교회는 7-12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 공동체로서 목자와 예비목자, 그

124) 이동원,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 8.

125) 지구촌교회 홈페이지.



리고 목장원이 있다. 목자는 목자 교회의 평신도 목회자로 목장교회 모임과 목양의 책임자이다. 예비 목자는 목자 후보생으로 목장 교회 내에서 주로 새 교우와 새 신자를 돕는 후원자 역할을 한다. 목장원은 목장 교회 내에서 각 부 사역을 담당한다.

둘째, 마을은 7-10개의 목장 교회로 이루어진 마을 공동체이다. 마을장은 마을을 대표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마을 내 애경사와 친교 및 사역을 위한 연합 행사를 주관하며 마을에 속한 목장교회를 순회 탐방하여 목장교회 사역의 감독자이자 지구사역자와 목자 사이의 중간 지도자이다. 목자셀은 마을장의 인도아래 마을 내 목자들이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사역을 나눈다.

셋째, 지구는 7-12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지역 공동체이다. 지역 사역자는 주간 목자 모임과 마을 장 셀을 통해 지구 내 전체적인 사역을 총괄하며 마을장과 함께 목자셀 및 목장교회 모임을 탐방하여 목자와 목장교회를 지도한다. 마을장 셀은 지구사역자의 인도아래 마을장이 함께 모여 삶의 나눔과 사역 나눔을 한다. 마을 장들은 은사를 따라 목양, 교육훈련, 예배, 선교, 사회복지의 5개 사역 부서 중 한가지씩을 담당하여 지구 내 목장교회 사역을 지원한다.

넷째, 목장사역센터는 장년 목장교회 사역에 대한 연구, 기획, 행정을 담당하며 전체 목자 훈련을 주관한다. 담당사역자는 담임목사님의 목장교회 사역지침을 지구사역자 모임을 통해 반영한다. 지구사역자 모임은 목장교회 사역 현황 및 주간 중 중요 사역을 점검하고 토의한다.

#### 다. 교육과 훈련

첫째, 목자 과정은 기본 훈련 필수 과정(새 생명, 새 가족)으로 목장교회의 기본 개념과 목장교회 생활을 다루며 목자의 삶은 목자의 사명과 역할, 인도법 등 실제적인 목자의 사역을 다룬다. 그리고 목장교회모임 인도법은 목장교회 모임을 인도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다루며 목장교회사역 각론은 목장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 각의 부서사역을 다룬다.

둘째, 예비목자 과정은 목자과정을 이수하고 목자로 임명되기까지 지구사역자를 통해 별도의 훈련과정을 갖는다(현재는 신병훈련소 사용).

셋째, 계속훈련 과정으로 수요 목자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자매)와 저녁

8시 40분(형제)에 있고 목자 셀은 격주, 마을장셀도 격주로 모임을 갖는다.

#### 4. 평가

가정교회 사역의 장점을 평가한다면 첫째, 급성장하는 대형 교회에서 가정교회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교회에서의 가정교회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교인들이 늘어나도 얼마든지 건강한 교회로 키워 갈수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지역중심 목장교회뿐 아니라 연령중심 목장교회, 특수 사역 중심 목장교회, 복합적인 가정교회를 통해 섬김은 물론 전도지형적인 삶을 살도록 잘 조직이 되어 있다. 셋째, 조직 적인 면에서, 목장사역 센터를 통해 목자 훈련을 주관하고 담당 사역자와 지구 사역자를 통해 담임 목회자와의 사역지침이 충분히 전달되는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제 3 절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최 영기 목사는 현재 그의 저서와 세미나를 통해 한국 과 이민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가 섬기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가정교회' 목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가장 대표적인 모델 교회이다.

최영기는 과거 교회의 평신도로 있으면서 출석하던 미국 산호세의 교회에서 오래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한편, 미국 침례교회의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성공적인 사역을 해 왔다. 그러던 중 전통적인 교회 내에서는 사람이 변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가정교회에 눈을 돌린다.

1993년 현재의 교회로 부임할 때 성도들에게 가정교회의 비전을 제시했고 가정 교회 목회를 허락받는 조건으로 교회에 부임하게 된다. 가정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겪는 어려움이 비교적 쉽게 극복이 됐으며 성공적인 가정교회 운영 결과를 만들어 낸다. 부임 시 교인 수는 120명이었는데, 5년이 지난 1998년 11월에는 400명 이상의 교인이 출석하게 되었고 그동안 침례를 받은 인원은 300여명에 달하게 된다. 또한 20개의 가정교회가 30개로 늘어났다.<sup>126)</sup> 2002년에는 700명 이상이 교회를 출석하기에 이른

126) 최영기, "내가 가정교회를 시작한 이유," 목회와 신학, 1998년 9월호, 121.

다.<sup>127)</sup>

그는 가정교회를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이해한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예로 든다면, 모든 가정 교회들이 주일에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금요일은 각 가정 교회별로 집에서 예배(모임)를 갖는다. 즉,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여러 가정 교회가 합쳐진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가정 교회와 보통 교회의 차이점은 가정 교회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교회로써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다.<sup>128)</sup>

### 1. 교회 성장 관점에서의 교회 역사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1978년 2월 5일 휴스턴의 South Main Westmoreland에서 일곱 가정이 모여 교회 설립을 선언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한 달 후에 초대 담임목사로 이상훈 목사가 부임하고 예배 장소를 휴스턴 대학의 Forth Worth Hall로 결정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그해 7월에 Memorial Drive Baptist Church로 옮겨 예배를 드렸는데, 이때 장년 63명, 어린이 21명이었다. 1981년에는 현재의 교회 대지 7에이커를 구입하여 교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1982년 Westview Baptist Church로 교회 장소를 이전하고 1983년 이상훈 목사의 사임에 이어, 1984년 6월에 김순일 목사가 부임하여 완성된 새 성전 Fairbanks-N. Houston Rd로 이전하였다.

가정교회 목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한 것은 1983년 1월 3일 최 영기 목사의 부임 후의 일이다. 부임 후 최 영기 목사는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오는 '생명의 삶', '경건의 삶' 등이다. 10월에 23개의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해 출석이 300명을 넘어서게 되며 1994년 4월에는 400명을 돌파하게 되었다. 성경공부와 가정교회의 시작과 함께 목장 수련회를 열었고 '제자의 삶', '교사의 삶'이라는 성경공부 과목이 추가로 개설되었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자, 가정교회 사역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소개하는 세미나를 계획하게 된다. 1996년도에 제 1차 목회자 초청 가정교회 세미나를 열어 한국을 비롯한 미주 15개 주에서 36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sup>129)</sup> 한편 기도 운동도 쉬지 않았는데 하루에 3번, 33초

127) 인터뷰, (2002년 4월).

128) Ibid.

동안 기도하는 333기도 운동을 전개해, 매 식사 때 마다 하루에 3번, 33초씩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므로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sup>129)</sup>

## 2.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

최영기 목사의 목회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평신도를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다. 즉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오랫동안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쌓아져 온 것이다.

저의 직책은 목사이지만 마음은 항상 평신도입니다. 과거 평신도 시절에,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께서 헌신된 삶의 모습을 그리실 때에 목사가 되어야만 살 수 있는 삶을 제시하면 무척 불만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교역자의 삶 뿐 아니라, 평신도도 사역자의 삶도 기록해야 하고, 교역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3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계속 되어 온 생각입니다. 올바른 삶이 어떤 것이라고 말해 주는 목회자 보다는, 올바른 삶의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더 필요하다고 고집하며 끝까지 평신도 사역자의 길을 걸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 주셨습니다. 평신도 사역은 그만하고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사역을 하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sup>131)</sup>

그는 평신도와 더불어 사역하는 방편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 본래 그는 장년 주일학교 교육에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sup>132)</sup>

산호세의 교회에서 그가 평신도 사역을 위해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론적 배경은 랄프 네이버가 쓴 *Where Do We Go from Here*라는 책을 읽은 후이다. 그는 그 책에서 평신도 사역 중심의 교회로 가정교회를 왜 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는 지를 상세히 배우게 되고 평신도 사역으로 가정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꿈을 가지게 되었다.<sup>133)</sup>

129)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역사* (1998), 1-3.

130) 최영기, *나, 이런 목사들이다* (Houston: 인영출판사, 1997), 20.

131)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사, 1996), 5.

132) 최영기, "내가 가정교회를 시작한 이유," 121.

133)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32.

그는 장년 주일학교를 운영해 오면서 느꼈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장년 주일학교에서는 참된 사공이 어렵다. 둘째, 장년 주일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 역할을 할 수 없다. 셋째, 장년 주일학교에서는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폭발적인 성장과 성도 간에 진정한 사공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현재까지 전통적인 교회 구조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제한하고 평신도를 무력화시켜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 하실 수 있도록 초대교회의 주류인 가정교회를 통하여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로 교회 구조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전통적인 교회 구조를 탈피하고 신약성서의 가정교회나 중국의 처소교회처럼 집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sup>134)</sup>

그는 가정교회를 통한 평신도 사역에서 ‘삶을 보여줌’이라는 기치아래 서로 신뢰 관계를 먼저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최영기는 목사로서의 평신도 사역의 꿈을 이렇게 말한다.

담임하는 성도들로부터 예수님 닮은 목사라는 소리를 듣는 목사가 되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소원이 예수 닮은 목사님을 한 번 모셔 보았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고, 응석도 부릴 수 있고, 사랑의 질책도 받을 수 있고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 보았으면....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sup>135)</sup>

그는 평신도 사역을 꿈꾸는 자로, 삶 자체가 투명하고 예수 닮은 목회자로 사는 것이 목회철학이었다. 그는 평신도가 교회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교회를 믿고 꿈꿨다. 그는 전문 목회자와 평신도 목회자가 구분이 없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한다. 그가 평신도 사역의 교회성장에 있어서 효율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전도는 평신도 사역자가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둘째, 초 신자의 신앙 성숙을 돕는 데도 평신도가 훨씬 효과적이다.<sup>136)</sup>

그의 목회 철학은 분명하다. ‘평신도 사역을 통해 예수의 제자를 길러내는 교

134)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30-32.

135) 최영기, *나, 이런 목사일시다*, 34-35.

136)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49-51.

회<sup>137)</sup>이다. 평신도 사역이 곧, 가정교회 사역이라는 것을 터득한 것이다.

### 3. 가정교회 조직과 운영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최영기 목사는 가정 교회를 집에서 모이는 교회로 이해한다.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예로 든다면, 온 교인(모든 가정 교회)이 주일 예배를 교회 본당에서 드리고 매주 금요일은 각 가정 교회별로 집에서 모임(예배)을 갖는다<sup>138)</sup>고 말한다. 또한 가정교회의 사역과 그 예 및 필요성과 직책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밝히고 있다.

최영기 목사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소그룹이나 셀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가정교회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가정교회의 사역이 소그룹이나 셀의 그것과는 달리 하나의 작은 교회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정교회를 구역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를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이라고 하며, 하나 하나의 가정교회들이 모두 독립된 교회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sup>139)</sup> 가정교회는 구역에 가깝기 보다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구역’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중국의 처소교회와 가까운 작은 개척교회이다. 차이가 있다면 개척교회는 신학교를 졸업한 전문 사역자가 인도하지만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목회자의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이다.<sup>140)</sup>

#### 가. 조직

조직은 세부적으로 보면 맨 먼저 담임 목사가 있다. 그리고 다음에 목자장과 큰 목자가 있다. 각 목장마다 목자가 있고 목장 안에 예비목자, 목원들이 있다.

목원을 구성하는 것은 기존의 구역과 같이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가정교회는 일종의 교회이기 때문에 목원들이 목장을 선택하게 한다. 그러나 목장은 대체로 서로 나이가 비슷하거나 문화가 같거나 지역에 가깝거나 특정 직업 위주로 모이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최 영기 목사는 가정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137) 최영기, *나, 이런 목사들이다*, 48.

138) 인터뷰 (2002년 4월).

139)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19.

140) Ibid., 20-21.

하되, 목장을 한 차례 교체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가정교회 사명선언서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교회는 셀 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니고 교회를 추구한다. 가정 교회들이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수한다. 첫째, 매 주일 모인다(행 20:7). 둘째, 남녀가 같이 모인다(롬 16:3-5). 셋째,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모인다(고전 14:23-35).

상기와 같이 가정교회를 교회로 보고 남, 여가 같이 모이고,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모이며 방학이 없다. 구역조직은 기후가 더운 여름철에 방학을 하지만, 가정교회는 방학이 없다. 교회는 매 주일 모인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리고 목장의 인원은 6-12명으로 제한한다.

목원 본인이 선택케 하는 이유는 편한 사람끼리 모이면 전도와 새 신자 양육이 쉬워 진다는 교회 성장의 기본인 '동질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는 모이는 목원들 간에 비슷한 공통점이 없으면 사귀며 교제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과 새 신자를 목장 안에서 보고 배움으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데 있다.<sup>141)</sup>

#### 나. 가정교회의 직책

가정교회의 직책은 다음과 같다.<sup>142)</sup> 우선, 목자는 영적 지도자이며 목장의 책임자이자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목장의 책임자로서 목원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 교회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목자는 매 주일 예배 후, 정시 훈련에 참여한다. 새로 나온 분들이 목장에 할당되면 그 주일에 그들을 심방하고, 그들이 가정교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등록할 때 까지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또한 목자 자신의 신앙성장을 위해 일주일에 성경 3장 이상씩 읽고, 5일 이상 매일 20분 이상 기도하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목원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불러가며 기도한다. 목자는 교회의 필수과목 세 개와 두 개의 1:1 양육 과목을 마치고 인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받는다. 둘째, 목장교사는 목자 모임 중 20-30분의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자이다. 목장교사는 생명의 삶과 영적 성장의 기본진리를 마친 후 목자가 추천해서 목사와 인선위원회에서 결정 임명한다. 셋째, 대리 목자는 목자가 자리를 비울 때에 대신 하는

141) 최영기, *나, 이런 목사일시다*, 63.

142) 최영기, *13기 목회자 초청 가정세미나* (Houston: 서울 침례교회 출판부, 2002), 4.

목자이다. 넷째, 대형 목자는 목자로서 이수해야 할 과정은 안 마쳤으나 목자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을 대형목자라 부른다. 다섯째, 예비 목자는 목자를 돕는 부목자의 역할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이 15명이 되어 분가할 때 목자가 될 후보자이다. 예비목자는 생명의 삶과 영적 성장의 기본진리를 마친 사람으로서 인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여섯째, 기타직책: 가능하면 목장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목원들에게 골고루 분담시킨다. 즉 선교, 홍보, 친교담당, 주일 출석 점검자 등이다(선교, 봉사, 출판, 서기, 회계 등).

#### 다. 가정교회의 운영방법

가정교회는 주 1회 모이는데, 목장마다 약간은 다르나 기본적으로 금요일 저녁시간에 개인 집에서 모인다. 보통 초대교회의 밥상공동체를 연상(행 2:42-47)케 하는데, 함께 모여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는다. 각 가정은 모이는 가정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을 나누어 준비하고 설거지는 모든 모임이 끝나고 하도록 지도한다.

식사가 끝나면 이어서 예배가 시작된다. 전형적인 가정교회의 예배 순서는 약 2-30분간 찬송을 부르고 약 20-30분간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목원들 모두가 빠짐없이 이야기를 나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나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곳에서 나뉘진 삶의 이야기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자신의 삶을 나누는 일을 마치면 약 2-30분간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공부는 목자가 인도하기도 하고 교사를 임명해 인도하기도 한다. 성경공부를 마치고 약 15분간 과일을 들면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방금 공부한 성경구절 중에 요절을 뽑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를 토의한다. 이 시간은 약 1시간인데, 서로 돕는 시간 혹은 사역의 시간이라고 한다. 이 시간 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약 15분 정도 증보 기도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마지막 10분 정도 전도와 선교 비전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 기도한 후에 마친다.

모임의 핵심적인 부분은 1시간에 걸친 나눔과 도움의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어떻게 실천에 옮겼는지, 현재 무슨 일을 당면하고 있는지를 나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당면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



법도 토의한다. 가정교회에서 영적문제, 정신적인 갈등,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직장 문제 등 모든 문제가 해결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노출 시킬 수 있는 분위기에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교회가 구역과 같이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편한 사람끼리 모일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sup>143)</sup>

목장에서 예배, 선교, 교육, 훈련, 친교 등이 이루어지고 심방과 장례식도 목장에서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목장은 하나의 교회이며 목사와 목자는 교회 사역을 나누는 동역자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각 목장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정하고 기도하도록 한다.<sup>144)</sup> 목장모임의 운영 규칙은 질문하는 이에 대해서 피상적인 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에 처한 성도에게 조언을 할 때는 질문이나 간증의 형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때 나온 이야기는 절대 비밀에 붙여 마음을 열게 한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두 목장이 함께 모여 다른 목장들과의 교제를 하게 함으로 예배와 교제의 폭을 확장시킨다. 이를 합동 목장이라 한다. 합동 목장은 자신들이 속한 목원들과의 교제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목장은 개척교회와 같다. 그러므로 분가의 원칙으로 운영되는데 6-15명이 모인 개척교회로 여기며 사역한다. 목장 내의 모든 구성원이 사역에 적극 참여토록 선교부, 친교부, 전도부 등의 조직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15명 이하의 교회이다. 15명이 넘을 때에는 지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성장의 원리이다. <sup>145)</sup> 최영기 목사는 보고 배우기 위해서는 적은 수여야 한다고 말한다. 예수님도 12명을 제자로 삼았는데 12명이 넘으면 서로 마음을 열고 삶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지투엘브 이야기*를 쓴 조엘 코미스키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sup>146)</sup>

여기서 목장이 분가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 참석 인원이 15명이 되면 목원 중에는 모임에서 한 마디도 못하고 돌아가는 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둘째, 전도의 열기가 식기 때문이다. 15명 이상이 되면 자녀들까지 포함할 때에 적어도 30명 이상이 모이게 됨으로 가정 교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감히 분

143) 최영기, *나, 이런 목사일시다*, 46-47.

144) Ibid., 213.

145) 최영기, *나, 이런 목사일시다*, 108-113.

146) Comiskey, *지투엘브 이야기*, 73.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가할 때 기존 목장을 예비 목자에게 물려주고 기존 목자는 목장을 떠나서 새로 목장을 개척해야 한다. 분가 시, 정이 든 목원들이 헤어지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지만 가정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도에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sup>147)</sup>

#### 라. 가정교회의 정착과정

가정교회는 세 단계를 거쳐서 정착된다. 첫째, 목원들끼리 친해지는 단계이다. 처음에는 서로 마음을 털어 놓지 못하지만 한 주간에 일어났던 생활을 나누다 보면 재미를 붙이게 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 머물면 결국 모임이 시들해 질 수 있다. 둘째, 내적인 상태를 나누는 단계이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내적 상태를 나누는 단계로 이 단계까지는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 셋째, 전도와 선교의 단계이다.

#### 4. 평가

가정교회를 실시한 결과로 장점은 첫째, 평신도 사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이다. 평신도가 그 동안의 피동적인 교회 생활에서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전환한 것이다. 즉,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방관적인 신앙생활에서 참여하는 신앙생활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자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실천이 가능해졌다. 소그룹이 함께 돌보고 보여주는 삶을 통해 전도가 되고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가정교회의 건전한 분가로 양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은 특이할 만하다. 따라서 교회 전체가 양적 성장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넷째, 규모 있는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질적인 발전을 가져 왔고, 기존의 교회 교육 구조와 달리 가정교회의 구조 속에서 교육의 기회가 널리 확산되었다. 다섯째, 교역자와 평신도가 함께 목회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역의 부담을 나누었다. 여섯째, 소그룹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일체감을 심어 주었다. 즉, 많은 교인들 안에서 느끼기 어렵던 동질성과 일체감을 느끼게 해서로간의 나눔이 활발하게 되었다.

단점으로는 첫째, 각 가정교회 내의 목원간 교제와 나눔이 활발한 반면 다른 가

147) 최영기, *나, 이런 목사들이다*, 108-113.

정교회와의 교제가 결여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나, 월 1회 합동 목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인다.

## 제 4 장

### 교회 성장 관점에서 본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분석

지금까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교회에 대한 성서적 근거와 신학적 배경, 교회사 안에서 교회들과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밴쿠버 지구촌교회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의 목회 철학을 분석함으로써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가정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정착과 전략을 말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가정 교회 사역에 대한 어려움을 구체화하고 가정 교회 사역의 새로운 모델 제시와 가정교회 목회 전략을 세우려 한다.

#### 제 1 절 밴쿠버 지구촌교회의 분석

##### 1. 지역적 현황

먼저,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지역적 환경과 현황을 보자. 태평양 연안에 있는 밴쿠버는 천연적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밴쿠버 지역은 도시 자체의 인구증가 뿐 아니라, 교민 사회 인구도 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들 수 있다. 첫째는 자녀 교육이다. 자녀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은 2000년대에 들어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넓은 세계에서, 특히 영어권에서 원어민과 같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자녀로 교육시키고 싶은 열망에 가족이민과 자녀 유학을 보내고 있다. 둘째는 한국사회 전반에 회의한 젊은 부부들이 유학이나 이민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 기인한다. 셋째는 캐나다는 미국과 근접해 있으면서 같은 언어문화권에 속했다는 매력 뿐 아니라, 비교적 미국보다 쉽게 재 이민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사역지 분석을 위해서 지역적 환경과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2. 지리적 환경

북 미주에 있는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나라이다. 북반부에 위치한 캐나다는 지역에 따라서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 갈 정도로 춥다. 그러나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위치한 밴쿠버는 캐나다 서부에 속해 있으며 항구 도시이자 동쪽으로 로키 산맥이 있는 관계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캐나다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이다. 수년째 스위스 제네바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교육과 자연, 사회 복지가 좋다는 것 외에 좋은 날씨로 뛰어난 곳이라는 것이 선정의 이유이다. 좋은 기후는 한인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나라 이민자들이 모여 들게 하는 이유이다.

## 3. 문화적 환경

밴쿠버는 좋은 촬영 조건과 그 경제성으로 인해 미국이 할리우드 다음으로 가장 선호하는 영화제작지이다. 밴쿠버에서의 영화 산업의 발달은 사회 전반에 걸쳐 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이득이 있었지만, 마약 복용자들과 동성연애자들이 활동하는 영적으로 유해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따라서 1세 교인들은 물론, 2세들도 이러한 문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접근이 용이하다.

## 4. 인구학적 환경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인구는 약 2,500만 명이다. 그리고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로비아 주는 인구가 약 400만 명 정도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대체로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개척될 즈음부터 인구 증가를 보였다.

## 5. 한인들의 상황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13년간 교민 인구가 약 20배 정도 증가했다. 교회가 개척되던 1995년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때 즈음이다. 홍콩인들이 대거 이민해 오면서 밴쿠버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또한 타도시에서 사람들이 밴쿠버에 유입되었다. 또 하나의 인구증가 이유는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 개방에 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밴쿠버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데 그중에 한인 인구는 약 6만 5천 명(유학생 약 1만 5천명 포함, 영사관 통계)이며 지금도 이민 정책상 증가 추세에 있다. 캐나다 이민 정책상 가장 많이 유입되는 부류는 40대 초반의 고학력자, 전문직 혹은 대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민들이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하며 한국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현상은 미국에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LA나 뉴욕과 같이, 소위 3D 직종에 뛰어 들어 이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와는 달리 대부분 골프와 비디오 시청으로 시간을 보낸다. 그중 일부 가정은 소위 '기러기 가정'으로 자녀 교육으로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서 생활하는 가정이 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도 2005년 말 현재, 약 38가정의 '기러기 가정'이 있다. 이 현상은 자연히 경제적인 불안의 요인이 되고 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이민생활에 안정이 없고 교회 생활에서 불만을 쉽게 토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 6. 목회지의 환경과 현황

밴쿠버에는 교역자가 약 200-300명이 있다(2005년 밴쿠버 한인 목사 회 통계). 목사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밴쿠버에 Vancouver Theological School, Regent College, Trinity Western Seminary 등 우수한 신학대학원들이 있고, 비록 신학대학원은 아니지만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VIEW 한국어 프로그램)이 Trinity Western Seminary 내에 있어 안식년 동안 공부하기 위해 오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의 목회자들은 교단이 각기 다양한 만큼 신학적인 입장 또한 다양하다. 심지어 한국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단체들도 들어와 있다.

#### 7. 한인들을 위한 지역 교회 상황

1992년도에 한인교회가 20여 개 정도였다. 1995년도 밴쿠버 지구촌교회가 개척될 때에 교회협의회에 등록된 교회는 30여 교회였고 지구촌교회는 협의회 가입하지 않은 교회를 포함해서 55번째 교회였다. 현재 2005년에 교회 협의회에 등록된 한인교회 숫자는 63개이다. 지역 교민 신문에 광고를 내는 교회 이름을 헤아리면 족히 150개 내지 200여개의 교회(가정집에서 모이는 형태 포함)가 있다. 그러나 불신자를 전도해 예

수를 믿게 하기보다는 수평 이동이 극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수는 교민의 약 10 퍼센트 미만이다. 이 숫자는 북미주에서 가장 낮은 교회 출석률로 추정된다. 이것이 밴쿠버 지구촌교회가 있는 지역의 현황이다.

## 제 2 절 역사적 현황

홍콩이 중국에 귀속될 경우, 밴쿠버 지역에 인구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교민의 이주와 이민의 문호가 크게 열릴 것을 예견한 미주 한인 장로회 캐나다 노회는 새로 이주해 올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를 이 곳 밴쿠버에 세울 것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캐나다 서부인 밴쿠버에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로 토론토 등 캐나다 동부에서 이주하는 교인들이 정착할 본 교단 소속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사회적, 선교적 상황은 미주 한인 장로회 캐나다 노회가 밴쿠버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했다.

캐나다 노회는 밴쿠버에서 가장 인접한 도시인 에드먼튼에서 사역하던 본 연구자에게 개척을 권유하고 지역조사를 의뢰했다. 당시 사역지를 옮겨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본 연구자는 지역 조사 결과만 교단에 보고하게 되었다. 캐나다 노회는 조사를 토대로 밴쿠버 지역에 개척 가능성이 있는 두 지역을 정하였고 신문광고를 통해 두 명의 개척 목회자를 청빙하기로 결정을 했다. 3년이 지난 후, 본 연구자는 기도 가운데 밴쿠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고 한편, 기다리던 총회와 노회 등 교단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989년 1월 4일 부임해 만 6년간 시무하던 교회를 1994년 12월 27일 사임하고 에드먼튼을 떠나 밴쿠버로 향했다. 마침내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캐나다 서부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1995년 4월 22일 세워졌다. 처음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단 한 명의 성도 없이 개척이 시작되었지만, 마침 한국에서 영어 연수차 캐나다에 와 있던 선교 단체(예수 전도단)간사 출신 3명이 학교를 밴쿠버로 옮기며 이들이 사역에 합류하게 된다. 다음은 교회의 역사적 현황을 사건을 토대로 대략 4기로 나눠 정리하고자 한다.

### 1. 태동기: 교회 개척 준비 단계(1994년 12월-1995년 2월)

1994년 말 에드먼튼 교회는 총회와 노회의 파송을 받아 밴쿠버 사역을 결정한 본 연구자의 결정에 당혹하며 아쉬워했지만 당교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본 연구자의 사임을 받아 주었다. 교회는 송별회 대신에 파송식으로 대신하고 매월 일정액의 선교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교회가 완전 자립된 1997년까지 재정 후원했다).

1994년 12월 중순에 가족과 함께 밴쿠버에 며칠간 거주하며 교회 위치 선정을 위해 한인록을 중심으로 교민주거 분포도를 우편번호에 따라 분류했다. 한편, In-Touch<sup>148)</sup> 디렉터인 피터 조르단(Peter Jordan)을 통해 밴쿠버에 교회를 개척한 캐나다인 목사님을 만나 지역의 영적 특성 및 교회개척의 성공사례와 개척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교육받았다. 캐나다인 목사님은 밴쿠버 외곽지대인 피트 메도우(Pitt Meadow)의 '가정교회'를 소개해 주셨고 가정교회에 관심을 갖게 해 주었다. 그 가정교회는 매 주일 오후에 이웃들이 지역교회에 나가는 대신에 한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신학대학원 재학생을 택해 사례를 주면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그 외의 몇 명의 전문적인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을 소개하였다.

1994년 12월 31일 밤, 4일에 걸친 자동차 여행 끝에 간사 부부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할 집에 도착해 감사예배를 드렸고 1월 3일 이삿짐이 도착하자 12년 전에 공부했던 All Nations University(Youth With A Mission, Hawaii)에 들어가 제자훈련학교(Discipleship Training School)에서 훈련을 받았다. 거기서 한 달간 제자훈련학교와 선교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며 재충전의 기회와 개척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이곳에서 밥 피츠(Bob Pitts) 목사를 만나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sup>149)</sup>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정교회에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그는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 밥 피츠 주니어의 부친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쪽에서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인도하며 사역에 즐거움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며 가정교회를 대안으로 개척준비기에 들어선 본 연구자에게 '가정교회 사역'에 관

148) In Touch의 사역은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of Youth With A Mission)의 제자훈련 학교출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다.

149) Bob Pitts, *Saturation Church Planting, Multiplying Congregation Through House Churches* (Laguna Beach, CA: Last Days Ministries, 1994).



심을 갖고 연구하도록 도왔다. All Nations University에서의 한 달간의 훈련과 생활은 에드몬튼에서의 6년간의 사역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자 개척을 앞둔 시점에서 교회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간이었다.

다시 밴쿠버에 돌아와 2월 첫 주일부터 밤 피츠의 가정교회를 꿈꾸며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다. 에드먼튼 중앙교회를 섬기다가 그곳으로부터 이주해 오신 분들에게 밴쿠버에서의 개척을 알리고 그들을 가정으로 초대해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면서 새로 시작된 교회에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초대한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미 섬기는 교회가 있기에 이 분들이 교회에 출석할 것을 기대하지 못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밴쿠버 지구촌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교회를 시작한 것이다. 첫 개척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간사 3가정과 여행 중 방문한 학생 1명, 그리고 본 연구자의 가족이 전부였다. 세 번째 주일이 될 때는 방문자마저 떠나고 한명의 교인도 없이 사역자들로만 예배를 드렸다. 간혹 교회 개척의 소식을 들은 이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개척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에 출석하는데 주저했다.

## 2. 1기: 성장기(1995년 3월-1997년 12월)

1995년 3월 첫 주일에 예배당(7895 Canada way Burnaby, BC)을 빌려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간 예배당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민 개방 이후 많은 소수 민족들이 들어와 각각의 교파에 따라 예배당을 대여하려 하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자그마한 교회가 화재로 인해 새 예배당을 건축한 후 재정적 압박을 느끼던 차에 예배당 대여가 비교적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캐나다 주택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교인들과 어린이들로 인해 월요일마다 교회 건물 담당자로부터 불평과 주의를 받는 것이 주간 행사가 되었다. 한편, 늘어나는 교인으로 인해 파킹장이 부족했고 어린이 교회 분반 공부를 할 장소가 없어 자동차 안에까지 들어가 공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친교실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던 청소년들은 장년들의 예배 후 친교실 사용으로 다시 본당으로 옮기는 큰 혼잡이 일어나곤 했다. 교회 안에는 예배당을 넓은 곳으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되었다.

교회는 밴쿠버 지구촌교회라 정했다. 당시 지구촌이란 이름이 상당히 낯설었다.

특히 촌이란 단어는 오래된 이민자들에게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오는 21세기의 미래는 세계가 하나의 촌이 되는 시대를 예상하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전도한다는 의미를 담은 밴쿠버 지구촌 교회로 결정하였다.

교회의 비전과 목회방향을 고려해 오대원(David E. Ross) 선교사를 초청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는 1965년 25세 나이에 남장로회 파송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예수 전도단을 설립하고 60세가 될 즈음에는 이미 400명의 선교사와 목사를 배출했다. 이날의 설교는 창세기 12장 1-3절의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은 것 같이, 밴쿠버 지구촌 교회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대원 선교사님의 설교는 새로 시작되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에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다.

예배 스타일은 현대식 예배를 택해 드리기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사역의 방향과 목표는 '불신 영혼에게 전도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수평이동하여 교회 성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먼저 불신자들과 젊은 세대들을 찾아가 전도했다. 예배는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도록 했고 젊은이들이 자신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새로 이민 오거나 타 도시에서 이사 오면서 밴쿠버 지구촌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기존 교인들은 예배 형식에 대해 불만이 대단했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나가는 사람조차 생겼다. 예배 형식은 문화적 표현의 차이라고 가르치면서 불신자와 젊은이를 겨냥한 예배의 형식을 계속 진행시켰다. 점차 교회는 불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생겨나며 'Young Church'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교회는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교회 예배는 지나친 형식을 배제하고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예배 후에 친교의 시간은 이곳 이국땅에서 처음 시작한 이민자들의 큰 힘이 되었다. 한편, 성도들은 신앙 성장을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다. 주일 예배와 금요 찬양예배, 그리고 구역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통한 신앙 성장을 위해 정회원 제도를 두었다. 자격 요건에는 본 교회에 등록된 사람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소정의 정회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이 과정은 담임 목회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다시 일대 일의 양육의 과정을 가졌다. 이것은

폭발적인 좋은 반응을 가져왔으나 일대일 양육 과정에서 몇 대를 지나고 나니 양육하는 자들에 대한 계속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1기의 이러한 양육의 과정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250여명(어린이 포함)의 출석교인들은 본 교회 건물에 수용되기 어려워 새로운 건물로 이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한마디로 교회 개척이후 급성장 단계였으며 재정적으로 이미 개척단계를 벗어난 자립단계였다.

### 3. 2기: 혼란기(1998년 1월-2001년 12월)

1997년 12월부터 이후 4년간은 교회의 혼란기다. 1997년 10월 협소하던 예배 장소에서 벗어나 새로운 예배당을 얻어 이사를 했다(8383-140 St. Surrey, BC). 당시 교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개척 당시부터 원하던 지역이었다. 왜냐하면 밴쿠버 도시가 확장된다면 자동차로 미국 국경까지 30분 거리에 있는 밴쿠버의 동남쪽의 씨리 지역에 교민들이 많이 몰릴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수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예측은 현실화 되어 씨리 지역에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교회와 담임 목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셨다. 급성장하던 교회에 시련이 닥친 것이다. 예배당을 옮기고 2개월 만에 IMF가 터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배당을 옮기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 2세들은 넓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더 없이 기쁜 때에, IMF로 인해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교회에 출석하던 유학생 60여 명(청소년 30명 대학생 30명)이 귀국을 하게 되었다. 이민 개척교회에 활기를 띠게 했던 청년과 청소년 60여 명이 고국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갑자기 텅 빈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연말이 되어 교회를 결산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재정이 30퍼센트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장년들 각자 심한 갈등을 경험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최근 이민자들인 대부분의 교인들은 경제생활의 근거를 아직까지 한국에 두고 있었다. 현지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응의 미숙, 그리고 캐나다 사회구조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가지고 온 돈이나 모국에 남겨둔 부동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들은 IMF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마음이 초조해져 있었다.

둘째, 교회 안의 지도력 부재이다. 교인 숫자가 급성장함에 따라 교회는 다양한 리더십이 필요했었지만 교인들의 90퍼센트 이상이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리더십을 훈련하고 세울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없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사회에서의 리더십과 다르기 때문에 사회 경험에서 온 초신자들의 리더십으로는 교회를 질서 있게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당회가 결성된 것은 아니지만 각 부서의 장들이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부서 장들이 일들을 위임받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일처리에 불만이 교회에 생긴 것이다. 교회 안의 성숙하지 못한 리더십들은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할 때 교회의 규범과 질서, 그리고 교회의 법 안에서 행정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면서 교회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할 때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 훈련시키기보다는 주일 예배와 프로그램에 집중하며 양적 성장에 관심을 집중했던데 기인했다.

이후, 교회는 지도력 부재를 매우기 위해 소망 중에 항존직 일꾼을 세우게 되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따뜻하던 교회에 찬 바람은 계속 돌았고 재정은 점점 줄기 시작 했다. 개척 후 2년 동안 200,000킬로미터를 운전하며 심방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던 본 연구자는 개척 6년이 되자 과로로 탈진하기에 이르렀고 영혼의 회복과 졸업논문을 마치기 위해 교회에 안식년을 청하고 허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안식년이 시작된 다음날, 6년간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 한 사람이 안수 집사 두 사람과 권사 한 사람 등 도합 21명을 데리고 나가서 밴쿠버 지구촌 교회 옆에 교회를 개척했다. 이 때 당 회원 전원이 “이것은 교회가 분리 된 것이 아닙니다. 당회가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교회 분열이 아니라 몇 사람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저희는 목사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라며 담임목사에게 힘이 되어 주고 교인들에게는 위로가 되어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소망은 가정교회였다. 교회가 어려울 때 본 연구자와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새롭게 확인하고 교회의 본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이다.

#### 4. 3기: 안정기(2002년 1월-2005년 12월)

교회가 겪은 한 차례의 큰 상처는 단번에 씻겨 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절망은 없다고 믿는다. 2001년 11월 말에 교회가 혼란기를 거친 후 2002년 1월부터 치유와 회복,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갔다. 그간 문제의 핵심에 있던 이들이 나간 후(그들은 몇 개월 후 자체의 어려움으로 일부가 풀어졌다) 교회는 치유단계에 들어갔다.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씩 모아지기 시작했다.

교회의 주일예배와 새벽기도는 변함없이 계속되지만, 주중에 모이는 예배와 각종 프로그램들은 축소됐다. 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성경공부도 줄이고 '가정 교회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어수선해지자 60여명 모이던 청소년도 2001년 말에는 출석 20여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사역자의 지도로 청소년 교회가 2003년 말 출석 100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청년교회 역시 2003년 말 출석 30여명으로 성장했고 2005년에는 8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이처럼 청소년 교회와 청년교회의 양적인 성장은 사역자들의 캠퍼스 전도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단순화되면서 가정교회별로 전도가 되기 시작되었고, 가정교회 안에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생기면서 성도들이 믿음생활에 활기를 갖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다. 성도들이 마음이 모아지면서 어렵게 지속해 오던 선교도 2002년부터 온 교인의 관심과 기도 속에 후원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1999년부터 시작된 밴쿠버에서 1,300킬로미터 떨어진 번스레이크에서의 단기 선교 사역은 2005년도에 69명의 단기 선교사들을 본 교회에서 파송함으로 선교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번스레이크는 캐나다 B. C. 주에서 가장 큰 원주민 지역으로 2005년 단기 선교 때에는 원주민 어린이 135명(청소년 19명 포함)이 참석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2003년도 2월 9일에 공동의회를 통해 장로 4인을 선출하였다. 이날의 선거는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게다가 2005년도에는 주중 각종 성경공부와 사역을 위해 사용할 비전센터(14914-104 St., Surrey B. C.)를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하기 전 다시 한 번 양적 성장을 위해 약진하고 있다.

## 5. 교회 현황(통계적 분석)

지난 10년간의 교회 평균 출석 인원(어린이 포함)과 재정 결산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1994-2005년까지의 교회출석인원과 재정결산 내역

	평균 출석인원	재정결산
준비기: 태동기 (1994년 12월-1995년 2월)		
1기: 성장기 (1995년 3월-1997년 12월)	1995년-190명	84,795.00달러
	1996년-218명	245,827.00달러
	1997년-247명	305,013.00달러
2기: 혼란기 (1998년 1월-2001년 12월)	1998년-249명	201,332.25달러
	1999년-307명	199,846.00달러
	2000년-313명	247,076.00달러
	2001년-241명	231,315.00달러
3기: 안정기 (2002년 1월-2005년 12월)	2002년-370명	206,000.00달러
	2003년-354명	273,094.42달러
	2004년-408명	268,342.95달러
	2005년-447명	536,705.96달러

## 제 3 절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일반적인 전략

### 1. 목회 철학

#### 가. 사명과 비전

교회는 영혼을 건지는 곳이다. 만일 교회가 본연의 과업인 구령 사역을 포기한다면 교회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령에 힘쓰고 예수를 주로 영접케 하는 역할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로서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흰옷을 입은 무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양을 영원히 찬송하는 요한계시록의 천상계시의 장면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계 7:9-10). 또한 '사람마다 복음을, 지역마다 교회'라는 표어 아래, 교회가 가진

요한계시록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이 세대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엡 4:11-13)'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은 첫째, 신학적인 측면에서 삼위 일체 하나님 신학에 근거한 목회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지향하는 담임 목사의 삼위 일체 목회 철학은 100퍼센트의 그리스도인, 100퍼센트의 한국인, 100퍼센트의 캐나다인을 향한 100퍼센트의 온전한 인간으로의 회복을 위한 목회이다. 달리 표현하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캐나다 문화에 건강하게 적응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민 사회와 교회를 짊어지고 갈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들을 사회의 여러 분야에 파송시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돕는다. 교회는 차세대 지도자들이 그들 각자 분야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소금과 빛이 되도록 후원해야 한다.

둘째,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유기적인 상호협력관계이다. 담임목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인들을 그 몸의 지체로 여기며 온 몸이 상합하여 협력해서 일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목사만이 교회를 주체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자신의 은사와 사명에 따라 사역해야 한다고 믿는다. 바울은 교회론을 강조하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있어서 사역자와 성도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말한다(엡 4:11-12). 따라서 목회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훈련하는 리더십을 가지며, 성도들은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목회자는 목사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교사의 역할 등 다양한 코치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교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통적인 교회가 선교단체의 양육 프로그램과 훈련 등의 질 높은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교단체들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전

통교회에 가동시킴으로 전통교회의 강점인 예배와 목양(심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회철학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는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주의 신학교로부터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공급받았고 역동적인 선교단체를 통해 제자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 등을 공급받아 교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건강한 교회를 이끄는 데 주력했다.

넷째, 성도들의 은사의 활용과 리더십이다. 담임목사는 성도들로 자신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활용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은사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은사들은 곧 교회의 리더십으로 연결되게 하여 성도들이 은사에 따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정회원 과정인 '생명의 삶' 과정에서 은사 테스트를 하게 함으로 성도들의 은사를 발굴하여 리더십을 준비시키도록 돕는다.

다섯째,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성도들의 구원과 삶을 보장하고 인도해 주는 절대적인 안내서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 해설하여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그분의 인격을 배우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담임 목사의 성경관과 설교관에 따라 금요일마다 모이는 가정 교회의 목장예배시 목자 혹은 목장 교사가 지난 주일의 설교를 10분간 요약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삶에 대한 적용을 나누게 한다.

#### 나. 핵심적인 가치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성경을 적용하는 데 10가지 핵심가치를 두었다. 교회 요람을 통해 발표하는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섬김에 가치를 둔다. 둘째, 우리는 탁월성에 가치를 둔다. 셋째, 우리는 사람들이 받은 성령님의 은사에 가치를 둔다. 넷째, 우리는 신실한 지도력에 가치를 둔다. 다섯째, 우리는 팀워크에 가치를 둔다. 여섯째, 우리는 창의성에 가치를 둔다. 일곱째, 우리는 자유로움과 융통성에 가치를 둔다. 여덟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에 가치를 둔다. 아홉째, 우리는 성장에 가치를 둔다. 열째, 우리는 헌신에



가치를 둔다.

#### 다. 8대 전략

밴쿠버 지구촌 교회 공동체의 첫 글자를 따서 8대 전략을 삼았다.

첫째, 지: 지역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개발한다. 둘째, 구: 구원의 은혜, 피 묻은 복음을 전한다. 셋째, 촌: 촌락마다 교회를, 사람마다 복음을 듣는 지구촌이 되게 한다. 넷째, 교: 교회에 허락하신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사모케 한다. 다섯째, 회: 회중 모두의 은사, 시간, 재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케 한다. 여섯째, 공: 공동의 목표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배우고 성장한다. 일곱째, 동: 동서남북 땅 끝까지 선교와 구제에 앞장선다. 여덟째, 체: 체험적 신앙으로 성령 충만하여 지상 명령을 준행한다.

## 2. 일반적인 전략

### 가. 조직과 사역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미주 한인 장로회 소속이다. 교회 헌법에 따라 공동의회와 당회와 제직회가 있고, 치리회는 당회이다. 사역적인 면에서는 제직회 산하에 예배 팀, 선교 팀, 교육 팀, 케어 팀 그리고 행정 팀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것은 교회를 지원하는 사역 팀들이다. 그 외에 가정 교회가 있어 목자들이 목원들을 사역하는 체제이다.

### 나. 역동적 예배 사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면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전통적인 예배의 습관과 분위기를 벗어나 보다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도록 힘쓴다. 정규 예배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는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지도록 한다.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축제성 예배이다. 이러한 축제성 주일 예배의 중심에는 찬양과 설교가 있는데 찬양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새 노래로 찬양하기에 힘쓰며 여러 종

류의 악기로 연주하며 예배드린다. 전통적인 교회 생활에 익숙한 성도들은 이러한 축제성 예배에 불편해 하시기도 하지만,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지향하는 불신 영혼구원과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을 향한 전도의 열정을 다시 기억시키며 다 함께 축제성 예배를 즐기고 감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다. 영성 훈련과 사역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는 전체 교인들에게 배우는 기회와 가르치는 기회를 모두 열어 주어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하나의 일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했다. 처음에는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간된 *일대일 양육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했고, 이 과정을 이수한 자를 정회원으로 세웠다. 그리고 다양한 신앙 성장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 신자들의 신앙성장을 기대했다. 교회 개척 후 5년 동안 30회의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 후 5년 동안 17회 등 총 47회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의 종류를 보면 가정세미나, 묵상세미나, 찬양 세미나, 내적치유 세미나, 귀납법 성경공부 세미나 등이었다. 또한 코스타 연합 집회를 유치하여 각종 세미나를 열었다. 지금까지 총 8차례의 영적 각성 대집회를 통해 영적 성장을 다져오고 있다.<sup>150)</sup>

#### 라. 선교 사역

선교는 교회의 동맥과 같은 중요한 교회사역이다. 교회 개척 후 10년간 11차례의 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청소년 단기 선교 팀을 14 차례 파송했다. 1998-1999년도에는 2-3팀이 각기 서로 다른 지역으로 파송되기도 했다. 1998년도에는 몇 명의 장년들이 구 소련 땅,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란티스크에서 전도하며 거기서 최초의 개신교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밴쿠버에서 서북쪽으로 1,300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 BC 주 최대의 원주민 보호 구역인 번스 레이크에 199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매년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번스 레이크는 약 7천 5백 명의 원주민이 5개 부족으로 나뉘어져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다. 앞으로 이곳 원주민 부족 내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세워질 때까지 단기 선교는 지속될 것이다. 또한 2006년 6월에는 교회 개척 10주년 기념 단독 선교사를 세계 선교지에 파송할 예

150) 밴쿠버 지구촌 교회, *2006년 교회 생활 안내*, 40-43. 참조

정이다.

#### 제 4 절 지금까지의 가정교회 조직과 운영

##### 1. 지금까지의 난제들

지금까지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지역적, 역사적, 통계적 현황을 분석해 보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일반적인 전략을 고찰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는 본 연구자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 한때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불신자들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단기간에 급격한 양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외부에 건강한 교회라는 인상 준 적이 있다. 성장과 위기, 그리고 IMF로 인한 교회 감소를 실재 경험하면서, 교회의 헌금과 성도 수의 감소를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란 성도들의 은사에 따라 리더십이 인정되고 활용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비록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양적인 성장으로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게 하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 그들의 은사에 따라 교회 내 적절한 리더십을 주고 주체적으로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는 약했던 것이다.

물론 개척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교회 내 평신도를 세워 교회 사역에 동역하고자 했다. 그러나 개척 교회의 상황은 이런 이론과 필요에 의한 인식만으로 평신도를 훈련시키고 동역하는데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의 평신도 사역의 어려움은 교회가 가치를 두고 있는 불신자 영혼구원이라는 사역원칙과 무관하지 않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맥가브란의 건강한 교회의 원리를 따라<sup>151)</sup> 지역사회 불신자와 불신자 젊은이들을 구원시키는 사역에 집중했으므로, 결신하고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 영접한 사람들이었다. 또한 타 교회에서 수평이동한 성도들은 교회가 금하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익숙하고 바르게 배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부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처음 개척 초기에 느끼는 평신도 리더십의 부족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결국 담임 목사는 교회 안의 다

151) McGavran and Hunter, *교회성장학*, 15.

양한 리더십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 전도와 심방, 그리고 성경공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구역모임은 친교 중심에 머물렀고, 성경공부는 성도들의 삶과 연결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은 개인 만족에 그쳤다. 새 신자는 교회에 2-3주 이상 참석하지 못했다.

소그룹 리더를 세워서 늘어나는 교인들을 소그룹으로 편성해 묶어 교회 생활과 성경 공부 등을 하도록 지도했지만 소그룹 리더나 훈련된 지도자의 부족으로 소그룹 모임은 금세 약해져갔다. 소그룹을 맡은 지도자들은 훈련 부족으로 인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보다는 무거운 짐처럼 여겼고,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혼 구원과 양육, 그리고 제자 훈련이 힘을 잃어갔다. 결국 성도들은 소그룹 모임에 흥미를 잃고 주일 이외의 주중 모이는 소그룹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빌 벡헴은 평신도에게 사역을 돌려주는 것을 일컬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한다. 평신도가 사역에 들어갈 때 행복할 수 있고 교회에 역동성이 있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이다.<sup>152)</sup> 사람을 세우고 훈련시키고 은사에 따라 리더십을 주는 과정은 곧 교회 성장에 직결되는 것이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비록 예수를 갖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성도들이었지만,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끝까지 은사와 리더십을 개발하고 훈련했어야 했다.

평신도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해가는 동역자이다. 목회자는 평신도를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엡 4:11). 목회자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역은 평신도를 교회 안의 다양한 리더십에 배치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는 일이다(벧전 2:9).

## 2. 가정 교회를 시작하게 된 동기

담임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지역교회에서 성장했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선교단체로부터 소그룹을 통해 제자 훈련을 받으며 신앙이 자랐다. 1970년대 초반은 선교단체가 지역교회의 양육의 부실과 부재에 대한 반동으로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소그룹

152) McGavran and Hunter, *교회성장학*, 15.

제자훈련, 일대일 제자훈련을 해 온 터였다. 이렇게 선교단체와 지역교회 모두의 영향을 받고 자란 본 연구자는 지역교회를 개척하면서 건강한 교회는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의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고 활용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동안 선교 단체에서 양육 받고 배운 다양한 주제들로 영성 훈련의 기회를 교인들에게 제공하였고 일대일 양육 과정을 의무로 이수하게 했으며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성경공부를 진행하도록 목회했다.

개척시 소그룹 모임에 대한 열정을 보이며 양무리 그룹(flock group)이라 명칭하고 소그룹 모임에 주력했다. 하지만 이 양무리 그룹 모임은 친교 중심의 구역예배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여기던 중, 변재창의 작은 목자 훈련을 읽게 되었다. 그는 교회 안에서의 효과적인 소그룹 운영을 다뤘고 그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소그룹 모임을 통한 교회성장이라는 목회 방법에 열정이 꺼지지 않았던 1997년 여름, 카자흐스탄 알마티 은혜 교회를 담임하는 김삼성 목사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일찍이 랄프 네이버의 제자로서, 랄프 네이버의 가정교회 이론을 토대로 가정교회를 시행하여 엄청난 교회 성장(당시 현지인 장년 2400명 출석, 현재 4000명 이상 출석)을 이루고 있었다. 교회내 평신도들을 자신들의 은사에 맞게 리더십을 활용하여 각기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목회자는 단지 설교와 기도, 그리고 성도를 훈련시키는 일을 함으로 교회를 섬기는데 평신도와 동역을 하고 있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이후 김삼성 목사를 초청해 가정교회 세미나를 열었고 지도자 훈련을 했다. 그러나 리더십의 자질 부족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카자흐스탄 교회의 목자들은 일주일에 3일 이상 모여 강도 높은 리더십 훈련을 받았고 이들은 전임 전도사처럼 교회 사역을 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나 밴쿠버 지구촌 교회에 출석한 이민자들에게는 그 정도의 헌신이나 시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한편으로 본 연구자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가정교회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식하고 이민 교회 중에서 가정교회를 잘 정착시킨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북미주 이민교회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2001년 최영기 목사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지는 평신도 목회*를 접하게 되었고 그해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방문하여<sup>153)</sup>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영적 성장에 성공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sup>154)</sup>

### 3. 가정교회의 개념 정의

#### 가. 명칭

명칭은 가정 교회라 부른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칭할 때는 목자의 이름을 넣어서 부른다.<sup>155)</sup> 가정교회를 교회로 본다면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각 가정교회 마다 선교지 이름<sup>156)</sup>으로 부르려고 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 나. 구성원

가정교회는 신자와 불신자로 구성 되어있다. 전통적인 구역예배처럼 연말에 통폐합하지 않는다. 가정교회는 그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어느 가정교회를 참석할지는 본인이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다른 가정교회로 옮기는 것을 한 차례 허용하고 있다.

### 4. 조직과 운영

가정교회의 운영은 보고 배우는 방법을 택했다. 가정교회의 목표는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이러한 목표와 방법을 택하셨다(막 3:14). 목원들은 가정교회 모임과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목자를 통해 배운다. 가정교회 모임은 목원들이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배우고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것을 들으면서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돕는다. 가정교회 목장 운영의 원칙은 말로만 가르치거나 훈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먼저 믿은 목원들이나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목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나누며 이때, 그것을 들으면서 배우게 한다. 왜냐하면 상식적이고 피상적인 대답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53) 가정교회 세미나 (10차, 2001년 7월)

154) 최영기, "최영기 목사와의 인터뷰," 대담 김명준 (2003년 4월). 그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가정교회 사역을 통해 600여명의 결신자가 있었다고 했다.

155) 예를 들면, 홍길동 목장이라고 부른다.

156) 예를 들면, 칠레 목장이라고 하기를 원했다.

조직을 살펴보면 우선 목자는 목원을 인도하는 목장의 목사이다. 목자의 자격은 교회의 정회원으로 생명의 삶 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예비목자는 장차 목장이 분가할 때 목장을 책임질 사람이다. 예비 목자는 목장 내에서 선출한다. 대형목자는 목자가 출타했을 때, 대신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이다. 그리고 대리목자는 목자가 출타했을 때 대신하는 목자이다. 대리목자는 생명의 삶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대리로 목자를 할 수 있다.

둘째, 초원지기는 분가의 경험이 있는 목자를 일컫는다. 소위 구역조직에서 교구장과 같다.

셋째, 교사는 목장에서 지난 주일 설교를 10분간 요약해서 나눔으로 목원들로 자신들의 삶을 조명해 보도록 돕는 자이다. 설교는 담임목사가 전 주간 주일 설교를 10분 분량으로 요약해서 교회 홈페이지 목장 회의실에 올린다. 하지만 설교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넷째, 증보기도자는 목원들이 삶을 나눌 때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증보기도를 인도하는 자이다.

다섯째, 찬양인도자는 예배 인도자와 같다. 찬양과 악보를 미리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인도한다.

여섯째, 목원은 가정교회의 교인들이다. 등록 교인과 전도 대상자를 모두 일컫는다.

순서는 4개의 W로 진행된다. Welcome: 환영과 식사, Worship: 찬양과 경배, Word: 말씀 듣는 시간, Work: 말씀적용과 삶을 나눔, 그리고 증보기도를 말한다.

## 5. 과정과 모임의 발전 단계

양무리 그룹을 가정교회로 총칭하여 발전적 단계를 보자.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급성장기, 혼란기, 안정기로 교회 발전적 단계를 나누었다. 이러한 발전적 단계는 통계에 의존한 것은 아니라 현저히 구분되는 교회의 분위기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발전적 단계에 따라 가정교회가 점차 늘어나고 정착되었다. <표 4>는 발전적 단계별로 교인 평균 출석과 평균 헌금 액수, 가정교회 수와 가정교회 참여

도를 퍼센트로 표기하여 구분해 보았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평균 출석수에서 제외시켰다.

<표 4> 교회 출석과 목장 참여수의 대비<sup>157)</sup>

구분	가정교회 구분	헌금 연평균 (달러)	출석 주일 평균(명)	가정 교회 수	가정교회 참여 수(퍼센트)	비고
1기: 급성장기 (1995-1997)	양무리 그룹식	212,000	153	8	48.5	
2기: 혼란기 (1998-2001)	김삼성식	220,000	222	12	54	
3기: 안정기 (2002-2005)	최영기식	321,000	273	15	77	

<표 4>를 보면, 급성장기에는 가정교회가 8개였고 전체 출석 성도의 약 50퍼센트 정도가 참석했다. 그리고 혼란기에는 가정교회가 12개로 전체 출석 성도의 54퍼센트가 참석했다. 교회가 안정기를 거치면서 최영기식 가정교회를 하면서 가정교회는 15개, 가정교회 참석율은 전체 출석성도의 77퍼센트를 보였다.

이를 비교해 보면, 교회 성장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최영기식 목장을 한 후, 예배 출석수가 50명 상승했고 헌금은 평균 10만 달러가 늘어났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최영기식 가정교회를 진행하면서 성도들 안에 간증이 많아 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는 안정적이고, 협조적이었다.

## 6. 문제점 및 평가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면서 역동적인 주일 예배, 교인을 위한 영성 훈련, 그리고 교회의 사명인 선교 사역에 힘을 다해왔지만, 평신도 지도자 양성과 소그룹 사역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그룹의 정착과 강화를 위해서 가정교회 사역을 발전적으로 시도해 왔다.<sup>158)</sup> 김삼성식에서 최영기식으

157) 참조, 밴쿠버 지구촌 교회 주보, 재정 보고서, 교회 요람 그리고 가정 교회 출석 통계 (1995-2005).

158) 가정교회 단계를 김삼성식과 최영기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로 전환한 이후 거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교회가 매 주일 모여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교회는 교회 안에서 정착 단계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지도자를 위한 목자 훈련의 약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교회와 교회 성장의 상관성이 보여주는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첫째, 가정교회 사역은 단지 소그룹 운동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또 하나의 교회사역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둘째, 가정교회 사역은 지역과 문화 그리고 시대에 따라 가정교회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정교회의 사례들로 접근했던 모범된 교회들을 신학적, 역사적, 문화적<sup>159)</sup>인 측면에서 점검하면서 밴쿠버 지구촌 교회에 잘 맞는 가정교회로 수정, 보충할 수 있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가정사역에서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사역의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로, <표 4>의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가정사역과 교회 양적 성장과의 상관관계가 보여주듯이, 가정교회 사역이 더 강화되고 정착되면 될 수록 영혼 구원, 일꾼 양성, 영적 재생산이 점차 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음 장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기초로 밴쿠버 지구촌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교회 성장전략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한다.

159) 이성희, *교회 행정학*, 31-37. 진 겐츠는 오늘날 교회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좋은 방법론을 제시해 주고 있다.

## 제 5 장

###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가정 교회 사역을 통한 교회 성장 전략의 새 패러다임

지금까지 연구해 본 결과 가정교회는 교회 성장의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았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와 리더십 훈련, 그리고 교회의 양적 성장의 필요 의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가정교회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성공 사례만을 모델로 하여 밴쿠버 지구촌 교회에 가장 이상적인 가정 교회 모델을 정착시키려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무리가 있었다.

본 장에서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가정 교회사역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발견한 가정교회의 원리를 중심으로 현재의 가정교회 운영을 수정, 보완하여 가정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정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밴쿠버 지구촌 교회와 비슷한 이민 환경에서 가정교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모델로 삼아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교회적 정황에 맞는 가정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공해 줄 것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 양성과 소그룹의 역동성의 강화, 나아가 교회의 양적 성장이다.

#### 제 1 절 가정교회의 정의와 필요성

##### 1. 정의

가정교회는 개척교회와 같은 독립 교회로 집에서 모이는 교회이다. 주일에는 교회 본당에 모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축제적인 예배를 드린다. 또한 주중에는 가정 교회에 모여 독립된

예배를 드리며 목원들과 삶을 나누며 교제한다.

기능적으로 보면 주일 교회는 신학교와 교단과 같다. 교회는 신학교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가정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 온 자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신앙의 기초와 성장을 돕는다. 교회는 또한 교단적인 기능을 가지고 가정교회의 행정적인 면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교회는 교회의 전문 찬양인도자나 가정교회의 찬양인도자를 훈련시키고 자료를 제공하며 교회의 선교 담당자들은 가정교회에 선교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교회에서 거둬드린 선교 헌금을 선교사에게 전달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교회의 봉사 담당자들은 가정교회의 봉사 담당자들에게 이민 사회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정교회는 신학교와 교단과 같은 교회의 지원을 받아 사역을 하는 작은 개척교회와 같지만 가정교회는 독립적인 교회로 교회의 온전한 기능을 다한다. 전통적인 개척교회와 교회내 가정교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개척교회는 신학교를 졸업한 전문 사역자가 인도하고 가정교회는 평신도가 목회자의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가정교회가 교회의 부속기관이나 소그룹이 아니다. 따라서 가정교회는 셀교회나 소그룹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 2. 가정교회의 특성

가정교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가정교회는 전도에 관심을 갖고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쓴다. 이 때 가정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인 목원들은 하나의 유기체로 서로가 상합하여 연결되어 있어 모든 일에 협력하여 돕는다. 따라서 가정교회에서의 전도는 불신자를 전도한 목원 한 사람에게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목원들 전체를 통해 불신자의 전도가 정착되고 양육이 이뤄지는 것이다. 가정교회의 전도의 특징이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전도를 통한 가정교회의 공동체성은 가정교회를 이룬 교회 전체에 영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활기를 띠게 한다. 가정교회가 한 불신영혼을 전도하고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쏟아내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기도는 마치 오랫동안 아기를 소망하던 부부에게 안겨

진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처럼 기쁨과 활기를 준다. 또한 가정교회의 기존의 성도들은 한 영혼을 돌보는 과정과 훈련을 통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둘째, 가정교회는 모든 목원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특징이 있으며, 서로간 삶을 나눔으로써 보고 배우며, 모범을 따라가는 학습 제자 공동체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한다(벧전 2:9). 따라서 가정교회는 모든 목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도록 훈련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일하게 하며 받은 은사와 사명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훈련시킨다. 또한 가정교회의 큰 특징은 목장 운영의 원칙이 되었는데, 이는 서로가 삶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투영하고 반성하며 배워나가는 데 있다. 단지 지식적인 말과 피상적인 말보다는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된 하나님 말씀과 갈등의 극복들을 말하게 함으로 서로가 서로의 모범된 말과 행동들을 몸소 배워나가게 한다. 목원들은 이렇게 가정교회를 통해 예수의 제자와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어 간다.

셋째, 가정교회는 섬김의 기회를 제공하고 큰 모임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제거시켜 준다. 전통적 교회는 섬김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지만 가정교회는 모든 목원들에게 각자의 은사대로 섬길 것을 가르치고 섬김의 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섬김의 공동체로써 훈련되어간다. 목원들은 찬양인도자로, 증보기도자로, 선교 담당자로, 광고 담당자로, 어린이 담당자로, 연락 책임자로 다양하게 섬길 수 있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섬김과 자기희생으로 말하셨다(마 20:28). 가정교회야말로 기독교를 진정으로 잘 나타내도록 훈련시키는 이상적인 교회요 소그룹 모임이 되는 것이다.

넷째, 가정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언제든지 요청하고 도울 수 있도록 나눔의 장을 마련해 준다. 가정교회의 나눔의 특징은 모든 목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삶을 나누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눔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 각 목원들은 마음속에 지닌 고민들과 갈등,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쉽게 터놓을 수 있고 증보 기도로 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교회는 목원들의 삶이 쉽게 표현하도록 돕는 한편,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로 둔다. 가정교회의 나눔의 장은 정서적

안정과 영적인 지지, 그리고 교회 안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차단하도록 돕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가정교회는 독립된 교회로서 선교의 역동성을 살려준다. 가정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후원할 선교사들을 결정하고 그들과 직접 연락하여 선교사들의 필요를 제공한다.

### 3. 가정교회의 필요성

가정교회는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 은사에 따른 리더십 개발, 그리고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목양의 형태이다. 가정교회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라일 살러는 교회가 200명이 넘으면 목사는 목장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목장이 목장을 경영하고 목축장에 흠어져 있는 양떼들과 모든 가축들을 직접 관리하는 일은 목장지기와 목동 등 여러 조력자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60)</sup> 이는 교회 내 평신도 사역자들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다. 그렉 옥덴(Greg Ogden)도 목사가 평신도를 세워 교회내 리더십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무대 위에서 목사 혼자만 연기하지 말고 청중석에 앉아있는 평신도들을 끌어 올려 무대 위의 연기자로 세우는 일에 목회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sup>161)</sup>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가 되어 교회 내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이다.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하려고 노력해왔다. 전통적인 교회는 이를 위해 제자훈련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식적인 주입으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려 하였다. 평신도 지도자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훈련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삶의 변화를 경험함으로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교회가 갖는 고질적인 약점을 극복하게 해 줬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삶을 나눔으로 말씀과 제자의 삶에 합당하게 살도록 보고 듣고 배우는 방식으로 동기화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160) Lyle E Scheduler, "Looking at the Small Church: A Frame of Reference," *The Christian Ministry*, vol. VIII (July 1977)에서 재인용.

161) Greg Ogden, *새로운 교회개혁이야기*, 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0), 125-153.

가정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는 가장 적절한 목양의 방법이다.

둘째, 가정교회는 교회의 조직과 봉사에 역동성을 준다. 가정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은사만큼, 사명만큼 일할 수 있는 조직을 이루기 때문에 봉사의 역동성이 생긴다.

## 제 2 절 가정교회 사역의 전략 강화를 준비

### 1. 사명 선언서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가 주최한 목회자 세미나 때 소개한 사명 선언서를 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대로 받아 드렸다. 가정 교회의 사명 선언의 취지는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로의 회복에 있다.

오늘날 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성도들 또한 한 지역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더 나은 교회, 더 편안한 교회를 찾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몰려다니는 이른바 '수평이동'을 한다. 여기 복미주의 이민 교회는 이러한 수평이동이 더욱 심하다. 수평이동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흠석하던 교회의 목회자와 지체들에게 아픔만 줄 뿐이다.

이런 교회의 문제점을 인식한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가정교회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양적 성장 보다는 한 영혼의 구원과 정착, 그리고 양육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교회 개척 초기부터 수평이동에 대한 우려를 했고 수평이동을 시도한 성도들을 설득해 그들이 섬겼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도록 지도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지역 사회 불신 영혼과 젊은이 계층에 대한 복음 전도에 집중하여 교회 성장을 시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회의 대부분이 새로 예수를 영접한 새 신자들이었다. 기존신자일 경우는 단, 한국에서 새로 이민 온 성도들이나 혹은 타 도시에서 이주해 온 성도들에 제한했다. 개척초기는 이렇게 교회를 구성한 새 신자들과 한국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타주에서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 모두에게 교회의 정회원 과정(12주간)을 이수하게 하고 교회의 방침에 따르기로 서약하게 했다. 교회는 이 과정을 마친 자에게 정회원 자격을 주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직으로 임명했다. 교회는 양적 성장 보다 하나님의 소원인 한 영혼 구원에 주력하는 교

회가 되고자 노력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Call) 각자의 은사를 따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성숙하고 온전하도록 돕는다. 또한 목회자는 목회적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의 은사를 확인하며 발견된 은사를 개발시키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도록 지도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 철저히 헌신하여 성도들을 전도하고 심방한다.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배치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일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처리한다. 성도들은 교회가 목회자 한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자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과 함께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인식한다. 성도들은 교회 사역이 세상의 사역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임을 알고 동시에, 교회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한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영적인 규칙에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선서한다.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또한 교회로부터 위임된 성도들의 은사와 그에 따른 리더십을 철저히 인정하고 존중한다. 단, 교회는 성도들이 은사와 리더십을 교회 안에서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고 그들의 업무에 대해서 교회적인 지도를 끊임없이 한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가정교회의 사명을 추구한다. 가정교회는 기존의 전통교회의 구역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가정교회는 독립된 교회내의 교회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척교회와 같은 독립된 교회인 가정교회는 방학이 없다. 가정교회는 교회내 교회로서 목장으로 명명되는데, 목장은 성도들의 기호에 따라 공통된 특성을 갖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여 안락한 모임이 되게 한다. 또한 가정교회는 주력 사역인 영혼구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이 된다. 가정교회의 존재와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구원이다. 기존의 전통교회의 구역 모임과 다른 가정교회의 다른 특징은 가정교회가 성경을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삶을 나누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곳이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하고 가정교회는 전도와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둔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가정교회 사역의 전략 강화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다. 첫째, 가정교회는 신약 교회의 회복을 추구한다. 조직, 활동(행 2:42), 사역 방법

(행 2:46-47), 리더십 스타일(마태 20:26-27)을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 가깝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한다. 둘째, 가정교회는 교회 성장보다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딤후전 2:4). 셋째, 가정교회는 불신자에게 전도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 믿는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불신영혼 전도이다(28:19-20). 넷째, 가정교회는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에,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에,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제자 훈련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막 3:14-15). 다섯째,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은사를 발견하고 사역하도록 한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엡 4:11-12 상), 기도와 말씀 선포(행 6:2-4), 리더십 발휘에 집중한다(행 20:28). 성도들은 목회자를 도와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엡 4:12 하). 여섯째, 가정교회는 셀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니고 교회를 추구한다. 가정 교회가 독립된 교회로 운영되기 위해서 매주일 모이고(행 20:7) 남녀가 같이 모임(롬 16:3-5)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모인다(고전 14:23-25).<sup>162)</sup>

## 2. 전략의 구체화

밴쿠버 지구촌 교회에서의 가정교회 사역은 개척 초기부터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목양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했다. 교회내 소그룹 모임과 리더십 훈련으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더불어 양적 성장을 시도하고 있을 때 가정교회를 교회내로 받아들이고 시도하면서 전통적인 교회에서 목양의 방법으로 시도하는 구역보다 더 조직적이고 짜임새 있는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정교회는 교회내 교회로서 독립된 교회이다.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소그룹과 선교회 혹은 구역예배를 종속기관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독립된 교회 안에 교회로서 주일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교회와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

### 가. 예배 횟수의 축소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예배횟수를 축소한 것이다. 밴쿠

162) 최영기, 목회자 세미나 새 교안 (2003).



버 지구촌 교회는 교회 개척부터 주일 예배와 친교 후 성경 공부가 있었다. 성도들의 반응은 좋았고 이것이 교회 급성장의 요인이었다. 금요일 밤에는 찬양과 경배의 집회가 있었다.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장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였다. 단점은 많은 준비와 힘이 소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매주 토요일 아침은 새벽기도회가 있었고 주말 저녁을 이용하여 양무리 그룹 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금요일부터 주일 저녁까지 성도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와 훈련에 집중해야만 했다. 그 결과, 처음에는 교인들이 흥미와 애정을 가지고 잘 참여하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도들은 지쳐갔다. 성도들 중에는 밤늦게 까지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주말에 집중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 문제는 집회의 횟수가 너무 많아 성도들이 모든 주말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본 연구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했고 그런 작업은 반드시 희생이 따를 것을 예상했다. 중요한 것 보다는 목회 사역에서 필요한 것을 구분하였다. 첫째, 주일 오후 성경공부를 축소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에 친교실에서 친교를 한 후에는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권했다. 주일 오후에는 정회원 과정만 개설했다. 왜냐하면 정회원 과정은 대부분이 초신자가 참여하는 관계로 주중에 교회에 나와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무리였기 때문이다. 둘째, 금요찬양 예배를 없앴다 예배 장소를 공급하는 캐나다 교회가 자신들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예배당 사용을 원했던 이유도 있었다. 처음에는 금요찬양 예배를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으로 옮겼으나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매 금요일 저녁마다 음향 장치를 설치하던 젊은이들이 빠지면서 수요일예배도 없애는 쪽으로 결과를 가져왔다. 금요일예배를 없애는 대신 주일 예배를 보다 잘 기획하고 준비된 축제적인 예배로 드릴 것을 교회에 알렸다. 교회가 주일 오후 성경공부와 금요일예배를 없애자 성도들은 교회의 남겨진 모임에 더 갈급하면서 모였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주말이 되면서 가정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가정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지만 예배가 축소되자 가정교회 사역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나 . 교회관의 새로운 시각 배양 전략

가정교회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려면 교인들의 교회관이 바뀌어져야 한다. 첫째, 모든 교인들이 가정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가정교회를 교회 안의 교회로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가정교회가 독립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인들의 인식이야말로 소속된 가정교회에 대한 애착과 부흥을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가정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었다. 이것은 전통교회에서 구역예배 체제로 신앙생활을 해 온 기존 신자들이었다. 이들 신자들은 가정교회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눴지만, 그들이 속한 모임이 독립된 가정교회라는 의식보다는 구역 모임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기존신자들이 가정교회의 용어를 잘 사용하지 못한 것은 가정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가정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정교회에 속한 한 목원으로서 교회에 대한 자신들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교인들에게 가정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했다.

둘째, 가정교회로의 전환은 가정교회에 대한 바른 교회관과 더불어 실질적인 두 모임인 주일에 모이는 주일 교회와 주중에 모이는 가정교회가 균형있게 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주일교회는 신학교와 교단의 역할을 함으로 가정교회가 독립된 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하도록 여러 가지 유용한 자원 등을 제공하고 가정교회는 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나간다. 따라서 평신도가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되게 한다.

셋째, 가정교회 사역에 맞는 교회 지도자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평신도 사역을 인정하는 교회 구조이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의 리더십 기관은 결정기관인 당회와 수행기관인 제직회가 있다. 행정조직에는 장로와 집사가 있는데, 이들을 조직상의 상하관계가 아니라 업무 수행의 내용 및 기능상의 차별로 나누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당회원인 장로와 평신도 지도자인 목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혹시 당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평신도 지도자인 목자들이 당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불식은 종식되었다. 왜냐하면 당회는 교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며 가정교회는 사역을 하는 기관이기 때

문이다. 마치 교단이 지교회를 행정적으로 돕고 보호해 주는 기관인 것처럼 주일 교회는 교단과 같이 지 교회와 같은 가정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교회의 당회원인 장로와 제직회의 집사도 목자로서의 기능을 겸하여 사역을 할 수 있다. 한때 목자가 있는 데 꼭 집사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진 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도 금세 종식되었다. 왜냐하면 집사는 제직회 산하의 각 부서에 소속이 되고 각 부서는 자기 전문 분야대로 가정교회를 돕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구조를 보면 사역이 직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 6장은 집사가 교회의 봉사를 위해 뽑혔고 이들은 구제와 공제를 담당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집사의 직분이 봉사와 구제 사역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 내의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세례를 베푸는 복음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음을 말한다(행 21:8).

신학자 얼 엘리스(Earle Ellis)의 말대로 사제적 직분과 평신도 직분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바울의 교회에 임명된 그룹으로서 사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제적 사역의 레이투르기아(Leiturgia)는 모든 신자들의 기능이 되는데, 그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집합적으로 바울이나 예루살렘에 제물로서 헌물을 보냈고, 메시아를 섬김에 있어서도 그들의 다양한 은사에 따라 그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sup>163)</sup>

성경은 만인 제사장직을 말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만인 제사장주의가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지난 500여 년 동안 평신도들은 성경을 쉽게 얻을 수 있었으나 교회에서의 사역은 여전히 전문 사역자들의 영역에 속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과 목적을 드러내어 평신도의 사역을 교회내에서 확장시키는 데 유용한 교회 내 복음 전략으로 삼는다. 평신도들이 가정교회의 목원으로 각자 자신들의 사역을 확장시켜 간다. 그러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는 분명 차이점이 있다. 첫째, 주일 교회의 목회자는 평신도 목회자를 훈련시키는 목회자인 반면, 가정교회 평신도 목회자인 목자는 같은 평신도 목원들을 훈련시키는 평신도 사

163) E. Earle Ellis, *Pauline Theology-Ministry and Society* (Michigan: Eerdmans, 1989), 100-101.

역자라는 점에서 철저한 구분이 있다. 둘째, 주일 교회 목회자가 전임으로 목회에 전념하는 반면, 목자는 자기의 생업을 가지고 동시에 목회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전임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자이나 평신도 목회자는 신학교 기능을 하는 교회에서 목회자로부터 훈련을 받는다.

지금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의 평신도 사역을 인정하고 지향한다. 단지 헌법으로 금하는 몇 가지 사실<sup>164)</sup>을 제외하고 평신도는 목회자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한다. 교회가 이들 가정교회 사역자인 목자를 세울 때 온 회중 앞에서 안수하며 세운다. 이는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을 간구 하는 것이요,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식 사역자임을 알리는 예식이다. 이때 안수 위원은 담임목사와 당회원 그리고 목자들이 된다.

다음은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가정교회로 완전히 정착하기 위한 전략들이다.

첫째, 2003년 4월에 한 주간 동안 가정교회 세미나를 개최해 교회내 가정교회에 대한 인식과 교회관을 알렸다. 강사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최영기 목사였다. 교인들과 목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가정교회 세미나와 목자 세미나를 열었다. 나아가 밴쿠버 지역 목회자 55분을 모시고 목회자 가정교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로 인해 교회와 목자들은 가정교회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고 가정교회는 구역예배와 다르기 때문에 매주 모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목자들은 격주 혹은 한달에 한번씩 모이게 되었고 교인들은 매주일 가정교회에 모이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 가정교회 사역에 큰 어려움이 해결된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교회에서 연 1회 부흥회를 하듯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 교인을 대상으로 가정교회 정착을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개최 할 것이다. 강사는 가정교회를 성공적으로 사역한 경험이 있는 강사를 초청해 담임목사와 함께 세미나를 인도 할 것이다.

셋째, 목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가정교회 세미나를 마친 성도들 중 목자들이 추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씩 8주간에 목자 훈련 세미나를 할 것이다. 커리큘럼의 내용은 아래의 목자 훈련에서 다를 것이다. 이는 새로 목자 된 이들에게도 지속적인

164) 헌법은 특별히 성찬예식, 성례전은 목사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회자의 사역과 성도의 사역이 크게 다르지 않다.

훈련 커리큘럼이 될 것이다.

넷째, 연 1회, 목자 중에서 자원하는 이들을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비롯한 성공적인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주최하는(25개 이상의 목장 소유 교회) 평신도 사역자(목자) 세미나에 참석시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교회는 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다섯째, 설교 시간에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다. 2004년과 2005년에 분기별로 가정교회에 대해서 설교 했다. 2006년도 7월, 선교의 달을 맞아 2회에 걸쳐 가정교회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이다.

#### 다. 증보기도팀 구성

스티븐 매키아(Stephen A. Macchia)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지역을 위해 기도할 때도 지역 안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한다.<sup>165)</sup>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어서 기도는 더 없이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가정교회로의 전환과 그 정착을 시도하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야말로 기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증보기도 팀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매일 새벽에 모여 기도한다. 그리고 주일 예배시간 중, 공동의 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합심하여 가정교회와 목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가정교회 사역이 충분한 증보기도의 후원을 받으려면 이를 위한 증보기도 팀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음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네 가지 증보기도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다.

첫째, 2006년 2월부터 목회자 연합 증보기도 팀을 구성할 것이다. 이 목회자 연합 증보기도 팀은 매주 화요일 새벽 기도회 후 시행해왔던 학습시간을 발전시켜 증보기도 시간으로 바꿀 것이다. 목회자들이 먼저 증보기도 요원이 되어서 교회 안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과 가정교회들을 위해서 증보할 것이다.

둘째, 2006년 4월부터 삼겹줄 증보기도 팀을 구성할 것이다. 제 1단계로 서로 집

165) Stephen A. Macchi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31. 매사추세츠 주 브록톤이라는 도시에는 10여 개 교회들이 그 도시에는 있는 6만 가구들을 위해 계속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가까운 사람 중, 연령별로 비슷한 사람을 파악해서 세 사람이 조가 되는 삼겹줄 증보기도 팀을 세울 것이다. 신년 초에 성도들에게 받은 증보기도 제목과 목회자 연합 증보기도 팀에서 발견한 교회의 증보 기도제목, 그리고 목장 모임에 관련된 긴급 기도 제목들을 전달해 수시로 기도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증보기도 훈련을 3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가질 것이다.

셋째, 2006년 4월부터 치유사역 증보기도 팀을 구성할 것이다. 치유사역 증보기도 팀은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는데, 교인들 중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 훈련은 2005년 3월 첫 주간부터 삼인조 증보기도팀과 함께 시작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찬양 증보기도팀을 구성할 것이다. 교회가 주일에 축제적인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찬양사역의 비중은 당연히 크다. 또한 각 목장마다 많은 찬양 사역목원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찬양자들을 위한 증보기도팀을 구성할 것이다. 찬양 증보기도팀은 주일 예배와 주중 가정교회 예배가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드러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특별히 기쁨 부음이 있는 찬양을 위해 증보 기도하고 찬양 팀의 리더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 제 3 절 가정교회의 조직과 편성

#### 1. 조직과 역할

##### 가. 목자

##### (1) 목자

목자는 목장의 책임자며 목원들을 인도하는 가정교회 목회자이다. 다시 말하면, 주일 교회의 목사는 담임 목사이고 가정교회의 담임은 목자이다. 목자와 목사와의 차이는 목사가 신학교에서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한 자인 반면, 목자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부터 신학을 배우고 신앙 훈련을 받아 자신에게 주어진 목원과 전도해 온 사람을 목양하는 목회자이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목자를 영어로 'Lay Pastor'라 부르며

임명받을 때는 교회공동체 대표들로부터 안수를 받는다. 이때의 안수 위원은 담임목사, 당회원인 장로들, 그리고 목자들이다. 역할은 목장예배를 인도하는 일, 위기 심방, 새로 교회에 오거나 전도 받은 이들을 심방, 개업예배 인도, 병원방문, 그리고 기도사역 등을 한다. 목원들을 위해 주 3회 이상 20분 이상씩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 (2) 예비목자

목장이 분가할 때 목장을 책임질 사람이다. 예비 목자 선출은 분가하기 6개월 전에 목장 내에서 한다. 목원들은 자신들을 돕고 양육할 지도자인 목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목원들 스스로 목장내에서 목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목장내 목원들이 선출한 예비 목자를 목양부는 심사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회가 임명한다. 예비목자는 한달에 한번 정도 목장인도를 인도하고 현 목자와 함께 심방도 다니면서 목자로부터 인턴십 훈련을 받아 목장이 분가할 때 목자로 임명을 받는다.

#### (3) 대형목자

가정교회에서 목자가 일정 기간 사정이 생겼을 때, 목자 대신 그 역할을 하는 목자를 대형 목자라고 한다. 현재 목장의 자격이 있으나 목자 필수 과정인 '생명의 삶' 공부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 대형 목자라고 한다.

#### (4) 대리 목자

목자가 출타했을 때, 목자 역할을 대신하는 임시 목자이다.

### 나. 초원지기

초원지기는 목자들을 관리하는 중간 지도자이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교구장에 해당한다. 초원지기의 자격은 목장을 분가해 본 경험을 가진 목자이고 그 역할은 자신이 분가시킨 목자들을 관리, 양육하며 담임 목회자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가정교회 사역을 함께 의논한다. 앞으로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목사가 12명의 초원지

기를 관리하고 각 초원지기는 12명의 목자를 지원해 주고 각 목자는 12명의 목원을 섬기는 조직으로 나아갈 것이다. 현재는 3명의 초원지기가 있고 그 중 장로로 선출된 초원지기는 목자 팀장의 역할을 한다.

#### 다. 교사

가정교회 예배 때에 설교를 담당하는 자이다. 가정교회 예배의 특징은 성경공부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목장에 참석하는 자들 중에는 최근에 전도 받은 자, 혹은 단지 방문하면서 목장에 기웃거리는 자, 혹은 평생 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도 있다. 다양한 신앙배경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교회 내에 있기 때문에 성경공부를 하기가 어렵다. 또한 가정교회의 목장이 지식주입식의 제자훈련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삶이 변화되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주일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공부를 하도록 권면할 뿐이다.

이렇게 가정교회의 목장은 목원들의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나누게 함으로 서로 다른 목원들의 삶의 내용을 관찰하면서 보고 듣는 방법으로 배우게 한다. 따라서 목장의 목원들은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경험을 들으면서 배우게 한다.

교사의 역할은 담임목회자의 설교를 10분간 요약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 주일에 들은 설교에 대한 기억과 삶의 적용을 위함이다. 교사가 설교를 요약해 주고 난 이후, 목자는 목원들에게 생활에서 설교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묻고 목원들 간의 삶을 나누게 한다. 설교 요약은 담임 목사가 주초에 요약해서 교회 홈페이지의 목자 회의실에 올린다. 교사는 설교를 출력해서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된다.

#### 라. 증보기도자

증보기도자는 목장에서 목원들이 삶을 나눌 때, 기도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인도하는 자이다. 목원의 기도 뿐 아니라 목장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제목도 받아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는다.



### 마. 찬양 인도자

찬양 인도자는 모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공동의 애찬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기타 같은 악기를 들고 찬양을 인도한다. 미리 곡과 악보를 준비해 오기도하고 혹은 사전에 찬양 CD를 나눠주어 목원들이 출퇴근 시간이나 가정에서 곡을 익혀오도록 하여 가정교회 모임 중 찬양을 풍성하게 하는 찬양인도자들도 있다. 찬양인도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사역자이다.

### 바. 목원

목원은 목장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다. 목장에는 기존 교인들도 있고 아직 주일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 않지만 목장예배에 참석하는 이들도 있고 목장을 방문하는 태신자들도 있다.

## 2. 목자 선정 과정

### 가. 목자의 자질

가정교회의 핵심에는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다.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는 가정교회의 부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목회자는 가정교회를 이끌어갈 평신도 지도자로 목자를 잘 선정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목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자를 선정하여 훈련시킨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목자로서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기준해 뽑고 훈련한다.

첫째, 목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딤후 1:12). 사도 바울은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가르칠 것을 권면한다(딤후 2:2).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인 영혼 구원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다. 충성스런 사람은 바울의 말처럼 믿음을 계승하고 전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교회의 목회자인 목자는 충성스런 사람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목자는

또 다른 충성스런 사람을 세울 것이고 계속해서 충성스런 사람들이 제자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목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목원들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한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자신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군이 되었다는 강력한 소명감을 가지고 가정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덕이 되며 교회에 유익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 지도자로서 목자는 비전이 있어야한다. 왜냐하면 비전이 있는 지도자가 가정교회를 능력 있게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전은 미래에 대한 계획, 통찰력, 관찰력 등으로 번역된다.<sup>166)</sup> 비전이 있는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아직 이뤄지지 않는 미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비전 있는 지도자는 목원들에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도록 확실한 그림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조건 미래만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바탕이 되는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강한 동기를 불어 넣어준다.

셋째, 가정교회 지도자는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운 것이 많고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보다 자식을 낳아 돌보며 사랑하고 평생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모 같은 목자여야 한다(살전 2:7-8, 11). 때로 그룹원이 어그러진 길로 가거나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훈계하고 권면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끄는 어머니와 혹은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가진 목자여야 한다. 교회에 부모 같은 가정교회 지도자가 많아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

넷째, 가정교회 목자는 섬기는 지도자여야 한다. 성경은 예수님의 지도력을 섬김으로 말한다(막 10:45). 폴 시다(Paul Cedar)는 그의 저서 *섬기는 지도자*에서 성경적인 지도자는 철저히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67)</sup>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이다. 목자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여야 한다. <sup>168)</sup>

다섯째,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sup>169)</sup>이어야 한다. 목자는 목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헌신이 요구되며 목원들의 형편을 잘 알고 돕는 자라야 한다(요 10:11, 15). 목

166)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서울: 신망애 출판사, 1995), 126-129.

167) Paul Cedar, *섬기는 지도자*, 김성욱 역 (서울: 햇불, 1992), 55-64.

168) Watson, *제자도*, 109.

169) 이원설,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250-251.

자는 이렇게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가정교회 목자는 목원들의 영적, 육적 상황을 정확히 알아 사랑으로 치료하며 돌봐야 한다. 교회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선한 목자상을 모범으로 가정교회를 헌신되게 섬길 목자를 발굴하고 목자로 세워 훈련시켜야 한다.

여섯째, 목자는 삶의 본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뢰는 리더십의 기초이다. 지도자가 삶에 본이 되지 아니하여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목원들은 지도자의 말보다 그의 행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사람은 듣는 것보다 보는 대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지도자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빌 4:8)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도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딤후 4:12). 이러한 덕목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가정교회의 목자가 될 때 목원들이 따라가야 할 모범이 되고, 그런 소그룹이 생명력 있게 번식되어 나갈 수가 있다.

일곱째, 목자는 협력하여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유능한 지도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사람들과 협력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동역할 수 있는 사람, 자기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관계적 존재이시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역 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셨다. 따라서 목자는 목원들이 받은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도록 사역을 부여하고 협력과 조화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목장을 이끌어야 한다.

여덟째, 목자는 영적 훈련을 원하는 사람이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지도자의 기본 자질이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 시키실 수 있다.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고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는 그릇된 습관들을 이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고전 9:27)고 말하였다. 영적 훈련을 통해 지도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아홉째, 목자는 다른 지도자를 길러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존 맥스웰(John Maxwell)은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에서 “확신에 찬 리더들만이 다른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sup>170)</sup>고 했다. 새로운 리더를 길러내는 것은 현재 리더에게 달려 있다. 가정교회 지도자의 마지막 가치는 계승이다. 예수께서도 공생애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12제자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시고 승천하셨다. 제자들에게 위탁된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승되고 있다.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탁한다. 또 충성된 사람은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예측하며 기대한다(딤후 2:2). 이처럼 재생산은 가정교회 지도자인 목자의 책임이다. 가정교회 목자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준비시키며 훈련시키고 있는 자이다.

열 번째, 목자는 자신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다(딤후 4:15). 목회자 이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가정교회 지도자 이상으로 가정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 교인의 수준이 절대로 목회자 이상의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목원들의 수준도 목자의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목자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진보와 성숙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자의 자질은 섬김이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리더는 섬기는 리더<sup>171)</sup>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sup>172)</sup>

#### 나. 선정 조건

목장, 교사 및 예비 목자, 대형 목자, 목자 인준에 관한 지침서이다. 임명에 꼭 필요한 사항은 XXX, 권장 사항은 XX, 고려 사항은 X표시를 하였다.

170) John Maxwell,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 채천석 역 (서울: 청우출판사, 1999), 171-185.

171)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막 10:44).

172)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벧전 5:2-3).

&lt;표 5&gt; 선정 조건

인준 요건	교사	예비 목자	대형 목자	목자
“목자로서의 자질”		XX		XXX
정회원 교인	XXX	XXX	XXX	XXX
주일 예배 참석	XXX	XXX	XXX	XXX
생명의 삶 수강	XXX	XXX		XXX
새로운 삶 수강				XX
경건의 삶 수강				XXX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XXX

#### 다. 선정 과정

첫째, 담임 목사가 선정한다. 새로 출범 시킬 목장을 위해서는, 선정 조건에 부합한 자를 담임 목사가 선정하여 당회가 임명하고, 목장을 출범시킨다. 둘째, 기존 목장에서 선정한다. 기존 목장에서 분가시기가 되면 분가 6개월 전에 예비 목자를 선정한다. 선정 조건에 부합한 자로서 자신들을 섬겨 줄 목회자이기에, 목원들이 선출케 한다. 선출의 자격은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를 선정케 하고, 목자에게 인턴십을 받게 한다. 셋째, 자신이 가정교회를 전도해서 개척하는 경우이다.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면, 자신이 전도해 이룬 가정교회를 인도하도록 임명한다. 그리고 목자 훈련 과정을 이수케 한다.

#### 라. 절차

담임 목사는 임명을 앞둔 목자를 개인적으로 만난다. 첫째, 자라온 가정생활, 신앙배경, 사회생활 등을 확인한다. 둘째, 목자의 사역을 같이 읽어가며 목자사역을 충분히 이해시킨다. 셋째, 목자 사역에 관한 의문이나 의구심을 해소시킨다. 넷째, 목자 서약서에 서명<sup>173)</sup>케 한다. 다섯째, 교회 앞에서 임명 안수식을 갖는다.

173) 서약서 내용은, ① 목장의 책임자로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과 가정교회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진다. ② 매 주일 예배 후에 있는 정기 훈련과, 필요에 따라 있는 목자를 위한 특별 모임에 참석한다. ③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한다. ④ 일주일에 나흘 이상 매일 성경을 3장 이상씩 읽는다. 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한다. ⑥ 십일조를 본 교회에 바쳐서 청지기로서의 본을 보인다. ⑦ 1년에 1명 이상 Hug

### 3. 목자 교육 커리큘럼과 훈련 계획

가정교회 핵심은 평신도 지도자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가정 교회의 생명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가정교회 지도자 교육에 많은 시간을 쏟지 못했지만 앞으로 목회 에너지의 70퍼센트 이상을 지도자 교육에 쏟으려고 한다. 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상담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다음은 목자 교육 커리큘럼과 훈련 계획이다.

첫 번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제공한다. 정기 훈련은 년 2회 각 12주 과정이다.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목자 훈련 과정을 갖는다. 목자를 위한 성경공부를 체계적으로 개설한다. 아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첫째, 목자의 필수 과정으로 생명의 삶<sup>174)</sup>은 조직신학적 기초를 갖게 한다. 이 과정은 특히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오래 믿는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고 성경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며 스스로 성경 보는 법을 배우며 나아가서 교회의 일꾼으로 키워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과정의 훈련을 반드시 담임목사가 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담임 목사의 신앙관과 목회철학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삼기도 한다. 둘째, 새로운 삶<sup>175)</sup>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다. 셋째, 원활한 목장 모임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경건의 삶<sup>176)</sup>의 과정을 훈련한다. 이를 통해 내적 치유와 영성을 개발한다. 넷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sup>177)</sup>으로 목자와 더불어 1대 1로 배운다. 목양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적인 공부라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나 대형 목자가 되기 전 후에 택한다. 주로 경청하는 삶에 집중한다.

두 번째, 목자는 현장 실습을 통해 보고 배운다. 먼저 담임 목회자를 통해 삶을 배우게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자신의 가정을 열어 가정교회 목자로서 가정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는 지 보여준다. 목자들은 또한 목장 모임과 연합 목장, 그리고 가정교회 현장을 참관하여 가정교회의 원리와 운영을 배우게 한다.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174) 이홍범, *새 신자 훈련 총서* 1-6 (서울: 침례회 출판사, 1992).

175) Ralph W. Neighbour, *실천, 새로운 삶* 시리즈 3권 (서울: NCD, 2000).

176) Foster, *영적 훈련과 성장*.

177) Henry T. Blackaby, & Claude V. King,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 문정민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7).

직접 인도해 보게 하여 가정교회 인도를 미리 연습한다.

세 번째, 가정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 매년 1회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평신도 지도자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킨다. 이때 다른 주제는 가정교회의 비전, 가정교회의 사명과 전략, 자연적 교회성장, 효과적인 가정교회 사역 등이다.

네 번째, 지도자를 위한 훈련을 한다. 연 2회 수련회, 1차 1박 2일로 갖거나 토요일 하루를 잡아 주제별로 훈련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목양에 필요한 실제적인 내용을 제공하여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돕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론: 성경개론, 귀납법적 성경연구의 이론과 실제, 둘째, 지도자론: 소그룹 인도법, 상담법, 갈등해소법, 간증 설교법, 멘토링, 사람을 키우라, 이상적인 소그룹 모델, 소그룹 지도자의 리더십, 경청하기, 셋째, 가정관계: 가정 세미나, 가정의 사명과 역할 등을 통해 상담 훈련, 넷째, 전도훈련: 구도자 초청 모임전략, 효과적인 전도전략, 다섯째, 인간관계 훈련: 내가 보는 나, MBTI 성격유형, 적응력을 개발하라, 나의 기뻐던 순간들, 기질과 가정생활, 고정관념 깨기, 칭찬과 격려하기, 여섯째, 관계형성과 마음열기: 자기개방, 자기소개 등이다.

다섯 번째, 지도자 자신의 지속적인 경건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는다.

여섯 번째, 서로 나눔과 토론을 통하여 사역을 배우고 고민을 해결케 한다.

#### 4. 목장과 목원 편성과 방법

첫째, 가정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선정하여 목자로 삼았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가정교회를 선택하게하고 원하는 지망지를 제 1지망지와 제 2지망지로 나눠 지원하게 했다. 만일 교인이 한 가정교회에 12명 이상이 넘을 경우, 제 2지망지로 보내졌다. 보낼 때는 교회 중직자,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부터 보냈다. 둘째, 전도한 사람은 전도한 대상을 자신의 목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셋째,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스스로 목장을 방문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한국인의 정서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금은 담임목회자가 동질성의 원리를 따라 목장을 선별해서 보낸다. 단, 교인들에게 가정교회를 한번 옮길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준다. 넷째, 가정교회도 교회이기에 남녀가 함께 모이게 한다.

## 5. 분가

가정교회는 소그룹이다. 12명이 넘으면 가정교회가 제 기능을 하기에 어려움이 생긴다. 가정교회는 삶을 나누며 그 나눔을 통해 배우며 제자화되는 곳이기 때문에 목원이 12명이 넘으면 말 한마디 안하고 돌아가는 목원이 생겨 가정교회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고 참여의 열기가 곧 식어버린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양육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분가는 목장의 목원이 12명을 넘을 때 시킨다.

### 가. 분가의 방법

목장의 목원이 12명이 넘을 때 분가를 시킨다. 분가는 목자가 단독이나 한 두 가정을 데리고 나와 목장을 개척하는 식으로 하는데, 차기 목자가 섬기기 힘든 목원들을 중심으로 데리고 나간다. 분가시 대형목자는 대부분의 목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목양이 쉬워진다. 둘째, 분가 후에 목자는 전 목장 식구들과 정을 떼도록 한다. 왜냐하면 차기 목자는 직전 목자와 비교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연락을 하지 않는다. 셋째, 목자나 목장 식구가 불평 않으면 오래 동안 분가하지 못하는 목장도 그대로 운영한다. 가정 교회는 지역 교회이기 때문에 임의로 폐쇄하지 않는다. 교회는 목장 운영에 다소 능력이 처지는 목자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

### 나. 분가의 시기

분가는 목원이 5-6명이 났을 때 분가 준비를 하고 12명이 넘으면 분가한다. 분가의 시기가 늦어질 때는 15명을 절대로 넘지 않도록 한다. 착안할 점은 분가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회가 될 때 마다 분가의 기쁨과 효과를 강조한다.

## 6. 가정교회의 운영

### 가. 모임의 날짜와 시간

가정교회 모임은 이민 교회의 특성상 금요일 저녁이 좋다. 긴장도 풀리고 가장 여유 있는 시간이다. 밤에 일하는 목원들을 위해서는 주말이나 혹은 낮에 모임을 권



장한다. 요일과 시간이 결정되면 모이기가 쉬워 진다. 권장하는 시간은 금요일 저녁 6시 30분이다.

## 나. 진행 원칙과 시간 배정

### (1) 목장 모임 원칙

첫째, 목장 모임의 표준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성경 공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셋째, 삶을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둔다. 넷째, 목장 식구가 큰 문제를 당했을 때에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진행한다. 다섯째, 나눔 이야기는 비밀로 한다. 여섯째, 안 믿는 분이 참석하면 1-3주 동안은 삶을 나누고 얘기를 듣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일곱째, 궁극적인 목표는 전도와 선교이다.

### (2) 순서와 시간 배정

가정교회 모임은 Welcome(환영과 식사)로 예배를 시작하고 25분간의 Worship(찬양과 경배)과 이어지는 10분 정도의 Word(말씀 듣기)와 가정교회 모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Work(나눔의 시간과 증보기도 )으로 진행된다. 나눔의 시간은 1시간 이상 할애하며 충분한 삶이 나뉘지도록 인도한다. 증보기도는 15분, 선교와 전도 도전에 15분 정도 할애한다.

#### (가) 식사

식사는 반드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식사에는 성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목원들은 각기 분량의 식사를 가지고 오며 다음 순서가 진행되도록 간단하게 한다. 음식 가짓수를 3가지로 하며 설거지는 뒤로 미룬다.

#### (나) 찬양

목장 구성원에 따라 찬송가든 찬양이든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 음악적 소양이 있는 초신자에게 찬양 인도를 맡겨 사역에 참여 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

심을 느끼고 성령 인도에 민감한 자가 찬양을 인도해야 한다.

#### (다) 설교 요약

설교 요약은 10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전 주의 설교를 다시 들음으로 삶에 적용 시키기 위한 것이다. 설교 요약은 목장 교사가 말하는데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둔 담임 목사의 설교 요약을 출력하여 사용한다. 목원들이 설교를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한다.

#### (라) 나눔

가정교회 모임 중 가정 중요한 시간은 나눔이다. 나눔의 시간이 중요한 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삶을 나누는 것은 목원들 각자의 삶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스브레이킹을 사용하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다. 이는 매번 사용해도 좋은 내용이다. 부록에 아이스브레이킹의 항목을 참조하면 되겠다. 또한 이 나눔이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교인들 가운데에 치유가 필요한 역기능 가정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내적 치유는 자신을 노출시키고 자신의 문제를 말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개인적인 삶의 문제와 갈등, 그리고 상처들을 감추기 때문에 삶의 적용과 나눔이 힘들어진다. 이를 위해 나눔을 인도하는 목자는 투명하게 자신을 먼저 노출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목자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였을 때 노출한다. 이렇게 나눔의 시간은 문제의 경험과 신앙으로 그 문제를 극복했던 사례들로 진행한다. 성경구절만 인용하며 지시적이고 지식적으로 문제를 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붙들고 승리한 경험을 말함으로써 보고 듣고 배우게 한다. 철저히 주의할 점은 나눔의 시간에 공개된 이야기는 절대 비밀로 한다.

#### (마) 증보기도

나눔의 시간에 나눔 문제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 증보 기도는 모임 끝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도 할 수 있다. 기도 응답이 있으면 간증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한다. 이 시간은 목원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

### (바) 선교와 전도 도전

가정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 목장 모임이 끼리끼리의 모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선을 밖으로 향하게 하고 끝을 낸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읽고 전도 보고를 하고 선교사와 5명의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 다. 가정 교회를 처음 시작하는 방법

목장이 시작하거나 분가하기 전, 담임 목회자는 먼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어떻게 목장을 인도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목장 인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몇 주간이 지나면 신임 목자가 목장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신임 목자가 몇 주간 동안 자신의 집을 개방하면 목원들이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기 시작한다. 보통 목자가 3-5주간을 개방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좋은 효과를 보았다.

## 7. 치러야 할 대가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가정교회들은 지금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보인다.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도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새 아이디어로 인해 자신이 얻게 될 이점을 초기에 알아보고 수용하는 사람을 혁신가(innovator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채택자(early adopters)에 의해 수용되고 이어서 초기 다수인(early majority), 후기 다수인(late majority)에 의해 수용되고, 저항인(laggards)은 철저히 전통을 고수하는 이들로 가장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채택하거나 절대 받아드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sup>178)</sup> 로저스(Rogers)와 슈메이커(Shoemaker)는 교회 안에 혁신가가 2.5퍼센트, 초기 채택 자가 13.5퍼센트, 초기 다수자가 34퍼센트, 후기 다수자와 저항자는 각각 34퍼센트, 16퍼센트 있다고 한다.<sup>179)</sup>

이런 사회학적 연구는 의미 있는 변화와 그 정착에는 항상 저항과 장애물이 따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로버트 프리츠(Robert Fritz)는 “위대한 것이 임재할 때는 사소한 것들은 사라진다. 그러나 위대한 꿈이 없을 때, 사소한 것들이 지배하기 마련”<sup>180)</sup>이라고 했다. 이것은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정 교회가 주님이 계획

178) Neighbour, *셀 교회 지침서*, 490.

179) Ibid., 490-495.

180) 김덕수, *셀 교회 전환과 셀 리더 세우기: 전통교회를 셀교회로 갱신하기 위한 리더십의*

하신 영광스런 교회이고 마지막 추수를 위해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새 그릇이라는 확신이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다. 이제 변화 과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장애물과 치러야 할 대가를 미리 점검해 보기로 하자.

#### 가. 장애물

첫째, 가장교회 사역에서 목회자 스스로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목회자는 만인제사장을 이야기 하며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진정 사역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역을 나눌 때 목회자의 위치와 그에 따른 권위가 점차 줄어들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또한 목회자가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목회자가 부담을 가지고 위축될 수 있다.

둘째, 교회 내의 지도자들의 저항이다. 교회생활이 오랜 사람이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섬기는 것 보다는 다스리는 데 익숙해져 있고 자신을 노출시키는 데 불안해한다. 특히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당회원들의 권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셋째, 교인들의 저항이다. 교인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익숙한데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한다. 교인들은 전통적인 교회 생활에 익숙한 나머지 한달에 한번 정도 모이는 구역예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매주 모이고 또 오랜 시간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 친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평신도 자신들이 스스로 심방하고 영적으로 목원들을 서로 돌봐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낀다. 또한 집을 공개하고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느낀다.

#### 나. 극복하는 방법

교회가 가정교회를 교회내 정착시키고 지역교회로서 가정교회를 독립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일어나는 많은 교회내, 외적 장애물들은 가정교회 사역에 대한 담임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담임목회자는 가정교회 사역이 선택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목양방법임을 교인들에게 말하고 확신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통해 가정교회에 대한 분명

---

역할 (성남: NCD, 2002), 131에서 재인용.

한 비전 제시를 하고 일관성 있는 가정교회 사역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교회가 평신도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고 교회의 주체로서 사역하게 하는 것인 만큼 평신도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둘째,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한다. 담임 목회자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가정교회에 관한 책을 사서 읽게 하고 가정교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교회를 방문하게 하여 배우게 한다. 가장 효과적인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은 평신도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이다. 또한 담임 목회자가 이들 평신도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만들어 직접 6-8주 정도 가정교회를 인도하면서 배우게 하는 것이다.

셋째, 교인들에게는 설교를 통해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알리고 기회가 될 때 마다 가정교회를 홍보하며 가정교회의 간증을 주일예배 때 하게 한다. 그래서 가정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호소보다는 현재 가정교회를 통해서 해결되는 삶의 문제와 전도의 간증을 통해 가정교회의 유익이 교인들에게 전달되게 한다. 더불어 가정교회를 잘 정착시킨 목회자나 목자를 초청하여 집회를 갖는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에서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최영기 목사를 초청해 가정교회 세미나를 가졌다. 그 이후 가정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시각이 달라졌다.

## 제 6 장 결 론

본 연구자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면서 건강한 교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란 질문을 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란 분명히 교회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써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남은 질문은 교회가 불신 영혼을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을 어떻게 교회에 잘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란 방법적인 면이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개척 후 지난 10년간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사역을 진행했다. 개척 초기에는 구역활동과 제자 훈련을 시도했다. 또한 많은 세미나를 열어 성도들을 훈련시켰다. 특별히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구역활동을 통해 제자훈련을 연결시켰는데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성도들의 삶에 대한 변화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지식적인 학습으로만 그쳐버리는 제자훈련과 지도자의 자질과 역량의 부족이 전통적인 구역모임이 갖는 한계임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자는 소그룹 모임의 확산과 구역모임의 대안으로 가정교회 사역에 눈을 돌렸다. 이론적 기초가 없이 가정교회 성공 사례만 보고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하여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가정교회만이 건강한 교회의 유일한 대안처럼 여겨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확실한 가정교회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며 가정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재교육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이 현재 건강한 사역인지 본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그 기초를 다지고 전통적인 구역모임과 소그룹 모임의 진정한 대안으로 가치를 가지는지 또한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을 표현하는 목회 방법론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해 보았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을 확인했다. 진정한 교회는 불신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적인 교회,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망하는 교회로 정리했다.

2장은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가정교회를 성경적, 교회사적, 목회 신학적 측면에서 이해했다. 성경은 가정교회 사역의 출발이 창조 때부터 있었고 신약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로서 가정교회 사역의 모범으로 이미 존재했음을 말한다. 또한 교회사적 측면으로 본 가정교회는 교회가 약해질 때마다 새롭게 일어났던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목회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가정교회 사역이 교회 성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목양의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성공적으로 가정교회를 정착시키고 확장시킨 모델 교회 세 곳을 선정했다. 첫째는 남미 콜롬비아의 ICM 교회로 현재 세계에서 최대의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이다. 둘째로 본 연구자가 담임하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와 선교 협력을 하고 있는 한국 지구촌 교회인데 한국 지구촌 교회는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지난 11년간 급성장한 교회이다. 마지막은 밴쿠버 지구촌 교회와 같은 이민 교회로써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선택했는데 이민 교회로서 어떻게 가정교회가 효과적으로 정착했는지 연구해 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한국 지구촌 교회와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직접 방문하여 세미나에 직접 참석하고 담임 목회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지만 ICM 교회는 문헌 연구로 대신했다.

4장에서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를 교회 성장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세 개의 발전단계를 거쳐 왔음을 알았다. 첫째 단계는 개척 초창기부터 시작한 양무리 그룹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교회의 가정교회 필요성을 절감하고 가정교회를 도입한 시기로 김삼성식 가정교회 단계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단계는 최영기식 가정교회 단계이다. 이들 발전 단계를 가지고 출석 수(주일 예배와 가정 교회 예배)와 연말 재정 결산, 그리고 교회의 분위기를 측정해 보았다. 비교 결과 최영기식 가정교회를 시행했을 때 교인들이 가장 많이 예배에 출석했고 목장 출석률이 급상승했다. 또한 교회에 간증이 많아졌고 교회의 전체 분위기가 따뜻하고 활발해졌다. 다른 비교 결과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가정교회에 대한 이론

적인 배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가정교회 사역을 했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평신도 훈련이 약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5장에서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교회 성장 전략의 새 패러다임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다. 가정교회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세 모델 교회 중에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특성에 맞게 가정교회를 수용하고 적용할 교회로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을 모델로 삼았다. 남미의 ICM 교회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목회 풍토와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었고<sup>181)</sup> 서울 지구촌 교회는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선교 협력교회지만 너무 큰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자 훈련 등에 있어서 모델로 삼기에는 벅찬 감이 있었다. 그러나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는 이민 사회의 규모나 이민 사회의 특성 등의 이유로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가정교회의 모델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교회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필요성을 확인하고 가정교회 사역의 구체적인 전략을 준비해 보았다. 교회는 먼저 가정교회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사명선언서를 확인하였고 전략의 구체화로 예배횟수의 축소, 교회관의 새로운 시각 배양을 위한 절차들을 단계적으로 계획했다. 또한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향후 3년 계획으로 교인 훈련, 예비 지도자 훈련, 그리고 현직 지도자 훈련 안을 세웠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론을 통해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을 확인하고 가정교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2003년 4월 한 주간 동안 최영기 목사를 초청해 전 교인 대상으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목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큰 효과를 얻었다. 둘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년 1회 강사를 초청해 가정교회 세미나를 열고 3년 내 가정교회가 교회에 완전히 정착 되도록 할 것이다. 셋째, 목자 양성을 위해 년 2회 8 주간씩 목자 훈련 세미나를 열 것이다. 목자 훈련 세미나는 목자가 될 예비 목자 양성을 위해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넷째, 가정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전문 기관에 파송해 평신도 훈련을 할 것이다. 다섯째, 2004년과 2005년에 분기별로 가정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2006년 7월 선교의 달을 맞아 2주 연속해서 가정교회에 관한 설교를 할 것이다.

181) 랄프 네이버 강의 2004년 6월 한국 지구촌교회 10주년 기념, 1차 가정교회 세미나의 영상 인사에서.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 훈련 뿐 아니라 증보기도 팀을 운영하여 가정교회를 영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다. 증보기도 팀은 3 단계로 구성이 될 것이다. 첫째, 2006년 2월부터 목회자 연합 증보기도 팀을 구성한다. 둘째, 2006년 4월부터 3인조 증보기도팀을 구성한다. 셋째, 2006년 4월부터 치유사역 증보기도팀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찬양 증보기도팀을 구성한다.

오스왈드 샌더스(Oswald Sanders)는 지도자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동시대의 사람들과 동료들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리더십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존경할 필요가 없다”<sup>182)</sup>고 말했다. 주일 교회 목회자들과 가정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목회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정교회를 통해 부흥을 시도할 때 대가를 지불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가정교회로의 전향을 이미 시도했고 지금은 정착과 성장을 위한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금의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최영기식 가정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인들 모두가 교회의 의미를 알고 교회 본연의 사역인 불신영혼을 구하는 전도에 힘을 쏟게 되었고 교회 안의 간증이 많아지면서 기쁨과 소망의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고 있다.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속한 가정교회를 책임지며 지역에 사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며 양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목장 별로 섬김이 구체화 되었고 가정교회 식구들은 한 가족으로 섬기며 서로의 삶을 책임져 주는 코이노니아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서 가정교회 사역이 밴쿠버 지구촌 교회의 부흥 전략임을 확인하게 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는 앞으로 가정교회 운영의 취약점인 평신도 사역자 훈련을 강화하여 향후 3년 내에 가정교회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182) Hans Finzel, *리더십 파워* (Empowered Leaders), 김재영 역 (서울: 디모데, 1998), 302.

## 부록 1

## 가정 교회 요약 (사명 선언서)

1. 신약 교회의 회복을 추구한다. 조직, 활동(행 2:42), 사역 방법(행 2:46-47), 리더십 스타일(마태 20:26-27)을 가능하면 신약 성경에 가깝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한다.

2. 교회 성장보다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둔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딤후전 2:4).

3. 불신자에게 전도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에 교회 존재의 목적을 둔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마 28:19-20).

4. 지식 전달보다는 능력 배양에, 교실 교육보다는 현장 실습에,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제자 훈련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막 3:14-15).

5. 목회자와 평신도 각자가 본연의 사역을 되찾도록 한다.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과(엡 4:11~12상), 기도와 말씀 선포(행 6:2-4), 리더십 발휘에 집중한다(행 20:28). 성도들은 목양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엡 4:12하).

6. 셀 그룹이나 소그룹이 아니고 교회를 추구한다. 가정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수한다.

(가) 매주일 모인다(행 20:7).

(나) 남녀가 같이 모인다(롬 16:3-5).

(다)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모인다(고전 14:23-25).

## 부록 2

## 목장 분가식 디자인 (2003년 4월)

첫째, 분가 식은 결코 숫자가 넘쳐 숫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목원들 가운데 이제는 성숙한 목원들이 다시 자신들의 목장을 세우고 그 가운데 새로운 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둘째, 누가 능력이 되어서 새 목자가 되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장 가운데 모두가 하나로 목자와 같이 성숙하였기에 이제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대표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목원 모두가 같이 세워 가는 것이다.

셋째, 목장의 분가는 마치 새로운 개척교회와 같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나누어 가는 것이고 목장은 부부가 항상 함께 가는 가정교회라는 인식하에 모든 순서에 부부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 될 수 있는 분가 식이었으면 합니다.

1. 시간은 헌금이 끝나고 광고시간에 합니다.
2. 우선 목장 분가에 대한 담임 목사의 간략한 경과 안내가 있고 새 목자와 목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한 후 새 목자(부부)들을 앞에 단상으로 부릅니다.
3. 이때에 기존 목자(부부)들도 단상으로 나와 새로운 목자를 향해 준비된 2-3분의 짧은 축하의 메시지를 낭독한다.
4. 담임 목사와 당 회원과 다른 목자들이 단상에 올라와 새 목자 부부에게 통성으로 안수 기도한 후에 담임 목사님이 대표기도로 마무리합니다.
5. 선포 후에 새 목자들에게 부부별 각각 포옹을 합니다.
6. 새로운 목자부부가 단상에서 내려 올 때 새 가족이 된 목원들이 꽃다발과 함께 나아가 포옹으로 축하해 줍니다.
7.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기도로 목장 분가식을 마친다.
8. 가능하면 새 목자 부부가 키워준 목자 부부에게 감사의 메시지 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다.

## 부록 3

## 분가하는 목자부부를 향해서 키워준 목녀의 편지 (2003년 4월)

긴 겨울을 보내면서 나무는 마치 죽은 것 같이 앙상한 가지만을 남겨 놓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따스한 기운과 더불어 가지에 움이 트고 꽃망울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생명이 살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목장 분가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 보건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새롭게 목자가 되는 가정같이 좋은 가정들을 저희와 함께 하게 하셔서 실족치 않고 부족하지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운 목자가 되시는 이상면 집사님 남궁섭 집사님 그리고 전인숙 집사님 그동안 함께 하면서 보았던 새 목자님들의 모습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세 명의 목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에 참 감사함이 큼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목녀 되시고 목동 되시는 성예리 집사님 한새희 집사님 그리고 이종진 집사님을 곁에 보면서, 가정교회가 그야 말로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세워 가는데 배우자로서 돕는 배필로 또 가정을 세우는 가장으로서의 든든한 모습 속에서 세 목자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목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마치 부모와 함께 있다가 결혼을 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미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간구할 뿐 아니라 목장의 다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는 한없는 기쁨을 맛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추스리는 자리에서 나아가 다른 사람을 볼보며 섬길 때 더욱 자신이 성숙해 감을 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환경에 의해 좌우되고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

서 목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도 초기에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가정교회도 방학을 할 당시에는 부부 싸움을 하면 짧게는 3, 4일에서 길게는 1, 2주까지 끌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개학하면서부터 는 서로 찡그린 얼굴로 가정교회에 갈 수도 없고 게다가 인도하는 목자라는 입장 때문에 하루, 이틀 혹은 한 두 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게다가 감사한 것은 화내는 횟수가 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같으면 충분히 화낼만한 일에도 웃음으로 넘기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생긴 것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고 또 해야 할 말이 있는 모임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교회라는, 그것도 목자라는 제어장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함께 드리는 마지막 목장 모임 때 그동안 우리 모두가 얼마나 변 했는가 헤아려 볼 때에 각 가정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정말로 컸음을 모두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가정교회에 소속될 뿐만이 아니라 목자가 되는 비전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날마다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서기 힘들지만 삼 겹줄을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목장을 이루게 되는 목원 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지켜봐 주고 권면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각 목장으로 세워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각각의 개척교회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고 제자 삼으며 교제의 떡을 떼므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귀한 몸된 교회로 커가길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한 소절과 성경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 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뵈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골로새서 3장 12-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너희를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목녀 이향옥

## 부록 4

## Ice Breaking을 위한 35가지 질문

- 1) 당신이 걸어 온 삶을 돌아 볼 때 아주 기뻐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무엇입니까?
- 2) 내가 했던 일 중에 가장 겁이 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 3) 사람들은 나의 ( )를 알면 놀랄 것이다. 나의 ( )은 무엇입니까?
- 4) 거짓말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 5) 어린 시절 중에 가졌던 것 중 가장 그리운 것은 무엇입니까?
- 6) 만일 내가 'TV는 사랑을 싣고'의 주인공이 된다면 나는 누구를 찾고 싶습니까?
- 7) 첫 번째 얻은 직장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 8) 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혹은 별명이 있습니까?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9) 어렸을 때 "나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까?"
- 10) 그냥 재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기 전에 반드시 ( )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죽기 전에 꼭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 11) 혹시 동일한 꿈을 5회 이상 꾸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꿈입니까?
- 12)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까?(당신은 결혼하면 어떤 사람,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 13) 삶이 힘들 때 가장 가고 싶은 곳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 14) 당신은 당신 자전에 대한 많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들었던 자신에 관한 말 중 가장 좋았던 말은 무엇입니까?
- 15) 내가 맛을 내고 있다면 나는 (예-짠맛, 신맛, 쓴맛, 달기맛 등) 어떤 맛을 내

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6) 돈과 관계없이 전 세계 어디든지 가고 싶다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7) 방송국에서 1분을 이야기할 기회를 준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18) 당신의 소지품 중에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19) 최근 일주일 동안 가장 기뻐던 일과 슬펐던 일은 무엇입니까?

20) 기적을 1가지 일으킬 수 있다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21) 첫 사랑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보다 지금의 짝의 어떤 점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2) 당신이 처음으로 어떤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었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그때 기분은 어떠했습니까?

23) TV나 만화에 나오는 인물이나 캐릭터 중에 당신을 닮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24) 당신이 동참했던 가장 거칠고 짓궂은 장난은 무엇이었습니까?

25)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 본 충고 중 당신의 마음에 심금을 울렸던 충고는 무엇입니까?

26) 당신이 지금까지 만나 본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그리스도인 중, 세상사람 중)

27) 당신이 이룬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28)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며,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29) 지난 한 주간의 삶 중에서 당신을 신나게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30) 당신이 가정에서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는 누구입니까?

31) 당신이 처음 미팅을 했거나, 맞선에 나갔던 일을 이야기 해봅시다.

32) 당신이 사는 동네에서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3) 당신이 속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4)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것과 당신 자신이 당신을 보는 것 중 다른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35) 당신의 부모님 중 당신이 보기에 좋은 두 가지를 이야기 해봅시다.

나. Ice breaking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1) 어린이처럼 시작해야 합니다.
- 2) 강요하지 않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 3)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 4) 계획성 있게 잘 짜여진 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 5) 사람들의 개성과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긍정해야 합니다(절대로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 부록 5

## 목자 일지

오늘의 날짜: 2005/0/00 (금주 장소: ) 다음 장소( )			
출석자 명단			
			총 출석:
			방문 자:
(결석자 명단)			
-----			
아래에 한 주일 동안 사역한 결과를 적어 주십시오(어려움, 문제, 감사 조건,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도의 응답, 특별 모임)모자라면 뒷면에 적어 주십시오. (요령)1월28일 XXX 형제에게 전화하여 목장모임에서 만나지 못함에 아쉬움을 이야기 하고 , 장사가 저조하더라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했음. OOO 자매에게 전화하여 머리가 아픈 것이 어떤지 물어보고 DDD 형제에게 격려전화를 권유함)			
(목장 근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nn 자매 한국으로 출국함(1/10)</li> <li>* 김gg 형제는 몸살로 참석 못하여 목원들 같이 기도드림.</li> <li>* 이pp씨 부부는 아이들이 다운타운에 나감에 따라 픽업 때문에 늦게 참석한다고 했으나 참석하지 못했음-&gt; 내일 전화할 예정임.</li> <li>* 최nn집사 부부는 우리목장 각 가정에서 송hh집사에게 고기를 주문하여 고기 전달 차, 가정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교제 나눔.</li> <li>* 오늘 한국에서 오bd집사가 도착하였다기에 전화 드려 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제 나눔 * 강gv집사 딸 evv의 백일(1/19)을 미리 축하 하기위해,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 식구들이 선물을 준비하여 축하함.</li> <li>* 중국에서 선교중인 강oo 선교사님이 보낸(1/15) 신년카드에 기도제목과 소식을 전해와 가정교회 식구들과 같이 나누고 기도함.</li> </ul>			
목사님 !			
* 1/19(일) ggg 집사 딸 cvb 백일을 맞이합니다. 축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6

## 가정 교회 모임을 다양하게 이끌기 위한 제안들

우리는 지난번 모임에서 가정 교회 멤버의 마음 문을 여는 작업으로 Ice Breaking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가정 교회 모임의 틀이 언제나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목원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고, 가정 교회 모임을 보다 다양하게 이끌기 위한 제안들을 공부합니다.

## 가. 가정교회를 다양하게 이끌기 위한 제안

1) 인도자나 방문강사가 인도하는 성경공부를 가미하라: 모든 목원들에게 내용을 적어두도록 격려하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야간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한다.

2) 주제별로 강의를 계획하라: 지체들 중에서 몇 사람을 선발해서 성경공부를 인도하게 한다. 예를 들면 '손 대접'이란 주제를 정하여 성경적 견해를 알고자 할 때 몇 사람을 세워 그것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표하게 한다.

3) 주일 설교를 가정교회 모임의 성경공부로 활용하라: 설교 내용에 대하여 질의 응답할 수 있는 강의안을 준비하여 공부하고 적용 점을 나눈다.

4) 분기별 혹은 적절한 때에 간증의 기회를 갖도록 하라: 모든 참석자들에게 알려 미리 준비하게 한다. 강요하지는 말라. 오래 전 간증이 아닌 최근에 일어난 일을 간증하도록 해야 한다.

5) 치유와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라: 이 말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알맞지 않다거나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다. 특별한 환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6) 목원들 중 특별 기도제목이 있을 때는 금식의 기회를 가지라: 하루나 이틀 금식을 하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서로 나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함께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는 기회를 갖는다.

7) 성경퀴즈나 일반퀴즈를(퍼즐을 포함한) 갖도록 하라

8)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하라.

9) 찬양의 밤을 갖도록 하라: 새로운 곡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가족 찬양 발표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10) 찬양 CD Tape을 제작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라.

11) 공작하는 모임(솜씨사랑)을 갖도록 하라: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배우는 시간이 된다. 서로 돕고 기억하는 시간이 된다. 조심할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을 하지는 말라.

12) 조심스럽게 계획된 오락 시간을 갖도록 하라: 이 목적은 지체들을 좀더 파악하고자 하는 시간이다.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도 될 수 있다.

13) 목원들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씩 나눠서 교제하고 서로에 대하여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발표하도록 하라: 이 방법은 토론에도 사용할 수 있고, 증보기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

14) 가정교회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주말에는 야외에 나가 일일 수련회를 갖도록 하라: 단순히 긴장을 푸는 모임이 될 수 있다. 어떤 사역을 목표로 이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15) 절기 행사를 통한 복음전파의 기회를 만들어라: 예를 들면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부활절 같은 발표회를 갖고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복음을 접할 기회를 준다.

16) 복음 전파의 밤을 계획하라: 예를 들면 연극이나 간증을 통하여 가정교회에서 얻게 된 유익을 나타내는 기회를 만들라.

17) 은사를 서로 사용하는 기회를 만들라: 형제(자매)가 방언하기를 원하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때로는 은사에 대하여 강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그러나 은사로 치우치지 않는 말라(은사는 복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18) 글을 쓰는 기회를 만들라: 꼭 미리 알릴 필요가 없다. 종이와 연필을 나눠주고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만든다. 가정교회 모임에 대하여 느낀 대로 글을 쓰는 기회를 갖는다. 때로는 목원들 중에 군이나 해외에 있는 자녀가 있으면 글을 쓰기도 한다.

19) 읽었던 글을 발췌하여 발표하는 기회를 가지라: 각 사람이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책이나 잡지, 신문 기사 등을 발췌한 것을 가지고 온다.

20) 봉사 기회 가지라: 목원들 서로 간에도 좋다. 아니면 외부의 어떤 사람을 돕고 섬기는 기회를 가진다.

21) 다른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격려하는 기회도 가지라: 단순히 가정 교회끼리 사귀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다. 연합의 목적일 수도 있다. 특별한 사역을 협력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

22) 스포츠를 좋아하는 목원들이 있다면 스포츠클럽을 만들라: 보트 타기, 스케이트 타기, 야외 스포츠나 등산도 좋다. 지도자 중심으로 만들지 않고 목원들 중 초 신자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만든다.

23) 이웃 초청의 밤을 가지라: 가정교회 목원들간의 친밀함을 보여준다. 때로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4) 문학 발표의 기회를 가지라: 자신이 쓴 시, 작곡한 찬양 등을 발표한다.

25) 선교 테마의 시간을 가지라: 선교사님의 방문이 있을 때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교단체의 지도자를 초청하여 테마 선교의 시간을 가진다.

26) 좋은 책 소개의 밤을 가지라: 기독교 서점의 판매원이나 주인을 초청하여 근간에 나온 좋은 책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진다.

27) 연극 발표의 기회를 가지라: 하나님이나 그의 나라, 사회 풍자에 대한 성경적 조명을 위한 짙막한 촌극들을 준비하여 발표한다. 인형극도 포함된다.

28) 성경이나 찬양을 무언극이나 동작으로 해석하는 모임을 가지라: 이것은 특정한 팀을 초청할 수도 있고, 가정교회에서 준비하여 공동체 예배 시에 발표할 수도 있다.

29) 초 신자나 이웃의 관심을 파악하여 그들의 장기를 살려주는 기회를 가지라: 예를 들면 실내장식에 관심 있는 성도나 이웃이 있다면 인테리어를 초청하든지, 목원들 중 실내장식을 해야 할 기회가 있다면 그들을 잘 활용한다.

30) 서로의 삶이나 물건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라: 우리 가정에 필요하지 않거나 덜 필요한데 다른 가정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는 기회를 가진다. 바자회를 계획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준비

1) 가정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일지라도 가정 교회 리더는 사전에 그룹을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의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가정 교회 구성원들의 달란트를 파악했다할지라도 충분한 대화를 주고받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가정 교회 활성화를 위한 제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

3) 가정 교회 구성원들의 동의와 방법을 선택했으면 모든 셀그룹원들이 참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한다.

4) 계획을 철저하게 기도와 더불어 세워져야 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기도가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이상).

## 참고 문헌

## 1. 국내 서적

-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서울: 아카넷, 2001.
- 권문상. *공동체로서의 교회*. 강의안. 서울: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 김덕수. *셀 교회 전환과 셀 리더 세우기: 전통교회를 셀교회로 갱신하기 위한 리더십의 역할*. 성남: NCD, 2002.
- 김명구. *교회 안의 교회 세우기*.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2002.
-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서울: NCD, 2001.
- 김연택. *21세기 건강한 교회*.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김점옥.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8.
- 김형회. *어제는 기적 오늘은 상식*. 서울: 두란노, 2002.
- 김흥기. *잔 웨슬레 신학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 명성훈.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4.
- \_\_\_\_\_. *뒷문을 막아라: 새 신자 확보, 정착, 양육을 위한 실제적 지침서*. 서울: 크레도, 1995.
- \_\_\_\_\_.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1996.
- \_\_\_\_\_.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맹용길. *기독교와 미래*. 서울: 콧잔출판사, 1995.
- 박영철. *셀 목회와 교회성장*. 강의안. 대전: 침례교신학대학원 목회신학대학원.
- 박승로. *가정교회*. 서울: 도서출판 세복, 2002.
- 박정식. *평신도는 없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변재창. *작은 목자 훈련*. 서울: 두란노 서원, 1990.
- 손봉호. "한국 교회와 개교회주의, 그 문제와 대책." *목회와 신학*. 1995년 3월호.
- 오정현. *목회 트렌드 2000*. 서울: 규장 문화사, 1998.
- 육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9.

- 유해무, *개혁 교의학*,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8.
- 이남하, *예수님자리*, 서울: 요단, 1996.
- 이동원, *비전의 신을 신고 걷는다*, 서울: 두란노, 2004
- \_\_\_\_\_, *우리가 사모하는 푸른 목장*, 서울: 두란노, 2004
- 이성희, *교회 행정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_\_\_\_\_, *미래목회 대 예언*, 서울: 규장, 1998.
- 이원규,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창립대회 주제 강연, 1998.
- 이원철, 문영식, *21세기를 향한 비전과 리더십*, 서울: 신망애 출판사, 1995.
- 임석종, *성동하는 구역 부흥하는 교회*, 서울: 두란노, 2002.
- 웨슬레 사업회 편, *잔 웨슬레 총서 4권*, 서울: 신교출판사, 1979.
- 장학일, *교회의 체질을 바꿔라*, 서울: 밴드목회연구원, 1998.
- \_\_\_\_\_, *밴드목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서로사랑, 1999.
- 정성구, "차세대를 위한 제자훈련의 평가와 전망," *목회와 신학*, 1995년 7월호.
- 정세광, *자연적 교회성장 질적 성장주기*, 성남: NCD, 2002.
- 조용기, *성공적인 구역*, 서울: 영산, 1981.
- 조태환, *평신도를 목회의 파트너로 삼아라*, 서울: 나침반, 1999
- 주상지, *리더십 개발의 12가지 열쇠*, 서울: 서로사랑, 1999.
-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6.
- \_\_\_\_\_,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2003.
-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국제 터치 셀 사역 한국본부, *터치 코리아 셀 교회 8단계 MCGW 컨설팅 강의안*.
- 유충열, 김인호, 정진우, *신병훈련소*, 서울: NCD, 2001.
- 국제터치 코리아, *셀 교회 클리닉 1단계*, 강의안.
- \_\_\_\_\_, *셀 교회 클리닉 2단계*, 강의안.
- \_\_\_\_\_, *셀 교회 클리닉 3단계*, 강의안.
- \_\_\_\_\_, *셀 교회 클리닉 4단계*, 강의안.
- \_\_\_\_\_, *셀 교회 기초전략세미나*, 강의안.



\_\_\_\_\_, *터치 코리아 훈련 안내*, 미간행.

## 2 번역 서적

국제터치본부, *건강한 관계 세우기 소그룹 워크북*, 정세광 역, 서울: NCD, 2001.

Andersan, Leith, *21세기를 위한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솔로몬, 1997.

Barna, George,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The Frog in the Kettle)*, 탁영철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3.

\_\_\_\_\_, *비전 있는 지도자 비전 있는 사역*, 곽춘희 역, 서울: 표이 선교회, 1993.

\_\_\_\_\_, *비전을 실행하는 지도자*, 조범식 역, 서울: 서로 사랑, 1997.

Banks, Robert & Julia Banks, *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9.

\_\_\_\_\_, *교회, 또 하나의 가족 (The Church Comes Home)*,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_\_\_\_\_, *바울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사상: 초대 가정교회와 그 배경*, 장동수 역, 서울: 여수론, 1999.

Barrett, Lois, *가정교회 세우기*,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2.

Bavinck, Herman, *하나님의 큰 일*, 김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Beckham, William A, *제2의 종교개혁*, 임원주 외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출판사, 2000.

Bilezikian, Gilbert, *공동체 101*,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9.

Blackaby, Henry T., & Claude V. King,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길*, 문정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Blaine, Lee, *지도력의 원칙 (Power Principle)*, 장성민 역, 서울: 김영사, 1999.

Brown, Dale, *경건주의 이해*, 오찬운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Broadbent, E. H, *순례하는 교회*, 전도출판사 편집부 역, 서울: 전도출판사, 1991.

Bonhoeffer, Dietrich, *성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3.

Braoudakis, Paul, ed, *윌로우크릭 지도자 핸드북*, 김양석 역, 서울: 두란노, 1997.

Castellanos, Cesar D, *G-12 리더십*, 서효정, 현주연 역, 서울: NCD, 2001.

- Cedar, Paul. *섬기는 지도자*. 김성웅 역. 서울: 디모데 출판사, 1998.
- Cobble, James F. *교회 성장과 조직의 역동성*.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4.
- Conn, Harvey, ed. *교회성장의 신학*. 세계선교신서 2. 김남식 역. 서울: 성광출판사, 1981.
- Colson, Charles. *이것이 교회다 (The Body)*. 김애진 역. 서울: 흥성사, 1997.
- Corniskey, Joel. *지투엘브 이야기 (Groups of Twelve)*. 정진우 역. 서울: NCD, 2001.
- \_\_\_\_\_. *가정 교회 폭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1.
- Covey, Stephen R.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박재호, 김경섭, 김원석 역. 서울: 김영사, 1994.
- Donahue, Bill. *소그룹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디모데 출판사, 1997.
- \_\_\_\_\_. *윌로우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송영선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7.
- \_\_\_\_\_. & Rus Robinson.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Galloway, Dale. *(소그룹목회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 이야기*. 전의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8.
- Egley, Jim. *내적 치유 수양회*. 터치코리아 역. 서울: NCD, 2000.
- Engen, Charles Van.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6.
- Fickett, H. J. *교회성장의 열 가지 원리*. 조해수 역. 서울: 예수교 문서선교회, 1979.
- Finnell, David. *셀 교회 평신도 지침서*. 박영철 역. 서울: 도서출판 NCD, 2000.
- Finzel, Hans. *리더십 파워 (Empowered Leaders)*. 김재영 역. 서울: 디모데, 1998.
- George, Carl F.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 \_\_\_\_\_. *열린 소그룹 달한 소그룹 (Nine Keys to Effective Small Group Leadership)*. 박종훈, 정종현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 Getz, Gene. *현대교회 성장학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 임성택 역.
- Gillham, Bill. *자연적 영성 (Life Time Guarantee)*. 이상훈 역. 서울: NCD, 2001.
- Gonzalez, Justo L. *기독교사상 III*. 이형기, 차종순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88.

- Hendricks, Howard. *사람을 세우는 사람*.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0.
- Hybels, Bill. *차세대 목회지도력을 위한 30가지 전략*. 목회지도력 시리즈 1. 김창대 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9.
- \_\_\_\_\_.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 김성응 역. 서울: 두란노, 1998.
- Hanks, Bille, & William A. Shell. *제자훈련*. 박광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Hull, Bi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박영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4.
- Hunter, George. *교회성장과 목회전략*. 김선도 역. 서울: 광림, 1987.
- Icenogle, Gareth W.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안영권, 김선일 역. 서울: 옥토출판사, 1997.
- Jones, L. Beth. *최고 팀 리더 예수*. 송경근 역. 서울: 한언, 2002.
- Khong, Lawrence. *신사도적 셀 교회*.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2.
- Kirk, Daphne. *세대 통합 셀 지침서*.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2.
- \_\_\_\_\_. *어린이셀 양육지침서*.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2.
- Kotter, John P.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 (Leading Change)*. 한정곤 역. 서울: 김영사, 2000.
- Kreider, Larry. *가정 교회 리더십 (House to House)*. 박영철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 Kuhn, Thomas. *과학 혁명의 구조*. 김영자 역. 서울: 까치, 1999.
-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경북: 분도출판사, 1994.
- Maxwell, John.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 채천석 역. 서울: 청우출판사, 1999.
- \_\_\_\_\_.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키우라*. 존 맥스웰 리더십 시리즈 3. 임운택 역. 서울: 두란노, 2001.
- \_\_\_\_\_.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 2003.
- Macchia, Stephen 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 2000.
- Manschreck, Clyde L. *세계교회사*. 심창섭, 최은수 역.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 McBride, Neal F. *소그룹 인도법*. 네비게이트 출판사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2002.
- MacArthur, John Jr.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 1986.
- McKellar, Ian. *셀 지도력 혁명*. 한국강해설교학교 편집부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2.
- McVey, Steve. *은혜의 영성의 파워*. 터치 출판부 역. 서울: NCD, 2002.
- Moore, Waylon B. *제자 배가의 원리*. 네비게이트 편집부 역.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82.
- Neighbour, Ralph W. *셀 교회 지침서*. 정진우 역. 서울: NCD, 2000.
- \_\_\_\_\_.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 주희채 역. 서울: NCD, 2001.
- \_\_\_\_\_. *가정 교회 커리큘럼 0권 준비*. 박영철 역. 서울: NCD, 2001.
- \_\_\_\_\_. *가정 교회 커리큘럼 1권 안내*. 박영철 역. 서울: NCD, 2001.
- \_\_\_\_\_. *가정 교회 커리큘럼 2권 시작*. 박영철 역. 서울: NCD, 2001.
- \_\_\_\_\_. *가정 교회 커리큘럼 3권 실천*. 정진우 역. 서울: NCD, 2001.
- \_\_\_\_\_. *가정 교회 커리큘럼 4권 전도*. 정진우, 김성녀 역. 서울: NCD, 2001.
- \_\_\_\_\_. *가정 교회 커리큘럼 5권 후원자 가이드*. 정진우, 마영례 역. 서울: NCD, 2001.
- \_\_\_\_\_. *가정 교회 커리큘럼 6권 셀 인턴 가이드*. 터치코리아 사역팀 역. 서울: NCD, 2001.
- \_\_\_\_\_. *가정 교회 커리큘럼 7권 셀 리더 가이드*. 박영철 역. 서울: NCD, 2001.
- Nicholas, Ron.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 신재구 역. 서울: IVP, 1986.
- Ogden, Greg.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The New Reformation)*. 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0.
- Rogan, Bob. *교회의 잠재력을 풀어놓아라*. 정진우, 오태균 역. 서울: NCD, 2000.
- Schmidt, Martin. *경건주의*. 구영철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정진우, 박동건, 오태균 역. 서울: NCD, 1999.
- \_\_\_\_\_. *자연적 교회성장 실행지침서 (Implementation Guide to Natural Church*

- Development*). 이준영, 오택균 역, 서울: NCD, 2000.
- \_\_\_\_\_, *자연적 교회성장 훈련가이드*, 정진우, 오택균 역, 서울: NCD, 2000.
- \_\_\_\_\_, *사역의 3가지 색깔*, 임원주 역, 서울: NCD, 2001.
- Setiawan, Obaja Tanto, *세계교회는 G-12로 간다*, 임종혁 역, 서울: NCD, 2002.
- Snyder, Howard A, *그리스도의 공동체 (Community of the King)*, 김형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_\_\_\_\_,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7.
- \_\_\_\_\_, *21세기 교회의 전망*, 박이경, 김기찬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 \_\_\_\_\_, *혁신적 교회 정신과 웨슬레*, 조종남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 Spener, Philip Jakob, *경건한 소원*, 엄성욱 역, 서울: 은성, 1994.
- Stanley, Andy, *비지니아어령*, 정연석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1.
- Stevens, R. Paul,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이철민 역, 서울: IVP, 1995.
- Stockstill, Larry, *셀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 백광진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2000.
- Strommen, Merton P, *교회 혁신을 위한 7단계 전략*, 서울: 예본 출판사, 2000.
- Tichy, Noel, *개혁주의자를 위한 핸드북*, 이상욱, 정낙준, 박영종 역, 서울: 21세기 북스, 1994.
- Trudingger, Ron, *가정 소그룹모임*, 장동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 Volz, Carl A, *초대교회와 목회*, 박일영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97.
- Engen, Van Charles,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1994.
- Wagner, C. Peter, *교회성장원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_\_\_\_\_, *효과적인 교회 성장*,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_\_\_\_\_, *성서적 교회성장*, 서정운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 \_\_\_\_\_, *교회성장에 대한 신학적 이해*, 이요한 역, 인천: 성서 연구사, 1986.
- \_\_\_\_\_, *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_\_\_\_\_,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서울: 나눔터, 1990.
- \_\_\_\_\_, *교회성장전략*, 명성훈 역, 서울: 나단 1992.
- \_\_\_\_\_, *성령의 능력과 교회성장*, 이재범 역, 서울: 임마누엘, 1992.
- \_\_\_\_\_,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 Walker, Willston,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4
- Warren, Rick, *새들백 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출판사, 1997.
- Watson, David Lowes, *웨슬레와 속회: 초기 감리교 속회에 대한 연구*, 한경수 역, 인천: 성서연구사, 1986.
- \_\_\_\_\_,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 두란노, 1994
- Weber, Otto,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서울: 품만, 1985.
- White, James E, *교회성장*, 백광진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1.
- Wright, Walter C, *관계를 통한 리더십*, 양혜정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02

### 3. 외국서적

- Amberson, Talmadge H., ed. *The Birth of Churches: The Biblical Basis for Church Planting*, Nashville: Broadman Press, 1979.
- Andea, Fred W, *Shooting the Rapids: Effective Ministry in a Changing World*, Nashville: Broadman Press, 1990.
- Anderson, L,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Minneapolis: Bethany House, 1992
- Arnold, Jeffrey, *The Big Book on Small Group*,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2
- Banks, Robert and Julia, *The Church Comes Home*, Urbana: Albatross, 1986.
- Berkhof, Louis,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Grand Rapids: Eerdmans, 1993.
- Birkey, Del, *The House Church: A Model for Renewing the Church*,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88.
- Bonhoeffer, Dietrich, *Life Together*,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54
- Branick, Vincent, *The House Church in the Writings of Paul*,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89.
- Cho, Paul Yonggi, *Successful Home Cell Groups*, South Plainfield: Logos International, 1981.
- Comiskey, Joel, *The Cell Church, Home Cell Group Explosion: How Your Small Group Can Grow and Multiply*, Houston: Touch Publications, 1998.

- Compton, Stephen C. and G. Steven Sallee, *Growing New Churches: A Manual for New Congregational Development*, Nashville: Discipleship Press, 1992.
- Dalloway, Dale, *20/20 Vision: How to Create Successful Church with Lay Leaders and Cell Groups*, West Licken, Oreg: Scott Publishing Co., 1986.
- Dodd, C. H. *The Founder of Christianity*, New York: The MacMillan Co., 1990.
- Fitts, Bob, *Saturation Church Planting, Multiplying Congregation Through House Churches*, Laguna Beach, Calif.: Last Days Ministries, 1994.
- George, Carl, *The Coming Church Revolution-Empowering Leaders for the Future*, Grand Rapids: Fleming H. Revell Co., 1995.
- Gibbs, Eddie, *I Believe in Church Growth*, London: Hodder, 1981 revised 1985.
- Gorman, Julie, *A Training Manual for Small Group Leaders*, Wheaton: Victor Books, 1991.
- Grant, John Webster, *The Church in the Canadian Era*, Burlington: Welch Publishing, 1988.
- Griffin, Em, *Getting Together: A Guide for Good Groups*, Downers Grove: IVP, 1982.
- Hadaway, Wright, *Home Cell Groups and House Churches*, Nashville: Broadman Press, 1987.
- Hamlin, Judy, *The Small Group Leaders Training Course: Participant's Manual*, Colorado Springs, Colo.: Nav Press, 1990.
- Hersey, Paul, Kenneth Blanchard and Dewey E. Johnson,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ur: Utilizing Human Resources*, 7th ed, Old Tappan: Practice Hall, 1996.
- Hestenes, Roberta, *Using the Bible in Group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83.
- \_\_\_\_\_, *Turning Committees into Communities*, Colorado Springs, Colo.: Nav Press, 1991.
- Icenogle, Gareth, *Small Group Study Guide Series*, Bethlehem, Pa.: First

- Presbyterian Church, 1990 to 1992.
- \_\_\_\_\_. *Jesus: Our Example in Prayer and Preparation: Studies in Mark* (Book 1 and Book II).
- \_\_\_\_\_. *Follow Jesus: A Call to Christian Discipleship: 10 Studies of the Sermon on the Mount*.
- Jenkins, Lorna. *Feed My Lambs*. Singapore: Touch Ministries International Printed Ltd, 1995.
- Jeffrey, Arnold. *The Big Book on Small Groups*. Illinois: IVP, 1992.
- Jones, D. M. Lloyd. "Approaches to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Papers from the Puritan and Reformed Studies Conference, 1965.
- Kirkpatrick, Thomas G. *Small Groups in the Church: A Handbook for Creating Community*. New York: The Alban Institute, 1995.
- Lee, Bernard and Michael Cowan. *Dangerous Memories: House Churches and Our American Story*. Kansas City: Sheed & Ward, 1986.
- Lovelsce, Richard. *Dynamics of Spiritual Life-An Evangelical Theology of Renewal*. Downers Grove: IVP, 1979.
- MacNair, Donald J. *The Birth, Care and Feeding of a Local Church*. Washington: Canon Press, 1971, 1973.
- Mallison, John. *Growing Christians in Small Group*. Sydney: Anzea Publishers, 1989.
- Malphurs, Aubrey. *Planting Growing Churches for the 21st Century*. Grand Rapids: Baker Books, 1992.
- Mannoia, Kevin W. *Church Planting for the Next Generation*. Indianapolis: Light and Life Press, 1994.
- Miller, Keith. *The Hunger for Healing*.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1991.
- Nicholas, Ron.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Downers Grove: IVP, 1985.
- \_\_\_\_\_. *Small Group Leaders' Handbook*. Downers Grove: IVP, 1982.
- Packer, J. I. *Knowing God*. London: Hodder & Stoughton, 1973.



- Schaller, Lyle E. *44 Questions for Church Planter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 \_\_\_\_\_, *21 Bridges to the 21st Centu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 Scheidel, Tom and Laura Crowell, *Discussing and Deciding: A Best Book for Group Leaders and Members*, New York: MacMillan, 1979.
- Seernuth, David P. *How Dynamic Is Your Small Group?: Seven Keys to Improving Your Small Group Dynamics*, Wheaton: Victor Books, 1991.
- Shenk, Wilbert R. *The Challenge of Church Growth*, Scottsdale, Pa: Herald, 1973.
- Slocum, Robert, *Maximize Your Ministry*, Colorado Springs: Nav Press 1990.
- Smith, Kenwyn and David Berg, *Paradoxes of Group Life: Understanding Conflict, Paralysis and Movement in Group Dynamics*, San Francisco: Jossey-Bass, Date not set.
- Wesley, John, *The Work of Revival*,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8.
- Williamson, David, *Group Power: How to Develop, Lead and Help Groups Achieve Goal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2.
- Wink, Walter, *Transforming Bible Study: A Leader's Guide*, 2nd 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Vita of  
Christopher Myungjoon Kim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The Vancouver Global-Mission Church,  
Vancouver, B.C Canada

Personal Data:

Birthdate:	November 25, 1951
Birthplace:	Seoul, Korea
Marital Status:	Married to Aemun Kim with three children, Deborah E., Priscilla J. and Joy I.
Home Address:	8683-207 St., Langley, B.C Canada
Denominatio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Ordained:	March 10th, 1984

Education:

B. A.	Chung-Ang University, Seoul, 1979
M. 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2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6

Personal Experience:

1995 to present	Senior Pastor of The Vancouver Global-Mission Church, Vancouver, Canada
1989 to 1994	Senior Pastor of

	Edmonto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Edmonton
1987 to 1988	Director of the Antioch Connection, Los Angeles
1984 to 1987	Assistant Pastor of Dong-Shin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